

2002년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2002. 12

통 일 부

목 차

I. 2002년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개최	3
II. 주제 발표문	7
1.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1차~3차)	9
(이창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2.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4차~6차)	39
(차우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III. 토론 및 사례 발표문	61
1. 제1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63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2002. 4. 26 개최)	
2. 제2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105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2002. 5. 31 개최)	
3. 제3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151
(대구광역시교육청 주관, 2002. 6. 12 개최)	
4. 제4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197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2002. 9. 27 개최)	
5. 제5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235
(제주도교육청 주관, 2002. 11. 7 개최)	
6. 제6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295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2002. 11. 26 개최)	
IV. 부 록	331
1. 통일교육지원법	333
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335

I . 2002년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개최

1. 개최목적

-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과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사 중심의 워크숍 개최

2. 개 요

- 개최회수 : 1학기 3회, 2학기 3회
- 참석대상 : 각 지역별 초·중·고등학교 교사
- 주제 :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 주최기관 : 통 일 부
 - 주관기관 : 각 시·도 교육청
 - 후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3. 개회사, 축사

- 개회사 :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 축 사 : 각 시·도 교육감

4. 사회·주제발표·토론

- 사회자 : 각 시·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주제발표자
 - 제1차~제3차 : 이창렬(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2담당관)
 - 제4차~제6차 : 차우규(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 각 지역별 초·중·고등학교 교사 4~5명

5. 2002년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개최현황

차수	지역	일시	장 소	참석 인원	비고
1	부산	2002. 4. 26(금) 14:00-16:40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505명	
2	광주	2002. 5. 31(금) 14:00-16:50	광주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440명	
3	대구	2002. 6. 12(수) 14:00-16:50	대구고등학교 시청각실	351명	
4	대전	2002. 9. 27(금) 14:00-16:40	대전광역시교육청 강당	234명	
5	제주	2002. 11. 8(금) 14:00-16:40	제주도교육박물관 강당	199명	
6	서울	2002. 11. 26(화) 14:00-16:00	통일교육원 강당	326명	

II. 주제발표문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제1차~제3차 워크숍>

이 창 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I.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II. 학교통일교육의 전제

1.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
2. 통일환경의 변화 이해
3. 통일과정과 우리의 선택

III. 학교통일교육의 범주

1. 통일교육의 법적 토대
2.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3.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IV.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1. 학교교육과정에서의 반영 강화
2. 통일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3. 학교교육현장에서의 합의 도출 노력
4. 학생들의 통일후계세대 의식 함양

I.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최근 학교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통일교육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안들을 보면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된 분석들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학문적 접근법과 함께 행동을 보다 강조하는 이념적·실천적 접근법으로 대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큰 분수령으로 하여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교육현장에서 과거와 다른 통일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자연스런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검증된 해결방안이나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음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답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둘째 민족자결이라고 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 사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넷째 남북이 화해협력하려는 마당에 땅굴견학 등 안보교육을 계속해야 하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통일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 통일교육을 대신하려는 교육노력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곱째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등

이처럼 학교통일교육현장의 고민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명쾌하게 인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이론적 토대의 심화는 학계 전문가의 보다 활발한 논의와 연구에 기대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을 중심으로 하여 공교육인 학교통일교육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통일교육의 전제

학교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본인식이 뒷받침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체적 교육내용의 구성과 교육자료의 활용, 그리고 수업진행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의 학교통일교육현장을 보면 교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언론과 인터넷사이트 및 개인보관자료에서 발췌 구성한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자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나 검증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다소간의 인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의 학생들의 통일의지 함양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다양하고도 자율적인 수업구성과 진행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교육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통일문제 및 북한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가 시급히 형성되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분명히 남침한 6.25전쟁을 민족내부의 다툼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수업내용을 구성한다거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와 미국만이 과거의 자세를 반성하고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논리 전개는 우리 사회 내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제들에 대한 논점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

우선 통일문제 자체가 담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에 대한 균형된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가. 안보와 화해협력의 이중성

〈북한에 대한 정의문제〉

이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하는 문제로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은 갑자기 다가온 북한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겪었던 어려움이 그 예이다.

구체적 현상으로 김정일 신드롬이 있었고, '반갑습니다' 등 북한노래가 유행하면서 과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 갑자기 형제로만 인식되는 급격한 정신적·문화적 충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북한의 다른 모습이 일부 나타난 것일 뿐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적(경계의 대상)과 동포(화해협력의 대상)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헌법도 제3조 영토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하여 북한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는 한편, 제4조 통일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하고 있다.

적과 동포의 이중적 존재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학문적 차원의 논의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현재 취하고 있는 법적 해석이기도 하다.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필요성 이해〉

이러한 법 정신과 함께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북한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습은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은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교육현장이나 각종 세미나 장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아직도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게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점은 안보교육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있어서 '공기'와 같은 요소라는 점이다.

남북분단사 반세기를 돌아보면 6.25전쟁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초기의 강력한 노력동원체제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우리보다 빨리 복구하면서 70년대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6.25의 아픈 경험을 가진 그 당시의 국민정서로서는 안보교육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70-80년대의 국력각축시기를 넘어 우리 체제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안보교육만의 또는 안보교육중심의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체 교육과 화해협력교육 등에 통일교육의 중심 위치를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안보교육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남북간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안보교육이 추구하는 내용 속에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적대감을 해소해 나가는 근본적인 안보환경 개선노력이 새로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긴장조성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하는 물리적 억지력(소극적 안보 : Peace Keeping)의 굳건한 유지와 함께, 이제는 북한의 적대감 자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키는 노력 즉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간 평화로운 삶을 정착시켜 안보위협을 없애 나가는 근본적 억지력(적극적 안보 : Peace Making)의 발휘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안보의식이라 하겠다.

금강산 관광의 실현으로 북한의 최전방 잠수함기지가 후방으로 이동한 것이나, 앞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서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이것이 바로 적극적 안보의식의 모습이자 안보와 화해협력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화해협력노력은 안보환경의 개선에 대한 민족역량의 소모를 방지하고 이산가족의 아픔과 군사비의 과다 부담 등 분단비용의 절감, 그리고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의 극심한 경제난을 덜어주는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엄존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확고한 방어력으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낮추고 휴전선에서 상호비방을 중지하는 등 적으로서의 모습을 줄여나가는 한편, 금강산을 군사적 요충지에서 화해협력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는 것과 같이 함께 사는 동포로서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입체적 동태적인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

이러한 북한에 대한 양면적 정의가 일부에서는 혼란의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이는 통일교육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정확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우선 통일교육은 암기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이해에 바탕한 문제해결능력 배양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들 들면 1999년 6월 서해에서는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도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운행되었던 사실이나 2001년 6월 북한민간선박의 영해침범사건 등에 대해서 그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을 놓고 어떻게 대처한 것이 바람직하였겠는가 등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해교육 내지는 토론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즉 북한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여러 상반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대상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남북관계가 긴장과 화해 사이를 오갈 때에도 남북관계의 단편들을 혼란없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땅굴견학을 통한 안보교육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이러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른 교육만 하려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땅굴현장 견학교육도 이 교육을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은 아직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한편, 이에 머물지 말고 남북이 이러한 소모적 긴장조성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서로 좋게 화해협력하는 것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한민족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의미를 도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이 과거 2차대전 때의 유대인 학살현장을 보존하고 지금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나.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의 이중성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만을 뜻하는 '페쇄적 자주'와 우리 민족이 주인이되 관계국들의 이익도 균형되게 고려하는 '열린 자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과거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약하다고 보았던 일본이 침략한 임진왜란과 조선말 열강의 한반도 쟁탈전은 주변국가의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주변국가를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나타낸다.

중국의 명·청 교체기에 광해군이 명분을 따르기 위해 명나라의 원군요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청나라에는 본래 청을 정벌할 생각이 없었음을 전하여 전쟁의 화를 면하도록 한 등거리외교의 전개는 한반도 주인의 역할이 슬기로우야 우리 민족의 평온한 삶이 영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해군을 이어받은 인조가 명분을 중시하여 명나라에 치우치다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맞게 되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경우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우리가 현재 속해있는 세계화시대의 한반도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무한경쟁이 지속되는 속에서 북미의 NAFTA, 유럽의 EU, 동남아의 ASEAN 등 지역간 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만은 지역간 연합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 진전이 없는 바, 이는 곧 이 지역이 역사적·지정학적·이념적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임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에서는 상호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지역평화의 주창국'이라는 우리 민족의 원대한 목표도 동시에 추구될 때 안정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 사례로 유럽통합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현재 EU의 중심지인 벨기에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외세 배격적인 구호를 우선하는 일부의 현상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 즉, 역사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 독자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사안들은 꾸준히 그 사안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주변국가 자체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칫 통일의 기반까지 흔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민족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틀을 잘 마련해서 주변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하며,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일본 역사교과서, 6.25 양민피해)들은 사안별로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종국적으로는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평화의 조정자', '지역번영의 주창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통일환경의 변화 이해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통일환경은 과거 60-70년대의 남북대결시기나 80년대의 체제경쟁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변화는 이러한 구조적 힘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점차 커지고 있다.

<탈냉전 질서에서의 동참 요구>

이러한 통일환경구조의 가장 큰 축으로서 첫째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탈냉전 질서를 들 수 있다.

탈냉전의 세계질서 속에서는 경제적 분업구조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는 생존마저 위협받게 되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이후에도 국제경제질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을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탈냉전은 경제적 개방만이 아니라 정치적 질서도 개방·개혁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측면의 변화가 어려운 현재의 북한체제도 신사고의 주창 등으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도 이러한 탈냉전의 국제정치질서에 편승해야 하는 북한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북한이 취하는 개방의 노력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어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한 한계에 봉착해 있음도 사실이다.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번도약산업'인 IT 산업의 경우도 냉전시절의 공산권 전략물자수출 통제장치인 COCOM을 대신하여 1996년에 출범된 재래식 무기 및 군사기술 통제장치인 바세나르협정에 묶여 현재로서는 컴퓨터 도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나, 북한경제회복에 필요한 자금도 입도 국제금융기구의 대주주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없이는 어려운 것 등이 그 예이다.

〈남북간 체제역량의 심화〉

통일환경구조의 두 번째 큰 축은 남북간 체제역량격차의 확대이다.

분단이후 남북관계를 보면 기대와 좌절의 우여곡절 속에 장기적·평균적으로로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

남북간 분쟁의 대표적 사례인 1968년 울진삼척사태↓ 이후 72년 7.4남북공동성명↑ 74년 땅굴발견, 76년 판문점 도끼사건↓ 84년 북의 수해물자제공, 85년 이산가족 방문↑ 87년 KAL기 폭파사건↓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93년 북한 핵의혹↓ 94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94년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 2000년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긴장과 평화가 교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반세기 남북관계의 우여곡절을 통해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분단 이후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강제노력동원을 통한 우월한 체제역량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대적 자세를 취해 왔으나 70년대 이후 미중수교 등 국제적 대당트와 우리의 본격적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점차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 그 구체적 갈등양상도 무장공비 남파를 통한 직접적인 대남도발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조성, 그리고 최근에는 9.11 테러 이후에도 별다른 긴장조성행위가 없는 상태로 바뀌는 등 평화적 방법으로 변해왔다는 점이다.

둘째는 대화의 내용도 점차 실천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으로서 72년에는 통일의 원칙을, 92년에는 통일논의의 구체적 절차를, 2000년에는

실천과제를 마련한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반세기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상생국면으로 꾸준히 이끌어 온 기본동력은 앞서 설명한 탈냉전의 환경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경제성장노력(남북 GNP 격차 : 2000년 기준 27대 1)의 결실과 민주사회의 성숙에 있었다 하겠다.

즉 우리 사회가 7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키워오는 동안 북한은 폐쇄체제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8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체제역량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북한의 자세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수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우리는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변화 불가피성〉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은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대중 노력동원으로 우리보다 빠른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북한경제체제가 견지하던 ① 사회주의 소유제도, ② 중앙집권경제를 바탕으로 한 i)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ii) 중공업 우선정책 iii) 군사·경제 병진이라는 정책이 그 한계를 노정하면서 1990년 이후 9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제 사회주의권 경제가 무너지고 북한 주민의 생계가 확보되지 않는 지금의 북한체제는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나 이러한 변화는 북한체제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현재 그 추진방법을 둘러싸고 북한은 많은 고민에 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북한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를 벗어나 이제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간 현격한 체제역량의 격차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최근 북한의 변화노력을 통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초 중국 상해포동지구를 방문한 후 신사고를 주창한 것이나, 미·일·불을 제외한 서방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 그리고 가공무역법의 제정이나 2001년 한해동안 68개의 경제시찰단을 서방국가에 파견하고 서방세계의 경제대표단을 35회나 초청한 것도 이러한 변화모습의 예라 하겠다.

3. 통일과정과 우리의 선택

가. 통일방안과 정부의 통일관련정책

현재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바탕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국민의견 수렴과정과 국회공청회 등을 거쳐 1989년에 확정되고 1994년에 수정 보완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라는 단계적·점진적 방안이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지금의 정부가 통일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새로이 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우선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통일방안에 대한 과거 남북간 소모적 논쟁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말잔치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통일방안은 그대로 계승하되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냉엄한 국제적 환경에서는 한반도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족의 생존을 우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남과 북의 '제도적·법적 통일'에 앞서 평화의 바탕 위에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법적·규범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책이 통일교육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통일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분단의 원인부터 그 동안의 노력 그리고 현재의 정책과 나아가 미래의 통일국가 구상 등이 통일교육의 전체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이 주기적인 선거와 국회의 다양한 논의,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감시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수정되어 나가야 함도 사실이다.

얼마나 통일환경에 부응하고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정책이 되는가는 우리 모두의 진지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하겠다.

나. 선택가능한 3가지 대안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안보의 위협대상이자 통일을 향해 같이 나아갈 동반자인 북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주로 사용하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쿠바나 이라크의 예에서 보듯 폐쇄적 국가를 대상으로 봉쇄정책을 사용해도 붕괴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정책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남북한 대치상황을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둘째, 북한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불개입정책」 또는 「무관심정책」(disengagement or benign neglect policy)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관하고 불개입할 경우 자칫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식량난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동포애적인 견지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어렵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길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는 「포용정책」 또는 「화해협력정책」(engagement policy)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정책의 근본취지는 튼튼한 안보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평화와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나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 하겠다.

학교교육현장에서 포용정책을 설명하는 경우에 고려통일을 이룬 왕건의 정책을 논의주제로 삼아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우리 역사를 이용한 통일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학교통일교육의 범주

1. 통일교육의 법적 토대

1999년 2월 국회의 여야의원 발의 입법으로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

일교육의 정의 및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 자체가 정부차원의 일방적 교육 또는 홍보라는 지적을 씻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우리가 실시해야 할 통일교육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념별·계층별·세대별 다양한 시각을 국민합의 형성차원에서 정리하여 제2조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다.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정권차원의 교육개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3조 2항은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합의형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사업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교육지원법상의 법정기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즉 현재 시행되는 통일교육지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행력이 미약한 부분은 있으나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음으로 인해 통일교육에 대한 물적 인적 자원의 배분이 취약하던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2.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과 관련하여서는 자유, 인권, 복지, 성평등 등 다양한 가치들이 논의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일교육의 명칭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화해교육, 민족교육 등으로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통일교육의 명칭과 관련한 이러한 논의는 통일논의의 다양화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일을 향하여 노력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주하는 시민의식의 함양이나 각종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자세의 배양, 그리고 해외동포까지 포괄하는 민족의식의 함양 노력 등은 통일국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필요하되, 이

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묶는 틀은 통일교육이라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과 정체성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의 변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총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강한 통일연구나 논의가 이제는 보다 각론적으로 충실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급한 요청이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통일교육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러한 노력들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다.

현재 통일교육이 바탕하고 있는 이념적 바탕은 공식적으로는 통일교육지원법상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술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 그리고 건전한 안보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적 이념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나 통일교육지원법상의 자유민주주의는 학문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자유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소극적 원리)와 민주주의(평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국가권력을 국민의 것으로 하는 적극적 원리)가 결합된 것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념상 갈등은 있지만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사회보장, 복지, 평화주의를 가미한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가 아님)적 요소도 담고 있다.

즉 우리 법 체계에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사회민주주의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중 자유민주주의에 보다 중점을 둔 민주주의이다.

헌법재판소 결정(1990.4.2, 89헌가113)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들고 있음도 이러한 해석의 구체적 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다른 체제이념을 지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과거 이념의 '짜집기'식 결합으로 상징하고 있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국가에 담길 가치는 인류보편적 가치 즉 자유, 평화, 인권, 복지, 성평등, 관용 등과 같은 가치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하겠다.

현재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삼고 있고 통일국가도 이러한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도 보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도 이러한 가치를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이는 형태로 변화해가야 할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몇 %, 공산주의 몇 % 하는 식의 통일은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나. 민족공동체의식

통일교육이 바탕하고 있는 두 번째 가치로 드는 것이 민족공동체의식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에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많은 교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가 채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이야기하는 민족공동체의 개념은 韓민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결합되어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족공동체는 비록 공간적으로 같이 존재한다 하여도 갈등이 많으면 통합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도 유대감이 강하면 통합의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는 바, 현재 남북은 공간적으로는 나누어져 있으나 유대감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에서 구현되어야 할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溫故知新的 접근방법 즉, 우리 민족의 생활양식 중 '평화애호', '상호부조', '경로효친' 등 승계하여야 할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담겨야 할 자유, 인권, 복지, 평등 등의 가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현재 단절되고 이질화된 우리 민족의 삶의 원형을 미래지향적으로

복원하고 창조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를 기능적 복합체라는 시각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공동체라는 하위체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과제를 훨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실 분단 이후 남북은 상호 이질화의 길로 나아간 면이 많았지만 다행히 최근에 와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보다 많이 실천하는 자세가 곧 민족공동체의 함양이라 하겠다.

우선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정치공동체라는 면에서 보면, 남과 북이 시드니올림픽에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한 것이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이러한 민족공동체의 복원 또는 형성의 시작 단계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경제공동체면에서는 남북간 각종 물자를 교역하고 경의선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며, 사회공동체면에서는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들이 만나거나 어려운 북한주민을 돕는 일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문화공동체면에서는 남북간 각종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족공동체의 복원 또는 재창조라는 역사적 과제와 관련하여 각 영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곧 민족공동체의식의 형성이자 실천이라 하겠다.

다. 건전한 안보관

세 번째로 통일교육이 바탕하는 이념으로 건전한 안보관이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안보관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이라는 과제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는 과거의 수세적 안보의식에서 벗어나 통일환경과 남북간 역량격차에 부응하는 보다 성숙한 안보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평화 지키기'에 머물지 말고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라 하겠다.

3.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가. 통일교육의 목표

- (1)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 (2)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 (3)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

나.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의미	○ 완전한 통일 이전에 거쳐야 할 과정으로서의 '사실상의 통일' 이해
통일문제의 성격	○ 민족문제이자 국제적 문제인 통일문제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
분단의 배경과 성격	○ 지리적·정치적·민족적 차원의 복합적 성격의 분단 이해
분단의 폐해	○ 분단으로 인해 개인의 고통 초래 및 민족의 공동번영 저해 인식
평화정착의 필요성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의 현실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평화정착의 필요성 강조
통일의 당위성	○ 민족사적, 정치·안보적, 사회·경제적,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이해

(2) 북한사회의 모습

북한인식의 방향	○ 군사적 '경계대상'이자, '같은 동포'이며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북한 인식, 객관적 현실에 기초한 북한이해 필요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대남인식	○ 북한당국의 공식적 규범체계와 일상생활의 비공식 규범체계의 괴리 인식, 남한사회의 발전상 인지 확산
북한의 정치	○ 북한의 정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지도노선 등의 실상과 북한의 권력기구 및 외곽단체 성격
북한의 경제	○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립적 민족경제,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
북한의 문화	○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이 북한의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건
북한의 교육	○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북한의 교육	○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 '사회주의 대가정' 속의 북한주민의 삶과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 조직생활을 통한 북한주민 통제노력과 경제난으로 인한 이완현상

(3) 북한의 변화이해

북한변화의 의미	○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적응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노력 등 변화의 불가피성
북한 내부의 변화양상	○ 식량난으로 배급제 붕괴, 이중경제로 빈부격차 확대, 경제관련 법률 정비 노력
북한의 대남정책	○ 냉전시대의 '혁명통일전략'에서 생존전략인 '공존형 모델'로의 전환 시도
북한의 대외정책	○ 대미관계 개선, 대중·대러관계 복원, 대EU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 시도

(4) 통일환경의 변화

국제질서의 변화	○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의 진행으로 냉전의 수혜자였던 북한에 큰 시련 초래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으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 상존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 북한의 체제위기와 남북한 국력격차의 심화로 인한 통일논의 환경의 변화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 정착 실현의 필요 증대

(5)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한반도 냉전 구조의 실체	○ 주변국과의 관계, 남북관계, 남한 내부구조, 북한 내부구조라는 4개 층의 냉전구조가 유기적 연계 하에 존재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길	○ 상호적대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안보·정치·외교·경제 등의 포괄적 접근 필요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 협력의 강화	○ 주변 4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가이익과 국제협조가 조화되는 외교정책 추진

(6)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개념	○ 확고한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유연정책'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추진 원칙과 방향	○ 대북정책 3대 추진원칙인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불추구,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과 6대 추진방향
대북화해협력 정책과 사실상의 통일	○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군사적 긴장해소, 평화체제 정착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 추진
대북화해협력 정책과 국가안보	○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로서의 국가안보의 역할과 중요성 이해

(7)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남북관계사와 평화공존	○ 갈등과 대화가 반복되어 온 남북관계의 역사와 정상회담 이후의 평화공존 노력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 남북공동선언의 조항별 설명과 의미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분야별 추진현황 및 과제

(8) 통일국가의 실현

분단국 통일의 교훈	○ 다른 분단국의 통일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서의 교훈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 남북교류협력, 우리 사회의 민주화 등 통일촉진요인과 북한외의 대남적화전략, 남북간 상호불신, 이질화현상 등 통일장애요인
통일의 방법	○ 적대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민족국가 지향
통일국가의 미래상	○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

(9)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통일을 위해 세대간, 지역간, 집단간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건전한 통일인식 공유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 남북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확장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남북한의 공존·공영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화해협력 및 공존공영,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IV.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학교통일교육은 현재의 통일교육체계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교사 등 통일교육 실시자 및 학부모 등을 통하여 사회통일교육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현재의 평화공존시대를 거쳐 언젠가는 통일로 나아간다고 볼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곧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우리 사회 통일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통일교육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하는가.

학교통일교육현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술로 대신하되,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최근의 일부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최근 일부 통일교육현장에서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과도한 화해협력 신드림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정되지 않은 북한관련 자료의 인용이나 서술과 함께 교과서 내용과 배치되는 광복이후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등이 무분별하게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

사실 객관적으로 검정되지 않은 주관적 서술이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역사해석과 배치되는 교육내용은 각종 학문적 연구기회나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 검정된 내용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되어 오히려 우리 사회의 해묵은 이념

논쟁을 부추기고, 화해협력노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아래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주요 과제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학교교육과정에서의 반영 강화

우선 통일교육수업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금번 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교과시수는 축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나 재량활동시간에 통일교육이 포함될 수 있어 수업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통일교육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음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능시험과 논술시험에 통일관련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교과과정의 통일교육정상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수능시험에 실제로 2001년은 2문제, 2002년의 경우 5문제가 출제되었다.

<2001년 수능문제>

【수리탐구영역Ⅱ(인문계) -출수형-】

61. 다음은 1946년과 1993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북한의 상위 6개 도시를 나타낸 것이다.

1946년				1993년			
순위	도시	인구수 (천명)	구성비 (%)	순위	도시	인구수 (천명)	구성비 (%)
1	평양	323	3.5	1	평양	2,741	13.3
2	홍남	133	1.4	2	남포	731	3.6
3	신의주	130	1.4	3	함흥	710	3.5
4	청진	104	1.1	4	청진	582	2.8
5	원산	104	1.1	5	개성	334	1.6
6	함흥	103	1.1	6	신의주	326	1.6

이를 통하여 북한의 지역변화를 가장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ㄱ. 도시간 성장격차가 대체로 확대되었다.
- ㄴ. 북한도 한국처럼 수도권 인구가 집중이 심화되었다.
- ㄷ. 도시간 순위가 바뀐 것은 지역 균형 개발 정책 때문이다.
- ㄹ. 동해안 지역의 도시가 서해안 지역의 도시보다 더 성장했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65. 다음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일부이다. 이 선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보기>

- ㄱ. 통일된 하나의 정부를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ㄴ. 통일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
- ㄷ. 통일은 남북한 지도자의 외형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ㄹ.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 공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ㄴ.ㄹ

<2002년 수능문제>

【사회탐구·과학탐구영역 -혼수형-】

59. 다음의 관점을 토대로 통일 조국의 미래상에 걸맞는 이념적 좌표로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근대 이후 특정한 국민 국가의 민족주의는 그 역사 과정에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거대한 역사적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나이더(L.L.Snyder)의 지적처럼, 18세기를 풍미하였던 민족주의가 자유주의적인 속성이 강했다면, 19세기에는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속성으로 변모하여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보기>

- ㄱ.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패권적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 ㄴ. 국제 사회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항적 민족주의를 더욱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 ㄷ. 지역·계층간 갈등과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 민족주의를 목표로 해야 한다.
- ㄹ.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구촌의 모든 민족과 화합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65. 광복 직후에 발표된 아래의 두 자료를 읽고 당시의 정국 상황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가)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써 자주 독립을 획득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이전과 이후, 피차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3천만의 총 역량을 발휘하여 신탁 관리제를 배격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자. -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
- (나) 모스크바 3상 회담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번 회담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 (중략) ... 이러한 국제적 결정은 금일 조선을 위하여 가장 정당한 것이다. 문제의 5년 기한은 그 책임이 3상 회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일본 지배의 해독 및 민족적 분열에 있으므로 우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

- ①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사상적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 ② (가)의 입장은 신탁 통치를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무시한 처사로 보고 있다.
- ③ (나)의 입장은 우리 민족의 노력으로 신탁 통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④ 신탁 통치 문제는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활동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 ⑤ 당시의 국민들은 통일 국가 건설을 염원하고 있었지만, 방법론에는 커다란 시각 차가 있었다.

【언어영역 -홀수형-】

(9~10)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개요 (가)를 작성하였다가 (나)로 고쳤다. 두 개요를 비교해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서론 : 평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본론
1. 평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가. 소극적 관점
- 외적(外敵)으로부터 지켜야 할 평화
나. 적극적 관점
- 함께 이룩해 가야 할 평화
2.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가. 이해 관계의 합리적 조정
나. 다양성 존중과 상호 이해
결론 : 평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

서론 : 위기에 빠진 세계 평화
- 최근의 국제적 분쟁 상황
본론
1. 국제 분쟁의 원인
가. 정치·경제적 갈등
나. 배타적 민족주의
다. 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2.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가. 기본 관점
- 다양성 존중과 개방적 태도
나. 평화 정착의 방안
-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결론 : 현 상황에서의 핵심 과제

9. 개요를 (가)에서 (나)로 고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의 현실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 ②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 ③ 중심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 ④ 내용 전개에서의 논리적인 비약을 해소하기 위해
- ⑤ 문제를 일반화하여 원론부터 다시 검토하기 위해

10. 고쳐 쓴 개요 (나)의 각 부분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론 ▶ 모든 국제적 분쟁에는 무력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①
패권주의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본론 ▶ 국제적으로 분쟁은 서로 충돌하는 이해 관계를 합리.....②
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과 종교, 이념 등의③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세계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조를 통해.....④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결론 ▶ 현재의 갈등이 더 크고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하기.....⑤
전에 이해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55. <보기>는 (가)에 해당하는 원작 소설 부분이다. 이 장면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보기>

"가자!"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골목에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철호는 다시 발을 옮겨 놓았다.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그건 다리가 저려서만이 아니었다.

"가자!" 철호가 그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그만치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가자는 것이었다.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철호의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었다.

삼팔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난 모르겠다. 암만해도 난 모르겠다. 삼팔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꼭 당도록 담을 싣았던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을 놓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주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 이범선, 오발탄 -

- ① 이 장면은 영상으로 처리하기가 복잡하므로 내용을 효과적으로 압축하도록 한다.
- ② 철호의 심정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상적인 독백을 하나 집어넣도록 한다.
- ③ 대사 이외의 서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레이션 기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 ④ 분당과 관련된 문제는 작품의 주제에 대한 해석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표현화하지 않도록 한다.
- ⑤ 어머니의 "가자!" 소리와 철호의 말을 한데 겹치게 해서 대사의 동시적 표현이 가능한 영화의 장점을 살리도록 한다.

또한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도 다소 부족하나 마 현재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이산가족이나 통일국가의 미래상등의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고, 사회과목에도 북한관련부분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통일과 관련하여 다루는 내용의 깊이나 폭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음은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아직 남북관계

가 충분히 안정적인 관계로까지는 진전되지 못함으로 인해 공교육인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각종 통일교육기회를 범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도 학교교과과정에서의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2. 통일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교교육현장에서 교과내용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면의 보강을 위해 최근 일부나마 통일교육부교재가 생산·보급되고 있음은 다행이라 하겠다.

검인증도서의 경우 현재 시·도 교육청단위의 채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탄력성도 부여되어 있어 향후 통일교육교재의 보다 많은 개발이 기대된다.

통일교육자료의 경우 최근에는 사이버자료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공유가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센터(uniedu.go.kr)나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와 각종 언론사의 사이트에는 현재 많은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탑재되고 있어 교사의 관심에 따라서는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북한자료를 충분한 설명없이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향은 이러한 교재의 제작이나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3. 학교교육현장에서의 합의 도출 노력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및 분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학교내 교장과 교사 등 일선현장 교육자간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통일교육의 방향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6.25 기념노래를 방송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내 갈등이 있었던 일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표현하는 학생의 그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김대중 대통령이 뒤에서 미는 형태의 그림을 교실 뒤에 전시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겼던 일 등 매우

구체적인 갈등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북한노래 ‘반갑습니다’를 교실에서 교사의 지도와 해설 하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확성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은 우리 사회내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보다 기본적으로는 첫째, 어떠한 교육목적을 지녔냐는 것과 둘째, 사용된 교육자료가 일정한 교육현장을 벗어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감안한 절제된 접근이 아직은 필요하다.

4. 학생들의 통일후계세대 의식 함양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학생들의 통일무관심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물질중심 사고와 개인주의적 경향,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미흡, 학교통일교육과정상의 통일단원의 비중 미흡 등 다양한 논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개선과 학교통일교육과정상의 통일단원 비중 강화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여기서는 통일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기피 원인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통일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첫째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둘째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통일무관심을 나타내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독일통일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북한의 조기붕괴론과 독일의 통일비용과 같은 거대한 통일비용의 우려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

학생들이 통일무관심을 조장하게 된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은 ‘지금 당장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이며, 이러한 질문은 현재 남북관계를 일정한 평화공존과정을 거쳐 서로가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연합 등을 거쳐 통

일국가로 나아간다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이러한 통일방안에 바탕한 현재의 통일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우선 청소년들이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의 문제를 보면 현재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이 2002년 3월 말 현재 1970명인데 우리 남한인구 대비로 보면 2만명당 1명이 안되는 정도로서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기회도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금강산 관광을 가거나 북한예술단이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또한 이러한 평화공존과정이 20-30년은 경과되면서 점차 남북간 접촉면이 확대되고 그 속에서 함께 살기에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사정이 열악해서 같이 사는 경우에 불편할 것이라는 고려도 있을 것이나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상호 융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별 소득격차 범위로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에 본격적인 통일논의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과도한 우려라 하겠다.

학생들이 우려하는 두 번째 원인인 경제적 부담문제도 주로 북한경제회복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려인 바, 이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우리의 세금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차입, 그리고 국제사회의 투자유치라는 3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세금의 경우는 현재 조세부담율이 2002년의 경우 21.8%로서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25%를 넘어가는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듯이 세금을 늘여서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은 고통도 많이 따르고 한계도 있다 할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인 국제사회로부터의 차입은 북한이 담보력과 신용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의 신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현재의 우리 외채상황으로 보아서 결코 쉽게 채택하기 힘들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우리 경제가 과거 60-70년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경제성장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막대한 국제사회의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다.

즉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대처할 일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있는 금융전문가, 경영전문가, 최고 기술보유자 등이 되는 것으로 이는 대만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여 막대한 투자이익을 실현하고 중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예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북한이 붕괴되어 우리와 함께 사는 경우에 예상되는 우려에 바탕한 걱정을 접고,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일류 국제인이 되는 것이 곧 통일에 기여하는 길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제4차~제6차 워크숍>

차 우 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I.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
- II.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징
- III.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 IV.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 V. 학교통일교육의 지도방법
- VI.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I.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

1. 통일교육의 정의

(1)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

※ 통일 = 법적·제도적 통일 + 사실상의 통일

(2) 통일교육은 암기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이해에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 배양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1999년 6월 서해에서는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도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운행되었던 사실이나 2001년 6월 북한민간선박의 영해침범사건 등에 대해서 그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을 놓고 어떻게 대처한 것이 바람직하였겠는가 등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해교육 내지는 토론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2. 통일교육의 제 쟁점

최근 학교교육현장에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큰 분수령으로 하여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과거와는 다른 통일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둘째, 민족자결이라고 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 사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넷째, 남북이 화해 협력하려는 마당에 땅굴전학 등 안보교육을 계속해야 하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통일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 통일교육을 대신하려는 교육노력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곱째,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등

3. 통일교육의 제 쟁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자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나 검증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다 소간의 인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 교사들의 학생들의 통일의지 함양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다양하고도 자율적인 수업구성과 진행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교육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통일문제 및 북한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가 시급히 형성되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분명히 남침한 6.25전쟁을 민족내부의 다툼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수업내용을 구성한다거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와 미국만이 과거의 자세를 반성하고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논리 전개는 우리 사회 내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하겠다.

(3) 현재의 북한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습은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은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4) 남북분단사 반세기를 돌아보면 6.25전쟁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초기의 강력한 노력동원체제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우리보다 빨리 복구하면서 70년대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6.25의 아픈 경험을 가진 그 당시의 국민정서로서는 안보교육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70-80년대의 국력각축시기를 넘어 우리 체제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안보교육만의 또는 안보교육중심의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체 교육과 화해협력교육 등에 통일교육의 중심 위치를 내주게 되었다.

(5) 안보교육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남북 간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6) Peace Keeping → Peace Making

금강산 관광의 실현으로 북한의 최전방 잠수함기지가 후방으로 이동한 것이나, 앞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서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이것이 바로 적극적 안보의식의 모습이자 안보와 화해협력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7)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엄존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확고한 방어력으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낮추고 휴전선에서 상호비방을 중지하는 등 적으로서의 모습을 줄여나가는 한편, 금강산을 군사적 요충지에서 화해협력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는 것과 같이 함께 사는 동포로서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입체적 동태적인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이다.

(8)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땅굴전학을 통한 안보교육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이러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른 교육만 하려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땅굴현장 견학교육도 이 교육을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은 아직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한편, 이에 머물지 말고 남북이 이러한 소모적 긴장조성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서로 좋게 화해 협력하는 것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한민족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의미를 도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이 과거 2차 대전 때의 유대인 학살현장을 보존하고 지금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9)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적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만을 뜻하는 '폐쇄적 자주'와 우리 민족이 주인이되 관계국들의 이익도 균형 되게 고려하는 '열린 자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외세 배격적인 구호를 우선하는 일부의 현상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10) 우리가 통일이라는 민족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틀을 잘 마련해서 주변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하며,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일본 역사교과서, 6.25 양민피해)들은 사안별로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종국적으로는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평화의 조정자', '지역번영의 주창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II.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징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 중등 도덕과 및 사회과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통일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표-1> 및 <표-2>에서와 같다.

<표-1> 도덕과의 학년별 통일 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

학교급 /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초등학교 3학년	0 분단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 남북 분단의 현실과 그 원인 - 이산 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 민족의 동질성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초등학교 4학년	0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 국가안보의 의미와 중요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안보의 여러 측면과 그에 따라 노력해야 할 점들 - 국가안보와 평화 통일, 국가 발전과의 관계 - 일상생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초등학교 5학년	0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 평화 통일의 의미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 평화 통일을 이룬 사례와 그 교훈 -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적절한 방법들 - 일상 생활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이를 실천하려는 다짐
초등학교 6학년	0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조국의 미래 모습 - 우리의 통일 방안의 당위성과 합리성 -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 평화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
중학교 2학년	0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 통일의 의미 - 통일의 당위성 - 다른 나라의 통일과정 -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고등학교 1학년	0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 민족 분단의 원인 - 민족 분단의 과정 - 민족 분단의 교훈
	0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 -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들
	0 민족 공동체의 변형과 통일 한국의 모습	-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 -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표-2> 사회과의 학년별 통일 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

학교급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초등학교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새로운 사회, 문화로 가는 길 0 민주 시민의 권리와 준법정신 0 통일과 민족의 앞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전쟁에 관한 사진 자료와 이야기를 통해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고, 민족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토의한다. - 남북한간의 대치 상황, 역사상의 외침 등의 사례를 통하여 국방 의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토의한다. - 우리나라의 분단 원인과 그 후의 남북 대결과정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 남북 회담이나 이산 가족 찾기 등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이해한다. -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힘써야 할 점에 대해 토의해 본다.
중학교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북부 지방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의 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지방의 위치 특성을 살펴보고, 국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북부 지방의 중심지 관서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화 이후 토지제도와 농업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최근 북한이 당면한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다. · 북한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고, 식량 부족의 원인을 알아본다. - 문호를 개방하는 관북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개방 정책을 파악하고,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협력에 대해 조사한다. ·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교역품과 교역량의 추이를 조사한다.
중학교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현대 세계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며, 러시아 혁명이 이후의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 제2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과정을 파악하고 백지도에 표시한다. - 현대 사회의 변화와 시민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권의 몰락 및 자본주의 체제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설명한다.

학교급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중학교 3학년	0 지구촌 사회와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분단의 배경과 분단 이후의 남북 관계, 그 리고 화합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민족 통일의 방안을 알아본다. · 국토 통일이 북방 진출, 대외 교역로 확보, 개발 잠재력의 신장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 다. · 북한 주민과 남한의 언어, 의식, 생활 풍습 가운 데 동질적인 것과 이질화되어 있는 것을 비교하 고,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해 본다.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민족은 줄기찬 독립 운동과 연합국의 승리 로 8·15광복을 맞이하였으나, 곧이어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국의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국토 가 분단되었음을 이해한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 에 대한 문제로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이 반탁과 찬탁으로 분열되면서 좌우 대립이 본 격화되었음을 파악한다. ·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격퇴시 켰으나, 결국에는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날까지 민족 분단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공산주의자들이 곧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 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김구와 김규식에 의해 전개된 남북협상의 노력 이 미소간의 냉전체제 하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 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 민주화 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 이후 북한은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 면서 유일 사상 체제를 확립하였음을 의미한다. · 정부는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 등 평화 통일 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고, 그 결과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 하게 된 것을 이해한다.
고등 학교 1학년	0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미래와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 정의·복지 사회의 확립과 민족 문화 발전 등 질적인 발전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파악한다.

우리나라 초, 중등학교에서의 통일관련 교육의 특징을 교육과정 시기별로 통일정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표-3>에서와 같다.

<표-3> 교육과정별 통일 정책의 특징

교육과정	고시 연도	통일 정책	내용 특징
1차	1955	북진 통일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2차	1963	선 건설 후 통일	
3차	1973	평화 통일	반공교육 지공교육
4차	1981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5차	198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안보 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6차	1992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민족 화해·협력 교육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 통일 대비 교육
7차	1997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대북화해협력정책)	

Ⅲ.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1.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를 열망할 줄 아는 인간

통일은 남북한 구성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열망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시작도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를 열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많은 조사 연구에 의하면, 통일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통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어느 덧 통일에 대한 무관심 내지 통일 기피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지나치면 통일보다는 오히려 분단의 고착화를 희망하게 될 수도 있다.

2. 통일에 따른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간

통일이라는 민족 최대의 당면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성원 개개인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그 불이익과 희생은 개개인에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나를 포함한 민족 공동체의 영원한 이익과 발전에 주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학습자들에게 공동체주의이론에 입각한 통일관을 꾸준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먼 과거 속에서만 같은 민족이고 겨레일 뿐 지금은 전혀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에게 '남북한은 오랫동안 같은 언어, 문화, 사상, 역사, 그리고 삶의 터전을 가진 한 민족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금은 남북한간의 차이와 간격을 논의하는데 급급할 뿐,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내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는 과거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한국인상을 설정하여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어른을 공경하거나 훈훈한 인정을 지니고 있는 것, 가족에 대한 애착, 성실한 근로 정신 등을 들 수 있다.

3. 남북한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남북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상호 이해와 존중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객관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 예로,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량 부족으로 기근이 심해 일부의 사람들이 아사(餓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북한에 대한 방송으로 내보낸다면, 이것은 북한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북한인들의 삶을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과 함께 북한 주민들 간의 정적(情的)인 인간 관계나 공동체 의식 등도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4.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

남북한간에는 상호 비방과 흠집내기 보다는 각기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덮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요구된다. 남북한간에는, 독일의 사례와는 달리, 이미 동족간 상잔(相殘)이라는 6·25전쟁의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 평화 통일은 요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민족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달래면서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국민 내부 간의 갈등(흔히 '남남갈등'이라고도 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탈북자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 학생들이 그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 수일간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무관심해지고 무시하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이는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낙후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집단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큰 사회 혼란과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을 키워내야 한다.

5. 통일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신념을 가진 인간

자기 주변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문제와 갈등에 대해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집단이나 국가 간의 갈등

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니버(Reinhold Niebuhr)의 말처럼, 개인은 도덕적이라도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하나의 법과 제도로써 통일된 국가 체제를 실현하게 된다면, 상이한 문화와 이념 및 가치관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문제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추어 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¹⁾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이해하는 인간 (열린 민족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한 통일한국의 미래 설계 필요)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 노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강대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통일된 국가가 그들의 국가 이익에 해(害)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 각자가 통일 한국을 주도해 나갈 주체로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내고, 지금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한 예로, 모의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자신이 남한의 대표라고 했을 때, 북한의 정상과 주변 강대국들의 정상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시연해 보게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2000년부터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민주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와의 협력하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번역하여 통일교육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에서도 갈등 해결과 평화 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7. 냉전적 사고 방식['red complex'와 'blue complex']을 극복하고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인간

남북한간에는 6.25전쟁을 겪은 이래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주민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red complex'와 'blue complex'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맹종적 수용 태도를 취하는 반면, 상대방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고 감정적인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 그런데 이러한 냉전적 사고 방식 및 이데올로기적 태도를 가지고는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는 삶이 아닌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활용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IV.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1. 통합적 접근

학습자의 정서, 인지, 행동(실천)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지도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감정적으로 학습자의 마음에만 호소해서는 곤란하며, 그들의 머리와 손과 발을 함께 흔들 수 있어야 의미 있는 학습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²⁾.

2. 전체론적 접근

통일(統一)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의 독자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2) 학습자가 활동이나 실천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 때 피상적 이론에서 벗어나 그 이론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이를 실제 세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거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획일 내지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전체성 속에서의 유기적인 통합 내지는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흡수된 쪽에서는 열등감을, 흡수한 쪽에서는 지나친 우월감을 지니게 되어 결국 통일은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게 된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가 필요)

3. 조화론적 접근

통일의 당위성을 말할 때, 의무론적 접근과 목적론적 접근이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적 성향이 강하므로 당위론적인 주장만으로는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당위론적 주장과 더불어 분단비용이나 통일효과 등의 구체적인 공리주의적인 접근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4. 균형적 접근

반공 교육기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기술은 늘 이념적 세계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을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도 균형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 때문에 우리의 통일교육은 다소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통일을 위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실들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적극적 접근

“북한의 변화되는 만큼만 우리도 변화한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6. 다중적 접근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지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7. 생활관련 접근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요즈음의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을 시켜야 한다.

8.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

우리가 의도하는 균형 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교육의 관점이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단순한 정치교육만이 아니라 인간주의 교육, 민주시민 교육, 공동체 교육, 평화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이문화) 이해교육, 배려윤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좀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9. 과정적 접근(process approach)

통일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과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은 이분법적 개념이 아닌 '몇 % 달성되었다'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며, 정치 체제 및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 역사적 접근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통일의 주체로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통일교육에서 과정적 접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남북한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요소들을 작성하고, 각 요소들에 대한 수준 구분과 함께 점수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통일 지수(U.Q.)'라고 한다면, 통일 지수를 일정 부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하고, 그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지가 분

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통일에 대한 전망은 단지 점성술이 아닌 과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해 나갈 수 있고, 통일의 비용도 최소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 자율적 접근

학교 통일교육은 교육 주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내지 자율성 보장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북한이나 공산주의를 찬양하고자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 및 통일교육에 관련해 그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과거 안보 및 반공을 중시하던 시절에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온 북한이나 공산주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적인 척도만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통제했고 지나친 정치적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육 주체들이 북한 이해 및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하기를 기피하고 무관심해지기까지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한 예로, 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통일의지를 키워주기 위해 교사가 미술시간에 학생들에게 통일포스터를 그리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통일 포스터를 그렸고, 그 중에 잘된 몇 작품들을 선정해 학급 뒤의 게시판에 한 나절 전시해 두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 그림 중에는 한반도 모양의 그림 속에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학교 순시중에 그 그림을 발견한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담당 교사에게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였고, 결국 그 그림은 잠시 후에 게시판에서 떼어내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교사는 통일교육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통일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면 앵무새처럼 핵심 내용을 강의식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의 자율성 보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 그림 속에 인공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red complex], 그 그림이 어떤 의도로 그려졌는가를 알아보고 그 의미

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럴 경우 그런 활동은 오히려 학교 통일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11. 연계적 접근

학생들은 학교 이외에 가정, 언론 매체, 사회 기관 등 다양한 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에서보다도 언론 매체에 의해 그들의 대북관이나 통일관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TV를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약 90% 정도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가치와 태도 형성에 있어서는 부모의 영향을 상당한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은 다른 매체,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속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쟁점 및 사례 중심 접근

학교 통일교육도 사회 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원론적 접근 못지 않게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남북 교류 및 협력 과정에서 나타났던 긍정적 및 부정적 사례라든지, 일상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중심의 접근은 통일 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아울러 기존의 경험 사례들에 대한 범례 학습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례들을 예측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V. 학교통일교육의 지도방법

구 분	통일교육지도방법	
○ 집단토의 방법	- 최적방안 찾기(PMR) - 브레인스토밍	- 유비토의 - 마인드 맵
○ 집단탐구 활동	- 직소우	- 집단 탐구조사 발표
○ 발표하기	- 확인하기	- 이야기하기
○ 자료를 통한 통일/북한이해 하기	- 신문활용하기(NIE) - 광고나 만화 활용하기 - 디스코그래피	- 북한 문학작품 활용하기 - 북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상문 쓰기
○ 인터넷 활용 방법	- 전자우편 활용하기 - 전자게시판 활용하기	- 정보사냥대회
○ 게임을 통한 통일교육	- 북한 낱말 기억하기 - 통일주제 4행시 만들기 - 백지도 게임	- 십자말(퍼즐) 풀이 - 판놀이 - OX 퀴즈
○ 체험학습	- 남북한 학생 교류 (스포츠, 서신 등)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하기 - 북한 생활 체험하기 - 현장 견학하기	* 간접체험학습 · 시뮬레이션 · 역할놀이 · 문화이해지

VI.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의 마련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절실한 과제이다.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정리하는 일은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정부가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흡수통합을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비추어져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육 문제는 그 동안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어서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려 정치적으로 곤혹을 치르게 되니 이 문제를 피하고 보자는 교육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통일교육은 연령, 직업,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차별화된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문 분야별로 내지 교과별로 통일교육을 어떻게 역할 분담하여 실시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교과간, 학년간 내용 중복이 심하고,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 범교과를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마련

통일교육은 과거에 도덕과와 통합 사회과를 중심으로 통해 정치 이데올로기적 통일교육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교육이 정치 이데올로기적 접근 위주에서 탈피해 사회 각 분야에서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과목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즉, 통일교육은 이제 일부 교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교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 내용이나 방법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일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이 양성되어야 하는데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통일교육 관련 강좌들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다.

3. 재량활동을 이용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마련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교과를 초월하여 통일만을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재량활동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통일교육이 특정 가치를 학생들에게 맹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여러 통일 문제를 스스로 혹은 집단 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탐색할 줄 아는 학생을 양성하는 자율적인 교육이라고 할 때, 특히 통일교육을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럴 때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추종자로서만이 아닌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4. 통일교육 연구활동에 대한 적극적 예산 지원 (통일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임)

통일교육은 정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통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의 통일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통일교육 관련 단체 활동은 개인의 영리와는 관련이 적으며, 국가·민족애 및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사회 봉사 활동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인적 자원 확보나 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통일교육지원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여러 조치를 착실하게 모색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사이버를 활용한 통일교육 자료 센터의 특화 및 네트워크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이버 통일교육은 각종 언론사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올해에는 상당히 궤도에 올라오고 있

는 느낌이다.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신세대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들간에 상호 보완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하고, 각각의 사이버 통일교육이 다른 것과 차별화 되는 특화(特化)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기관들 간에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기관의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통일교육 컨설팅제 운영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특정 기관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이나 방법과 관련하여 조언을 요청할 경우, 그 기관을 통일교육 전문가(팀)이 방문하여 현재의 통일교육에 대해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컨설팅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자료들을 개발하였는데 그 질(質)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한 실정이다.

최근 수년간은 과거의 반공교육 자료 외에 화해와 협력을 유도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이 워낙 부족했었기 때문에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여 자료를 개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통일교육 자료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다고 보여진다.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질 높고 의미 있는 자료인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7. 상설적인 통일교육 협동 학교 계획(ASP) 운영

통일교육 연구학교 내지 시범학교 운영은 오래 전부터 교육인적부와 통일부,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 하에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교육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은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이루어져 왔고, 시기적으로도 1-2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연구 결과가 매우 전시적인 효과에 국한되며, 그 효과마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통일교육에 의욕적이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쌓아 가는 학교를 지역별로 10여 개씩 선정하여 통일을 위한 ASP(Associated School Project; 협동학습계획)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보다는 그 규모에 있어서 10배 이상으로 하여 늘리고, 예산 지원은 실제 통일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단가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1-2년 내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그런 활동을 지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우수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주변 학교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대학수학능력시험(약칭 대수능) 및 각종 모의고사에서의 출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대수능 및 각종 모의고사에 통일 문제가 출제되었는지의 여부가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현실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통일문제가 최소한 1문항 이상 대수능 시험에 출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의지와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 문항을 본인이 분석해 본 결과 통일교육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통일교육을 아무리 학교 현장에서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단지 메아리로 사라져 버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수능 및 각종 모의고사에 통일 문제가 1문항 이상 반드시 출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만 한다.

cosmos@kice.re.kr

Ⅲ. 토론 및 사례 발표문

1. 제1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02. 4. 26(금), 14:00~16:40
- 장소 :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 참석 : 505명
- 주최 : 통 일 부
- 주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토론 및 사례 발표문

1.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이미식, 덕천중학교 교사) (p.65)
2.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70)
3. 여전히 현장 교사의 손에는 쉽게 잡히지 않는
통일교육
(이미선, 구포중학교 교사) (p.75)
4. 통일문제 인식의 이중성 극복
(박해진,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p.81)
5.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안숙이, 양천초등학교 교사) (p.85)
6. 생활문화로 접근하는 통일교육 - 사례
(최미순, 사직초등학교 교사) (p.90)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이 미 식
덕천중학교 교사

해방 이후 최근까지의 북한에 대한 교육은 몇 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쳤지만 주로 반공교육 일변도였다. 민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은 탓에, 우리 국민의 대북관은 강한 불신감과 적대감으로 특징지어졌다. 한번 형성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폭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은 그 동안 경색되고 긴장됐던 남북 관계를 평화적이고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 전환과 새로운 대북관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린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 지난 55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결 상태를 청산하고 화해 협력과 평화 정착 및 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남북 정상은 서로 침략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의 7천만 동포에게 전쟁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평화적 통일에 대한 희망을 한껏 안겨 주었다. 남북한의 만남과 더불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은 학교의 통일교육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희망을 주기도 하였다.

희망을 키우는 학교의 통일교육이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의 통일교육은 그 대상이 통일의 주체들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그 이론적 배경이나 실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그런데 학교의 통일교육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논의들이 많았다. 그리고 학교의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인식을 공유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교의 통일교육이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창렬 담당관님은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논의를 통해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논거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이 통일문제 자체가 담고 있는 이중성 즉 북한에 대한 안보의식과 화해협력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일선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학교의 통일교육이 암기 교육이 아닌 ‘논리에 바탕 한 문제해결능력의 함양의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통일교육이 안보와 동포의식을 함께 공유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적의 모습을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에도 이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족의 문제와 더불어 국제관계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환경의 변화의 요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의 측면을 국제관계의 변화인 탈냉전과 국내적 요인인 남북간의 체제역량의 격차로 인해 북한의 자세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논의하고 있으면서 남한의 통일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정부의 통일방안 즉 포용정책과 화해협력의 정책의 타당성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3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의 범주로서 학교교육의 법적인 토대를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에 두고, 학교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과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 더불어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셋째, 4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을 크게 교사와 학생의 태도, 통일교육의 객관적인 자료의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학교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위의 논의의 대부분은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학교의 통일교

육이 지니고 있는 최대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들로 보여진다. 그런데 다음의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2장에서 제시된 통일문제의 이중성에 인식부분과 관련한 것이다.

① 북한을 적과 동포로 구분하는 이중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적에 대한 대립적 개념은 아군이나, 우리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과 동포로 규정하는 것이 어떤 관계로써 이중적 인식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동포로 인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인다.

②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동포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의 모습을 줄여가면서 동포로서의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북한을 동포로 이해하는 것은 북한을 화해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적에서 동포로의 인식의 근거로서 제시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통일교육”은 방법적 대안으로 너무나 미흡하다. 그리고 논리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북한을 동포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것이다.

③ 북한을 적과 동포로 인식하는데 있어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해결능력의 통일교육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을 논리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자료가 폐쇄적인 사회에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주로 2차적인 자료라면,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실과 사건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보편성, 검증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④ 본 논고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사실적 자료와 관련해서 교사들의 임의적인 자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교사들의 자율성을 어느 수준에서 보장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본 논고는 교사의 자율성의 근거로서, 교사의 교육목적과 사용된 교육자

료가 일정한 교육현장을 벗어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근거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둘째, 3장에서 논의된 통일교육의 범주와 관련된 것이다.

① 학교통일교육의 이념 부분에서 민족공동체의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족공동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영역의 구분이고 민족공동체의식의 내용에 대한 제시가 아니다.

더구나 민족공동체를 남북의 통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이념적 모델로써 제시한다면,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체계와 관련한 물음인데,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이다. 그런데 그 내용체계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제시된 내용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모습, 북한의 변화이해, 통일환경의 변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노력,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통일국가의 실현,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등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내용에 해당한다.

통일 이후의 대비교육은 통일을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③ 북한을 적과 동포로 이해하는 균형 있는 통일교육의 측면과 관련한 논의이다.

현재 제7차교육과정은 그 이전의 5차교육과정에서 “반공교육을 통일교육으로 개칭하고 통일환경변화에 따른 전환이 이루어져서 그 이전의 반공생활영역의 내용에 공산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우월성, 민주시민 정신의 고취 등의 내용”을 보강한 것과 제6차 교육과정에서 “반공교육을 국가·민족 생활에 포함시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통일의 방법은 구체적인 현실을 받아들여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무력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 논의”하도록 한 내용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이 그 이전의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④ 통일교육을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고 논의하면서, 교과서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치, 경제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 문화의 측면은 약화되어서 교과서의 내용이 정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의 통일교육이 분명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는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어서 정책홍보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정책홍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논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교육내용의 구성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⑤ 통일교육의 내용체계가 학생들의 삶과는 유리된 추상적인 사건의 나열이어서 통일교육이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7차교육과정은 6차교육과정과는 달리 통일을 문화적으로 접근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교사들의 지적이 많다.

셋째, 4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의 구체적인 실천방향과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과 관련한 논의이다.

① 학생들의 통일의식의 고취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을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그 진단의 범위가 좁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요소(개인주의, 정치적 무관심, 민족문제에 대한 무관심), 학교통일교육 자체의 문제(학생들의 삶과 지나치게 유리됨), 그리고 학교의 통일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통일단원의 구성이 맨 마지막 단원에 구성됨) 등의 문제에서 파악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② 학교의 통일교육 운영의 하나로 재량활동시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현실을 감안할 때 재량활동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일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끝으로 학교의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 토론의 장을 열어 준 것은 학교의 통일교육의 희망적인 변화라고 실감하면서 지속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먼저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과 한반도 장래를 짚어질 차세대 일꾼들을 양육하시는 선생님들과의 「제1차 통일교육발전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육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북한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도의 관점에서 토론하여,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주최측의 배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렬 정책2담당관님의 논문은 그 동안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실무 역할을 하신 분답게, 수많은 고뇌와 연구 가운데 학교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정리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통일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크게 7가지로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기술한 것은 향후 통일교육 내용을 심화·발전시키고 우리 민족이 21세기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의의 깊은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자는 인상깊었던 내용들과 몇 가지 질문들을 제기한 후 통일교육에 대한 평소 생각을 약술하는 순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1.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 토론자에게 공감되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일문제의 이중성(안보와 화해협력, 민족과 국제문제)과 통일환경의 변화(탈냉전질서의 도래, 남북국력격차 확대, 북한변화의 불가피성), 그리고 화해협력정책의 현실성을 학교통일교육의 전제로 제시한 것은 탁견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통일문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광해군과 인조의 대외정책을 비교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설명한 것은 우리 역사의 소중함과 더불어 민족주체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사례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이창렬 담당관님의 주체적 문제의식은 고려 왕건의 통일사례를 통해 화해협력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데도 잘 나타납니다.

동시에 외세배격론의 현실적 허구성과 민족주체적 자세 정립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방향성(p.14)을 잘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 그리고 건전한 안보관을 통일교육의 기본적 이념으로 제시한 것은 향후 우리가 합의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하여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루는 것이 필요한 데, 그 중요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통일후세대 양성과 관련,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원인을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점진적·단계적 과정을 통한 통일성취와 통일한국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 자아실현의 장이 될 것임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설득력이 높은 통일교육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다소 달리 생각하는 부분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규정은 '적과 동포'(p.12)라는 표현보다 '안보위협세력'이자 '평화통일 동반자(또는 형제)'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요?

둘째,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으며'(p.12)는 귀절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건부 대북정책으로 이해케 할 수 있는데, 이 보다는 '북한은 무력도발과 무력통일정책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또한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병렬형 대북정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p.21)으로 물론 볼 수 있으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외연이 초기 '교회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the church)'와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the state: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국가에의 자유(freedom to the state:참정권적 기본권)'와 '국가에 의한 자유(freedom by the state:생활권적 기본권)'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 또한 초기 절차적 민주주의(by)를 강조하던 데에서 내용적 민주주의(for)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함으로써,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18, 19세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단순히 합한 것을 넘어선 이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3.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평소 토론자가 생각하고 있던 바, 7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황과 구조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한 균형성입니다.

상황의 이중성이란 통일문제에 탈냉전 조류와 냉전적 관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조의 이중성이란 통일문제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며, 현상유지의 문제이자 현상타파의 문제임을 뜻하고, 동시에 북한은 우리의 안보위협세력이자 평화통일 동반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황과 구조의 이중성이라는 내재적 특징을 갖고 있는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균형적 인식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관용과 조화에 기초한 공존지향성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통일준비과제는 평화 공존 및 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화해를 토대로 공존의 논리와 실천적 윤리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현실적 대결 상황을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제기되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잘 구분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합리적 안보관 확립 및 주변4국과 협력관계 구축에 근거한 평화지향성입니다.

우리는 통일과정에서 국가안보와 민족안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분단현실에 기인한 국가안보의 엄중성과 7천5백만 한민족의 명운이 달린 민족안보에 대한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인 바, 남북 평화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주변 4국과의 평화·협력관계를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정세변화를 반영한 현실성입니다.

21세기 세계사적인 변화와 주변4국의 정권교체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변화 속도와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 방향, 내용 그리고 교수방식 등에서 항상 적실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의 물꼬를 튼 남북관계가 2001

년 1월 미국 부시행정부의 등장이후 긴장국면¹⁾으로 전락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대응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반세기에 걸친 적대적 대결구조와 주변국 영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평화정착 단계까지 진입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혹은 지지 여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바, 보수와 진보적 관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남북간의 화해 협력의 관계구축 및 통일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주도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현재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 사회정치적 성숙도와 지적 능력을 놓고 볼 때, 한반도 문제를 발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가진 쪽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국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지키기, 적화통일 대비론에 기초한 소극적이고 방어적 안보를 중시하는 안보교육을 발전시켜 21세기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책임과 주도하에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며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적극적이고 의지와 방법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통일을 추구하는 창의지향성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획일화가 아니라 공존화이며, 따라서 일원적 통일이 아니라 다원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²⁾ 따라서 객관적·초당적 차원에서 민족이익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철학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일교육은 통일의 정신적 자산으로, 교육 목표는 분단극복 의지의 함양과 통일지향적 인간형 창출에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목표는 한민족의 미래지향적·비전 함축적 통일관 제시하는 데 있는 바, 규범적·당위론적

1) 국제차원에서는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개발하려는 미국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 그리고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T)을 유지 강화시키려는 러시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결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3국의 불신이 대두되었고, 남북차원에서는 에너지난 해결문제 등 북한의 대남 불만이 표출되었으며, 국내차원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남남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 무력에 의한 통일은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한쪽 체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은 흡수당한 국민적 열등감과 흡수통일을 이룬 우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체제와 삶의 유형 건설을 우리가 진정 바란다면, 이같은 통일방식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합의통일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방식 모델은 독일식의 흡수통일이나, 베트남식의 무력통일이 아닌, 한국형 합의통일 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관의 지양과 창의적 통일관 지향을 통해, 민족사의 진운을 가늠하는 새로운 통일관 및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은 「모범한국」(Model Korea), 「평화한국」(Peace Korea), 「봉사한국」(Service Korea)으로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통일한국은 정치적으로 지나친 국가중심주의보다 지역공동체주의에 기초한 제도, 경제적으로 자본에 근거한 투기적 재테크보다 건전한 윤리에 기초한 창의력 발현에 기초한 제도, 사회적 부정부패와 소비에 근거한 문화보다 정직과 절제·나눔에 근거한 문화형성, 외교·안보적으로 과도한 군비경쟁에 근거한 제국주의적 경향성을 탈피하여 적정안보력(공동안보)을 토대로 상호의존적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동북아 및 세계의 불안정 질서에 평화를 만들어 주는 중재자(peace-maker)역할과 제3세계와 구 사회주의진영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현장 교사의 손에는 쉽게 잡히지 않는 통일교육

이 미 선
구포중학교 교사

우리 시대의 화두는 통일이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분단국가가 어디냐고 아무에게나 물어보자. 아프리카의 토인도, 남미의 상인도 그리고 북극의 에스키모까지도 'KOREA'라며 한반도를 가리킬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날부터 이 시대 분단은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있다. 이 유일한 부끄러움의 분단국에서 난 통일을 이야기하는, 아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땅의 도덕교사이다.

우리는 50여년 간의 분단상황과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아픈 기억으로 말미암아 마음 한 구석에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의 동포이며 원래 한 식구였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다. 그런데 현재의 분단상황은 우리 나라 반만년 역사를 비교해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일 뿐이다.

서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현재의 국가형태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단상황이 마치 오래 전부터 고착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의 분단을 허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현재 감내하고 있는 불행한 분단현실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갖고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줄곧 통일을 이야기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에는 민족을 하나되게 해 달라는 소망이 들어 있었고, 큰 오빠는 재미교포 청년단을 인솔하여 백두산을 오르기도 했으며, 둘째 오빠는 산악회원들과 함께 2년간 주말마다 백두대간을 종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주 드문 경우란 걸 알았다. 대부분의 우리네 가정들은 먹고 사는 일, 집을 늘려가는 일, 승진하는 일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 통일은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 정치가들의

말 잔치, 무슨 날이 되면 언론의 주 메뉴로 등장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거대담론이 아닌가 하는 회의와 함께 난 고뇌하게 되었다.

첫 발령을 받은 84년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에는 교과서에 북한을 괴뢰 집단이라 표현하여 난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했다. 난 아이들에게 장발장을 이야기하며 그 신부님과 같은 관용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며, 예수를 이야기하며 원수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다가 문득 우리의 반쪽 북한에 대해선 비판을 하고 증오를 가르쳐야 하는 모순에 빠졌다.

그러나 92년 남북합의서 체결과 2000년 역사적인 6.15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시대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고, 우리의 학교 현장에도 반공교육이 통일 안보 교육으로, 이제 또 다시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과서 내용도 대폭 수정되게 되었다.

참으로 바람직한 변화이긴 하나 여전히 이 시대 이 땅의 도덕교사인 나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이건 내가 반공교육을 줄곧 받아온 세대라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적색 공포 때문이 아닐까 싶다.

분단이 주는 장애들을 살펴보자.

1. 북한에 대한 냉전적 대결의식
2. 레드 콤플렉스의 부정적 영향, 이데올로기 및 사고의 편협성
3. 의식, 무의식적인 전쟁 공포감
4.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무관심 - 분단상태에의 안주
5. 분단상황에 의한 국내정치적 왜곡 - 민주정치 발전의 장애요소
6. 국민통합의 저해와 국력의 소모 - 사회구성원들간의 가치관 대립 등으로 들 수 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세대들은 분단이 주는 장애 중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분단상태에의 안주를 갖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통일에 대하여 기피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요즈음 청소년들의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적인 생활태도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생활이나 이익과는 무관한 듯이 보이는 국가 민족적

인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요즘 청소년들의 당연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제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사회혼란에 대한 우려와 남한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생각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도 원인은 있다.

무관심한 원인 중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분단상황에 대하여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분단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한편 학교에서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서 학생들은 교육 내용이 재미가 없거나 수업 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하는 데에 원인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교육 내용이 재미없어서" 31.4%, "수업 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해서" 37.4%를 보인다.

그러나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학생에 대한 통일의식 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71.2%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의 조사 결과(한국교육개발원, 28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는 1999년의 결과(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는 59%가 동의하였는데 이번에는 71.2%로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통일의식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고 우호적인 인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싸워야 할 적'으로서 인식한 비율은 지난해 52.7%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16.5%로 감소한 반면에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서 인식한 비율은 31%에서 71.3%로 증가하였다.

북한의 일반 주민과 학생들에 대하여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서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88.6%에 달하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의 의식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일환경의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정치적 상황, 언론매체의 북한 보도

성향, 사회적 여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주된 관심은 무관심한 10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아니 너무도 당연하게 그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매체는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의 현실과 통일 상황을 정확히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통일과 북한에 관한 정보를 TV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학생들이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하는 데 언론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사회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사회적 현실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북한 관련 정보의 개방과 통일관련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나 사회 각 분야의 국민적인 토론의 장소에서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공개적이며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북한관과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통일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보다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조건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금수강산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문을 읽고 많은 부분 공감하고 또 새롭게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무관심한 10대들과 통일을 이야기해야 하는 도덕교사인 나에게 통일교육의 방향성이 여전히 쉽게 손에 잡히질 않는다. 난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 신나는 통일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바라는 자료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나 자료를 받고 싶다.

이 주제문에서 내가 갖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화해 시대의 안보의식에 대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동반자이자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

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북한을 우리의 적이자 동지로 해석하는 것은 내겐 아무래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문제로 남는다. 북을 여전히 경계해야 할 존재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실체를 종합적으로 바르게 본다는 견해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런 자세로 가면 통일은 아득한 게 아닐까? 진정한 관용은 내 생각과 다른 상대를 의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그건 수수방관이나 무시하고는 다르며 흡수나 설득하고도 다르다. 그야말로 상대를 의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의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관용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둘째, 통일교육의 목표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 역시 북에서 보자면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론으로 비칠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셋째,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통합과정, 그리고 통일 후의 제반 사회모습들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적어도 도덕교사들에겐 그려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시대의 통일논의에 일선 현장의 교사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고 기회조차 없으며 여전히 교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르며 홍보하는 위치로 남는다는 씁쓸함이 든다.

그 예로 통일에 대한 열의로 교사단체에서 만든 책자가 있다고 하는데-아직 보지를 못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그 책이나 자료는 임의 자료이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것 역시 자신 없는 모습이며 일선의 교사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여기저기서 뜨겁게 이루어지고, 다소 불안하더라도 갈등과 합의과정을 지켜보고 수용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 겨울 부산 도덕교과연구회 팀원들은 베트남을 다녀왔다. 베트남에서는 10여년에 걸쳐 집진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시간은 걸렸지만 충돌이나 무리가 없었다고 한다.

난 10년도 훨씬 넘게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교직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갈등의 과정, 혼란의 과정, 방향의 과정들을 너

그렇게 지켜보는 힘이나 여유가 참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다. 우리의 반항적이고 피끓는 10대의 아이들의 방향도 사랑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봐 주지 못하는데서 문제를 더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문제아가 되게 하는 건 아닌가.

통일은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루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업이다.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로 우리 교사들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고 싶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통일문제 인식의 이중성 극복

박 해 진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통일 문제와 관련된 현상들에는 이중성이 있으며, 또 통일과 관련된 논의에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는 예가 많다.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안보에 대한 강조가 통일을 반대하는 수구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민족의 통합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단체나 개인의 특정 행위가 이적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6·15 남북 정상 회담 이후 급속히 전개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의는 이른바 남남 갈등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리고 부시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속적인 남북 협상 및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통일 관련 요인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혼동 속에 빠져든다.

통일 문제와 관련한 수업 현장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

1) 북한은 우리에게 적과 동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2)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보안법을 운용하고 있는 한편, 제4조 통일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남북간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하고 있다.

3)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안보의 필요성'과 '화해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두 차원을 균형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북한을 적의 모습에서 동포의 모습으

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4) 그러나 북한은 제한적인 남북 이산 가족 상봉, 경의선 복구 사업의 지연,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남북 협력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 북한 주민의 생활상 및 인권 문제 등을 접할 때는 우리는 동포애로 다가서지만, 금강산 개발 및 경협 사업으로 투입된 많은 비용들이 북한의 군사력 유지에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북한을 동포보다는 적으로, 안보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 민족 통일의 문제와 국제 관계

1) 남북 통일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남북한 당사자이다.

2) 7·4 남북 공동 선언에서도 '민족 자주 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있다.

3) 세계는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지고 무한 경쟁이 지속되는 속에서 NAFTA, EU, ASEAN 등 다양한 지역 블록이 형성되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만은 아직 구체적 움직임이 없으며, 아직 이 지역이 역사적·지정학적·이념적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임을 반증하고 있다.

4)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면에서는 상호 이익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5) 그러나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국의 한반도 정책은 서로 다르다. 각 국은 이것을 남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국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지만 주변 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와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3. 남남 갈등의 심화

1) 6·15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과 북은 불화, 반목, 대결로 얼룩져왔던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고 화해를 통한 평화와 공영을 이룩하기 위한 거

대한 민족사적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그 이후 통일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정책과 이를 둘러싼 여러 이해 당사자 간에는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어, 이른바 ‘남남 갈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다.

2)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남한 내부의 갈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배경은 남한 내부에 분단 희생자(피해자)들의 분노의 기억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냉전 의식,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 전술에 대한 위기 의식과 대북 불신감, 남한 내부의 통일된 국론 형성의 실패 등을 들 수 있다.

3) 남남 갈등 해소가 필수적인 이유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 위에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영역이며, 남남 갈등의 구조적 해결 없이는 통일을 위한 국민 통합 기능 확보가 어렵고, 남한 내부의 확고한 통일 국론 결집이 북한의 확실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이성적 토론의 수준을 넘어서 감정적 대립의 양상으로 발전한다면 남북 간의 분단을 해소하고 공존 공영을 통한 평화 체제 구축 작업이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이러한 남남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통일 논의를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공통 분모를 모색하고, 합리적·전향적 통일 국론을 형성하여, 국민 화합과 통합을 통한 통일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

5)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간의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4. 통일 교육 자료의 활용 문제

1) 통일 교육은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남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나아가 민족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역량 결집 및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 자료는 ‘논리 교육에 바탕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하고, 학습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통일에 관한 많은 자료들은 검증된 것과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교육인적자원부 학교81120-273(2002.02.22)와 학교81120-488(2002.03.25)에 근거하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된 공문에 의하면 “최근 편향된 북한관과 통일관에 의한 일부 교사들의 임의 통일 교육이 우려되는 바, 지

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에 배치되는 임의 통일 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임의 통일 자료란 검인정 교과서 및 공인된 지도서, 교육부, 통일부, 시·도교육청 등 정부 기관에서 개발·보급한 교재 이외의 자료”라고 정의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통일 교육의 방향’에 관한 요약문을 제시하였다.

4) 요약문에는 ‘통일 국가의 미래상’, ‘미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시각’, ‘6·25 전쟁 등 역사적 사실을 보는 시각’, ‘북한 실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자료들의 출처는 대부분 통일부의 공식 자료들과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다. 특히 수업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료 교사들의 수업 활용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선택하고 활용하는 자료가 검증된 것인가?’, ‘이 자료는 임의성 문제가 있지 않은가?’ 등의 물음들에 위축되어 교사 스스로 자료 활용에 소극성을 보인다면 바람직한 통일 논의와 수업의 효율성 향상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학교 통일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통일 환경 및 관련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 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통일교육지원법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통일 교육 담당자의 역할이다.

통일 교육 담당자들이 통일 문제 인식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 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며,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 및 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해석과 논쟁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통일 논의에 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여건이 가능해지면, 통일 교육 담당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안 속 이
부산양천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오늘날 국·내외적 사회변화로 인한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는 교육자체는 물론 통일교육에도 변화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이창렬 통일부 정책 담당관님의 열린 사고에 기초한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차원 높은 발제문에 경의를 표한다.

분단에 처한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성숙한 시민 사회가 아니면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나 편협한 주장은 그 사회의 응집력을 약화시킬 문제점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본고는 발제문의 순서에 따라 보충하고 소견을 밝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학교통일교육의 실제에서>

첫째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둘째 민족자결이라고 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 사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넷째 남북이 화해협력하려는 마당에 땅굴전학 등 안보교육을 계속해야 하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통일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 통일교육을 대신하려는 교육노력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곱째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등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있어야 학교통일교육에서 실제적인 접근이 가능하리라는 문제 제기에는 적극적인 동의를 보낸다.

가.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

○ 안보와 화해협력의 이중성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적과 동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 초등학교 현장에서 북한에 대한 규정을 영토의 불법점거로 인한 적으로 해석하며 침범하면 대응하여 응징한다는 차원과 동포적인 입장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동포들을 도우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교육할 때에 생기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이 서질 않는다.

따라서 적의 모습은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은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데 동감하는 바이다.

○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의 이중성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적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만을 뜻하는 '폐쇄적 자주'와 우리 민족이 주인이되 관계국들의 이익도 균형되게 고려하는 '열린 자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민족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역할분담의 틀을 잘 마련해서 주변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하며,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들은 사안별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중국적으로는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평화의 조정자, 지역번영의 주창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1999년 6월 국회의 여야의원 발의 입법으로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정의 및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자체가 정부차원의 홍보라는 지적을 씻어내는 일대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실시해야 할 통일교육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념별·계층별·세대별 다양한 시각을 국민합의 형성차원에서 정리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다.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과 관련하여서는 자유·인권·복지·성평등 등 다양한 가치들이 논의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일교육의 명칭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화해교육, 민족교육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삼고 있고 통일국가도 이러한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도 보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도 이러한 가치를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이는 형태로 되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통일교육이 바탕하고 있는 두 번째 가치로 드는 것이 민족공동체의식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선 초등학교에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많은 선생님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채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이야기하는 민족공동체의 개념은 한민족을 민족구성원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적으로 같이 존재한다하여도 갈등이 많으면 통합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도 유대감이 강하면 통합의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분단이후 상호 이질화의 길로 나아간 면이 많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최근에 와서는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보다 많이 실천하려는 자세가 곧 민족공동체의 함양이라 하겠다.

민족공동체를 기능적 복합체로서 본다면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공동체라는 하위체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과제를 훨씬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분단의 현실적인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하고 북한을 우리 동포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서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문화, 생활습관, 의식주 등과 관련된 남북한 생활문화의 탐구활동을 통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통일교육의 바탕이 되는 가치로는 안보관이다.

7,80년대의 국력각축시기를 넘어 우리 체제가 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안보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면서 민족공동체 교육과 화해협력교육 등이 통일교육의 중심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보교육은 아직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남북간에는 분단상태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여전히 중요한 것이며 통일이후에도 한반도전체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중요한 것은 안보교육이 추구하는 내용에 있어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 어떠한 긴장조성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하는 물리적 억지력(소극적 안보 : Peace Keeping)의 굳건한 유지와 함께 넘어 이제는 북한의 적대감자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키는 노력 즉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이 평화로운 삶을 정착시켜 안보위협을 없애 나가는 근본적 억지력(적극적 안보 : Peace Making)의 발휘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안보의식이라 하겠다.

3. 맺으며

통일은 절박한 우리 민족의 과제이고, 이제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가시적 전망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다. 이제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바람직한 학교 통일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라고 생각한다

다. 정부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 학생들에게 통일의 열망을 심어주는 통일 교육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 지고, 통일이 힘들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민족의 분단에 의해 야기된 민족적인 비극과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고통에 대하여 전 교과적인 차원에서 학교생활의 전반에 걸쳐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상반된 사상, 이념, 체제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통일 교육에서 벗어나, 민족의 동질성에 기반한 남북한이 함께 지니고 있는 전통을 부각시키는 교육, 남북한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는 교육 등이 통일 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된 이후의 민족의 발전된 미래상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민족 장래에 대한 희망찬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남북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통일 교육

통일 교육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닌 민족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동반자임을 인식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구체적인 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보기가 어려웠고, 남한의 우월성만을 부각시키는 제한적인 자료에 의해 왜곡된 내용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북한에 대한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북한의 의식주 생활, 사회 문화 정책, 의료, 교육, 종교, 관혼 상제 및 언어 등을 바르게 알게 함으로써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핏줄이라는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활문화로 접근하는 통일교육

최 미 순
사직초등학교 교사

I.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육성하여 통일 후 세계 중심 국가의 주역이 될 민주적 시민을 육성하는데 통일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실제적인 성격은 누적되어 온 남북한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화합과 민족의 동진성 회복을 위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지도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통일 관련 교과를 모든 교과로 확대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를 각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어린이들이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정서적 태도와 의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은 가정생활, 의식주 생활, 가족 관계, 생활 관습 등 북한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많은 상황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활 문화를 소재로 하여 통일교육을 실천한다면 북한을 우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세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갖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시사한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주안점으로 하여 본교에서 실시한 남북생활문화중심의 통일교육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II. 생활문화중심의 통일교육 사례

1. 남북한 생활 문화 체험을 위한 준비

아이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교실, 복도, 계단, 화단에 학년 수준에 맞는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보고, 느끼며,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환경물을 구성함으로써 북한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이는 준비를 한다.

가. 교실 환경

통일소식코너, 북한생활 문화 탐구코너 및 통일 전망대를 상설하여 북한 생활문화 관련 내용 게시 및 작품 전시를 하도록 하며 날마다 변하는 새로운 통일 관련 뉴스 및 자료를 수시로 갱신하고, 학생들 서로간의 아이디어와 정보교환으로 만들어 가는 교실환경을 구성하여 통일 대비 능력 신장에 힘쓴다.

통일 교육 관련 교실 환경 구성 내용

게시 영역	구분	주 재	내 용
통일 소식 코너		북한은 지금	북한의 최근 소식
북한 생활 문화 탐구 코너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과 북한말 비교
통일 전망대 코너		통일을 염원하며	포스터, 편지쓰기, 만화등

나. 학교 환경

학교 전체, 복도 환경, 학교 방송, 게시판을 통해 통일 교육 관련 주제가 있는 내용으로 복도 및 화단 곳곳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북생활문화의 차이점과 같은 점을 체험해 보는 장을 열어준다.

2. 교과활동을 통한 남북한 생활문화 체험

아동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통일교육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남북한 생활문화 중심으로 선정된 6개의 대 주제 프로젝트 학습과 재량시간을 이용한 ICT활용 학습을 시도해 보았다.

가. 프로젝트 학습

생활문화 중심으로 접근하는 6개의 대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망 및 관련 단원, 교과를 알아보고 주제별 주요학습 활동과 지도방법을 세웠으며 그에 따른 연간 지도계획 및 학습지도에 적합한 교수·학습안을 구안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나 가치를 갖추게 되었고 동시에 탐구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통일 대비 능력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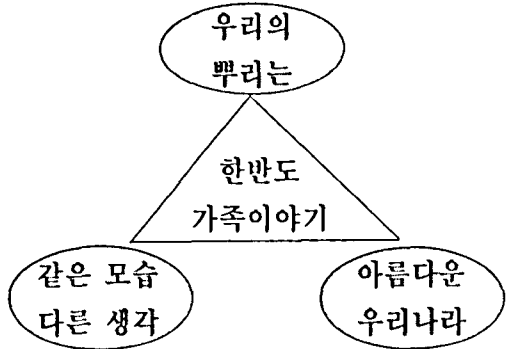
프로젝트 학습의 선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대주제 및 소주제 선정내용

순	대주제	소 주 제	생활문화영역	통일지도요소
1	한반도 가족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뿌리는 · 같은 모습 다른 생각 · 아름다운 우리 나라 · 한반도 가족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생활 · 자연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필요성
2	어제 그리고 오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 잘린 호랑이 ·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 정치와 경제 생활 · 세계에서 보는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생활 · 경제생활 · 자연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사회 이해 · 통일의 필요성
3	배움의 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 남북한 어린이의 하루 생활 · 무엇 무엇을 배울까 · 꿈을 가꾸는 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생활 ·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사회 이해
4	또 다른 생활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가정생활 ·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 · 의식주 생활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 · 기본생활 · 의식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사회 이해
5	삶의 활력소를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훌륭한 문화재의 숨결을 찾아서 · 달라진 말과 글 · 믿음은 차이는 어디까지 · 문화와 예술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생활 · 문화생활 · 언어생활 · 예술생활 · 종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사회 이해
6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필요성 ·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 화합과 이해하는 마음 · 함께 살아가는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생활 · 국가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필요성 · 화해, 협력, 이해의 중요성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주제망 구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건국 및 발전
단군의 유래 알아보기
북한의 동포와도 한 뿌리임을 인식



삼국의 성장과정 비교하기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음악과 의식과의 관계
북한에서 사용하는 의식 음악

중심내용 생각하며 글 읽기
묘사와 설명의 방법으로 글 쓰기
금강산 제재곡 익히기

교과별 통일 교육 주요 학습 활동 내용

주제	소 주제	차시	주요학습활동	관련 교과	지도방법 및 자료
한반 도 가족 이야 기	우리 의 뿌리 는	1-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 시대를 알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 도출된 방법으로 선사 시대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 · 단군 이야기로 고조선의 건국 과정 및 의의 알기 · 고조선의 발전 모습과 사회상 유추하기 · 북한의 동포와도 한 뿌리임을 인식 	사회 특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시대의 유물그림 · 단군 이야기 자료
	같은 모습 다른 생각	4-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성장 과정을 비교하기 · 가야 문화의 특징 · 고구려 문화의 특징 · 백제 문화의 특징 · 신라 문화의 특징 	사회 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시대별 영토가 나타난 지도 · 삼국과 가야의 문물 관한 그림

6학년 통일교육 관련교과 연간 지도 계획 (예시)

주제	관련 단원	지도 시기	학 습 활 동 내 용	관련 교과	시 량	비 고
한반 도 가족 이야 기	1. 우리 민족과 국가의 성립	3월 3주	<p><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군이야기로 고조선의 건국 과정 및 의의 알기 · 고조선의 발전 모습과 사회상 유추하기 · 북한의 동포와도 한 뿌리임을 인식하기 	사회 특활	80	· 단군 이야기 자료
	5. 나라를 지키는 일	3월 5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국민 총생산에 대한 군사비 지출비교 · 북한이 군사력을 유지·증가하는 이유 · 전쟁 방지의 필요성 · 민족의 공존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방향 	재량	80	· 인터넷 활용 학습
어제 그리 고 오늘	둘째마당. 알아가는 기쁨 2. 자연과 더불어	4월 7주	<p><한라에서 백두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지와 백록담'을 여러 관점에서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 찾기 ·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묘사와 설명의 방법으로 글 쓰기 	국어	40	· '천지 와 백록 담'에 관한 책, 그림, 인 터넷 자 료 등

나. ICT 활용 수업에서의 가상생활문화체험 학습

재량활동 시간의 ICT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가상생활 문화 체험 학습을 실시하였다. 여러 가상생활문화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직접 탐구하여 알게 된 내용을 학습지에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남북한 생활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북한 생활 문화 가상 체험관 내용

학습관명	사이트	주 제	생활문화 요소
사이버 통일 교육 센터	통일 학교	북한의 관광지	자연생활문화
		북한의 명절	전통생활문화
		북한의 인민학교	학교생활문화
		북한의 직업	주민생활문화
	통일 교실	북한말 남한말 비교	언어생활문화
	가상 북한여행	양강도, 자강도, 함경도, 평안도, 등	자연생활문화
통일 게임	그림 맞추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여가생활문화	

(북한 가상체험 활동 학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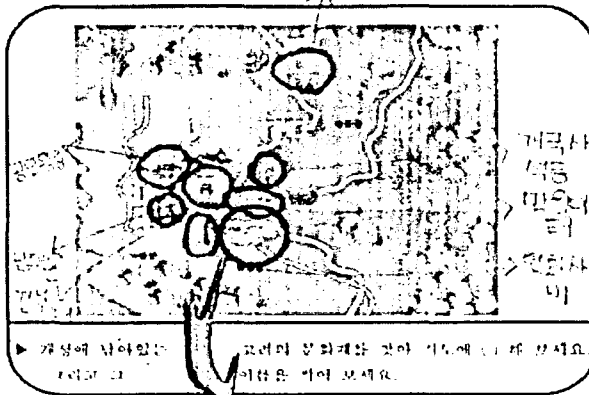
북한 가상 체험 활동 학습지

주제	북한의 문화재	영역	생활 영역
담구자	(4)학년 (5)반 이금(은서정)	관련사이트	www.unicedu.go.kr/풍인 학교/가상북한여행

★ 개성은 옛 고리의 모퉁이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문화 유적을 중심으로 여행을 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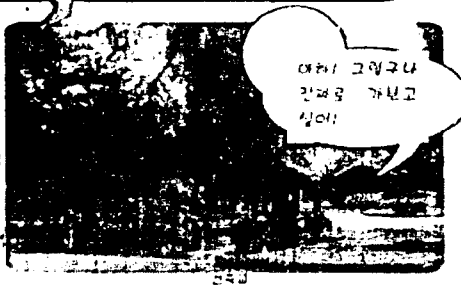
체험 예보기



더 알아보기

→ 건축물과 관련된 이야기들 읽어 보고 새롭게 알게된 사실을 적어 봅시다.

개성시 선조묘에 있는 고려시대 동서리 언덕에 묻혀 있음은 선조고
터고 한양은 고려 궁전 정음



이것이 개성서쪽의 고령궁 있었어

관음암을 보자 언덕은 고령궁이었어

느낌점 한마디

선조묘에 있는
묘에 있습니다.

선조묘는 정말로 아름다우며 조선시대의 문화와 고령의
모양과, 아름다운 건물 모양이 있습니다.

선조묘에 있는 선조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 다양한 활동으로 배우는 남북한 생활문화 체험

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남북한 생활문화체험

1) VCR 자료 활용

북한생활문화 관련 VCR 자료 및 TV 통일 관련 프로그램 자료를 분석하여 통일 방송시간을 이용하여 같이 이해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마음 기록장에 알게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북한 생활문화 관련 VCR 및 TV 방송 자료

순	내 용	출 처
1	북한의 학교생활	외교국방연구소
2	북한의 민요기행	mbc
3	북한의 교육	외교국방연구소
4	북한의 대중 예술	mbc
5	북한의 언어생활	외교국방연구소
6	남남북녀 통일마당	iTV
7	북한의 사회생활	외교국방연구소

한마음 기록장에 기록한 내용(예시)

주 재	북한의 대중 예술에 관한 내용을 보고
일 시	2002년 (4)월 (16)일
내 마음속에 담은 내용	
북한의 대중예술을 관람하고	
<p>경양교예단의 공연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가장 놀란 이유는 기계처럼 연주하는 모습과 하나도 흐뜨러지지 않는 자세를 보고 어떻게 저럴수 있을까? 하고 입이 다 벌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조상들이 가수에 능하다고 하였는데 북한에 있는 저 친구들도 우리의 조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 공연에 이어 우리나라 리틀엔젤스 공연이 이어졌는데 정말 생김새, 움직임등이 한민족이라는걸 철실히 느끼게 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연습을 혹독하게 했길래..... 하는 불쌍한 마음도 들었었다. 북한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뿌듯했다.</p>	

2) 인터넷 통한 생활문화체험

클럽활동 시간에 북한 탐구반을 중심으로 북한 생활문화 탐구를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학습결과물 중 우수한 내용을 학교 게시판에 전시하여 전교생이 함께 하는 학습이 되도록 했다.

3) NIE 학습을 통한 생활문화체험

매주 수요일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시사성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활문화를 탐구해 보고 학습한 내용을 스크랩하여 통일관련 학습활동의 도움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나. 토의를 통한 남북한 생활 문화체험

1) 토론 마당

아동들에게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합리적인 태도와 건전한 의식을 형성하는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북한 생활문화 관련 정보 교환의 장을 위한 토론의 장을 확대 실시하였다. 실시 방법은 아침방송 시간(매주 금요일)을 활용하여 학년 수준에 맞는 통일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하고 그 반응을 다음주 토론시간과 학교 홈페이지 토론마당의 찬반 투표를 통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직초등학교
교육목표 : 꿈을 키워 더 나은 시대를 이룬다

- 학교소개
- 교직원소개
- 소식란
- 자료실
- 통일교육
- 학년홈페이지
- 동문모임
- 장안한사다
- 자유게시판
- 추천사이트
- 사이버상담실



북한은 마시안게임에 참가해야만 한다.

찬성 반대

투표여부

<지난 결과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1998년 11월 19일

1998년 11월 19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지사항

1) 오늘(15일) 현장학습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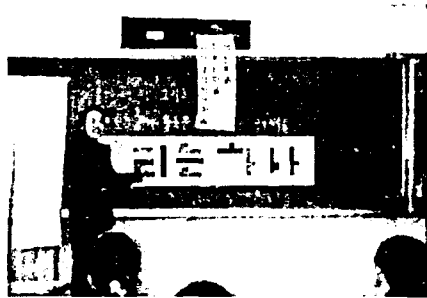
2) 사직초등학교 어머니 배구단 모집

3) 시가에 상담실이 생깁니다.

다. 학교 행사를 통한 남북한 생활 문화 체험

1) 통일전

전 아동들이 다 함께 즐겁게 참여하여 북한을 알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의 장으로 6월과 10월에 남북한 생활문화 중심의 통일전을 개최하였다. 생활문화 중심의 그리기, 표어, 시화, 포스터, 편지쓰기, 통일 노래부르기 대회, 생활문화 탐구발표회 등을 열어 함께 참여하고 학습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2) 6.25 기념행사

6월 25일을 기념하여 학교급식 시간에 주먹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 보고 반찬값으로 절약한 남는 돈과 북한 어린이 돕기의 성금을 모아 대한 적십자사 북한 어린이 돕기 기부하였으며 북에서 귀순한 강사를 모셔 북한의 현실과 생활상을 자세히 듣고 궁금한 사항은 직접 질문하여 살아있는 학습이 되도록 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3) 통일 염원 가족 캠프

학부모님도 함께 참여하는 통일교육의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통일 가족 캠프를 실시하였다.

가족 공동체 참여 통일 지도 그리기, 통일 국기 그리기, 통일 노래 배우기, 북한 알기 퀴즈대회, 통일 염원 촛불의식, 주먹밥 먹기, 북한 어린이 놀이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북한의 생활문화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 가족들도 북한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라. 놀이 중심의 남북한 생활 문화 체험

1) 십자말놀이(퍼즐게임)

매월 마지막 주에는 통일 퍼즐게임 문제를 전교생이 함께 풀어서 (저학

년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부모님과 함께 풀기) 통일함에 정답지를 넣고 토요일 방송조례 시간에 정답자의 추첨을 통해 시상을 하며 그 문제의 정답을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북한의 생활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달의 통일 퍼즐 문제 예시)

()학년 ()반 ()번	이름	()
-----------------	----	-----

				1		2
	3					
					4	
	5	6		7	8	9
		10				

♠ 26일(금)까지 퀴즈함에 넣어 주십시오.

★ 가로 열쇠 ★

1. '어묵' 을 가리키는 북한 말
3. 기압·기온·눈·비 따위를 종합한 기상상태를 말함
5. 명주실로 짠 천
7. '힘센 사람'을 가리키는 북한 말
8. 군대의 우두머리

★ 세로 열쇠 ★

1. 현 물건을 사고 파는 곳
2. 설날에 먹는 음식으로 떡을 비스듬하게 찢어 맑은 장국에 넣어 끓인 음식
3. '날아 다니 새'를 가리키는 북한 말
4. 물건을 싸서 꾸밈
6. '팔빙수'를 가리키는 북한말
7. 돌덩이보다는 작고 자갈보다는 큰 돌
9.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
10. 물이 얼어서 굳어진 것

- ☞ 이번달부터 1·2학년중에서 10명을 추첨합니다.
- ☞ 이번달부터 3·4학년중에서 10명을 추첨합니다.
- ☞ 이번달부터 5·6학년중에서 10명을 추첨합니다.

2) OX퀴즈

우리와 상황이 다른 북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즐겁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능력,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본교에서는 운동회 종목의 각 분야에 이 게임을 함으로써 흥미뿐만 아니라 남북한 생활문화에 대한 학습의욕을 불러 넣어주는 활력소가 되었다.

(통일 O, × 퀴즈 문제 예시)

1. 북한의 나라꽃은 진달래이다.(×)
*인쇄물. 진달래꽃에서 목단 즉, 함박꽃으로 바뀜.
2. 북한의 여성들도 쌍꺼풀 수술을 한다.(○)
*인쇄물. 본인이 원하면 일반 인민 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해주나 성공률이 높지는 않다.
3.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라고 한다.(○)
*인쇄물
4. 최근에 북구하기로 합의를 본 경의선은 경주에서 신의주까지의 철로를 의미한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5. 북한의 국보 1호는 '평양종'이고, 보물 1호는 '대동문'이다.(×)
*인쇄물. 국보 1호는 대동문, 보물1호는 평양종
6. 북한에서는 운동화를 '형검신'이라고 한다.(○)
*인쇄물
7. 북한의 행정 구역은 1특별시, 3직할시, 9도, 25시로 되어있다.(×)
*인쇄물. 1특별시 2직할시 9도 25시
8. 남북의 관계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JSA에서 JSA란 '비무장지대'의 영어 약자이다.(×)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의 약자
9. 북한에도 촌수나 향렬을 중요시한다.(×)
*인쇄물. 60년대부터 향렬이나 촌수를 따지는 풍습이 사라졌다.
10. 북한에도 영자 신문이 있다.(○)
*인쇄물. 매주 토요일마다 발행되는 평양타임스가 있다.

마. 체험활동을 통한 남북한 생활문화 체험

1) 현장 체험학습

학년 수준에 맞는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줌과 동시에 분단현실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학년별 '통일 다짐 현장 체험의 날' 운영 내용

시기	견학장소	견학및 현장 학습 내용	참관학생
4월	진주성 일원	· 임진왜란 진주성 싸움의 현장	6학년
5월	고성 당항포	·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 전투장 견학	5학년
6월	UN 묘지	· 6.25의 실상	3,4학년
6월	부산북한관	· 6.25의 실상, 전투기, 표류선박 등 · 북한의 생활 문화 모습	1,2학년

2)가족과 함께 현장 체험 학습

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통일과 관련된 현장 체험학습을 해 봄으로써 평소에 가 보지 못한 곳을 선택하여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학습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가정과 연계된 지도를 통하여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장체험을 다녀온 후 가족 신문도 함께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3) 전문가 수첩 만들기

학교 아침 방송 시간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모둠별로 모아 '미니북'을 이용하여 '이것만은 나는 전문가'라는 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관광지, 유물유적, 고유명절, 학교제도, 가족제도 등의 북한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 전문가 수첩을 만들었다. 가장 잘된 모듬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면 창의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4) 북한 사전 만들기

남북의 교류가 활발해져 여러 부분에서 교류가 이루어지자 방송을 보고 학생들은 스스로 통일 후의 가장 큰 문제로 '언어의 차이'를 꼽는다. 그 때 북한말과 우리말의 차이를 조사해보고 그것으로 북한말 사전 만들기를 해

볼 수 있었다.

모듬별로 ㄱ에서 ㅎ까지를 나누어 맡아 조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토의하여 ㄱ~ㄷ, ㄹ~ㅂ 등으로 나누어 「북한말 사전 만들기」를 해 보았다.

학생들이 서로 조사하고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통일이 되기 전에 서로 더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하고 스스로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모듬에서 만든 사전들을 모두 순서대로 묶어 한 권의 우리 반 사전으로 전시해 두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했다.

5) 통일 기원 연 만들기

학생들 모두가 통일의 기원을 담아 가오리연이나 방패연 만들기를 하는 방법으로 학교 전체에서 연 만드는 동아리나 연마을 (동의 공업대학 연동아리) 등에 연락하여 지도를 받아 통일을 기원하는 밑그림을 그리거나 통일에 대한 내 소망을 담은 시를 적은 후 연 만드는 방법을 배워 만든다.

실제로 연을 만들고 난 이후 통일에 대한 소망을 담아 만든 연을 날리며 북쪽 친구들에게 내 소망이 전하며 학생들 전체의 연을 모아 한꺼번에 날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저학년은 연만들이가 힘들기 때문에 풍선을 붙여서 풍선 속에 우리 모듬의 마음을 적은 글을 날려 보내면 큰 의미가 있는 모듬 활동이 된다.

III. 마치면서

아동들이 흥미로워하고 알고 싶어하는 생활문화 중심으로 접근한 통일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북한에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가 기본으로 자리 잡으면서 남북이 서로 다른점도 있지만 생활문화면에서 같은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민족 공동체 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남북한 생활문화 이해 학습은 북한을 다함께 알고 느끼며 행동하는 실천적 교육의 장이 되어 통일 대비능력 신장은 물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선 듯 하다.

그토록 어렵게만 생각하고 통일이라는 말에 무관심했던 내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을 해 오면서 항상 망설이고 주춤거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 지도해야하는가 하는 범위의 문제였던 것 같다.

하지만 생활 문화로 접근하는 통일 교육은 학년 수준에 맞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일교육이었으므로 마음의 부담감이 줄어들었던 것 같다.

북한의 현실과 통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비판, 이것이 바로 통일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만이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와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통일과 관련되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 뜻만 있다면 학교, 학년, 학반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적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통일시대를 주도하며 세계를 무대로 펼쳐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북한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을 이해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할 우리들의 의무는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하니 통일교육이라는 과제가 새삼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2. 제2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02. 5. 31(금), 14:00~16:50
- 장소 : 광주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 참석 : 440명
- 주최 : 통 일 부
- 주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토론 및 사례 발표문

1.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논고
(권충복, 무학초등학교 교감) (p.107)
2.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조영기, 광덕중학교 교사) (p.117)
3.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이문호, 전남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p.123)
4.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형용, 상무고등학교 교사) (p.128)
5.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대비능력의 함양 - 사례
(최규삼, 광주 무등중학교 교사) (p.135)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논고

권 총 복
무학초등학교 교감

1. 처음 글

지금의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은 시기의 문제를 제외하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민족간의 이질화 방향을 동질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도·발전시켜야 한다.

북한 체제에 대한 환상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또 교과교육과 교과외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통일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 즉 통일 여건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준비된 통일 여건의 성숙 속으로 학생들의 통일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창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의 주제 발표문은 학교 통일교육이 어떻게 지도되어야 하는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어서 최근 남북한 통일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시기에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자는 이창렬 담당관의 옥고에 대해서 평할 수 있을 만큼 학교통일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지만 초등학생들과 평소 교수·학습하면서 평소 생각하였던 견해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대해서 반론보다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평해 보고자 한다.

2. 학교통일 교육의 실제와 전제

가. 안보와 화해 협력의 이중성 및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은 갑자기 다가온 북한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

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적(경계의 대상)과 동포(화해협력의 대상)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은 북을 여전히 관찰해야 할 대상이자 동포 및 동반자로 인식함으로써 실체를 종합적으로 바르게 볼 수 있다고 본다.

남한의 학생들에게 북한의 사회 현실을 바탕으로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그들을 동포와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통일교육도 이제는 이념과 체제 중심에서 벗어나 생화문화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모든 교육활동에서 북한을 합리적으로 이해함은 물론 모든 교과활동에서 학교통일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도덕과를 비롯하여 관련 교과에서 교과의 특성에 맞게 북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 교과서는 아직도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한 주민들은 지주, 자본가의 착취로 인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방식으로 왜곡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군과 언론이 남한을 비방하는 방송을 낮춘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북한 교과서에 남한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상과 사고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족 공동체적 지혜를 가르쳐야 할 때다.

나. 통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안보의식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적대감 자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키는 노력 즉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간 평화로운 삶을 정착시켜 안보위협을 없애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자위대를 조직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요즈음 우리나라는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하여 안보교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땅굴 현장을 보면 안보 위협은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이제는 남북이 서로 긴장 조성을 하지 않고 화해협력으로 떳떳한 한민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쪽의 안보교육이 필요하겠다. 기존 통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일정 부분의 안보교육은 불가피할 것이나 이를 넘어서 통일을 주도하

고 대비할 수 있는 태도가 통일교육에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 민족문제와 국제 문제의 이중성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호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자도 동감한다.

그러나 북의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시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주변국가의 사정 이해교육은 더더욱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주변국가 사정에 대한 이해교육을 어디까지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관계국들의 이익이 균형되게 고려하는 것이 '열린 자주'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열린 자주'는 인류를 포용하고 개방된 사회로서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평자는 본다. 따라서 현재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주변국가의 보호를 아니 받을 수도 없으며 독자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란 아직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제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통일이라는 민족 프로젝트를 달성키 위해서는 주변국가들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라. 통일 환경의 변화 이해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우리보다 빠른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70년대 이후 북한은 체제 등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그 역량 등이 약화되었고 그들의 자세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어디까지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더욱이 변화된 환경에 대한 지도할 방향이나 검증된 자료 등도 없는 상태다.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가상 주제를 설정하여 토론형식으로 교수·학습을 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저·중학년에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일선 교사들이 변화된 통일교육에 대해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교수·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변화된 통일교육을 지도하려면 초등학교에 알맞은

다양한 자료와 책들이 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 통일과정과 우리의 선택

변화된 통일환경의 여건 속에서는 봉쇄정책이나 무관심 정책도 아니 되고 남북상호 신뢰와 협력의 길을 꾸준히 모색해 가는 '포용정책'과 '화해협력정책'에는 동감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포용정책이나 화해협력 정책 등을 지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감이 든다.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계획이 있어야 할 줄로 안다.

통일교육이 통일을 촉진하는 방안과 통일을 대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통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에 필요한 규범을 내면화시킨다는 복합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때 이는 통일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통일 교육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각의 성격에 부합하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교육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3. 학교 통일교육의 범주와 내용체계의 지도

가.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총론적이고 추상적인 교육에서 이제는 다양화라는 면에서 각론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에는 공감한다. 그렇다고 통일교육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화해교육, 민족교육 등등으로 바꾸려는 논의는 오히려 일선에 혼선만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 발표에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잘 제시해 주고 있는데 다만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피교육자에게 장점을 홍보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에 통일교육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또 민족공동체를 하나의 기능적 복합체라는 시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공동체라는 하위 체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그렇다면 하나의 학교라는 단위에서 정치(올림픽에 한반도기,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공동 대응 등), 경제(경의선 연결, 금강산관광 등), 사회, 문화 측면에서도 통합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초등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지도 방안 및 안내를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나.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교육의 목표 및 내용체계에 있어서는 통일의 필요성에서부터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까지 체계적으로 핵심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개념과 목표에서 통일부와 교육부의 견해가 동질적이긴 하나 통일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교육부는 태도나 판단능력과 같은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이나 실천적인 차원을 강조한 반면 전문가들은 민족 동질성 회복이나 규범 교육적인 차원을 우선 목표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통일교육의 양이 부족하고, 통일정책 홍보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통일교육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나 통일의 당위성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사는 부분 책임자에서 총체적 책임자로서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교육방법도 과거 남북한의 차이를 강조한 교육에서 이제는 남북한 각 사회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념교육인 분야별 교육지향에서 생활교육인 총체적 교육지향으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즉 과거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이 소기의 목표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은 교육내용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학교통일 교육의 실천방향

가.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반영강화

2002학년도 수능시험에 통일관련 문제 5문제가 출제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되어지나 통일문제 출제가 통일교육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물론 통일교육 기회를 범교과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게 지도함은 물론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평자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을 실천할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은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모두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교과상으로는 주로 도덕, 국어, 사회 등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재량활동에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특별활동에서도 자치활동, 수련활동, 행사활동 등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

통일관련 초등학교 도덕과 학년별 시수 및 제재별 지도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학년	제재명	내용요소	학기	학습주제	차시
2 (바른 생활)	6. 우리는 한겨레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2	남북이 한겨레 한민족임을 알기	1/4
				남북한의 생활모습 비교하기	2/4
				통일이 필요한 까닭알기	3/4
				통일을 기다리는 마음가지기	4/4
3	4. 우리의 소원	분단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2	우리의 땅, 탁구경기를 보면서	1/3
				별에게, 세친구의 다짐	2/3
				통일대비 실천활동, 통일현장체험학습	3/3
4	5. 내나라 내조국	국가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2	· 어느 택시기사의 안보의식 · 외교로 나라를 지킨 서희 · 정보 지킴이	1/3
				· 두 유학생 이야기 · 우리들의 안보의식	2/3
				· 안보의 실천을 위한 연습하기 · 역할놀이	3/3
5	9. 한마음 으로 평화 통일을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2	· 한걸음씩 · 통일된 나라들	1/3
				· 우리 가족의 노래가 북녘땅까지	2/3
				·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 북한을 돕기위한 방안	3/3
6	8. 평화 통일의 길	통일국가 미래상과 민족통일 의지	2	·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 지뢰밭을 기찻길로	1/3
				· 고향으로 가는 소, 달라진 말, 우리는 본디 하나	2/3
				통일을 위한 활동 실천하기	3/3

위 표에서와 같이 도덕 교과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시수가 총16시간으로 매우 빈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도덕과의 일반 목표에서는 통일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가치판단 능력, 자율적인 도덕생활 영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통일 대비교육에 중점을 두어 통일 국가 실현을 위한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지도 기회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바른 생활'(1, 2학년)에서는 2학년에서만 4시간, 도덕과에서는 각 학년마다 3시간을 지도할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 통일교육 중요성에 비추어 관련된 교과마저 지도 사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그나마 지도 시기마저 매학기 맨 뒷부분(7월, 2월)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통일교육을 자칫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통일교육 연구학교나 학교 자체 통일에 관련된 연구수업을 공개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교재의 재구성으로 제재의 순서를 바꾸어 지도할 수는 있겠다.

재량활동에서의 통일교육은 교과학습의 보충·심화를 위하고 범교과 학습의 형태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겠다. 즉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탐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현장학습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천할 수도 있다.

평자가 앞에서 논평했듯이 통일교육은 교과과정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할 때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의 교과외 활동에서 통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재량활동 시간에 지도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대체로 영어, 컴퓨터, 한자, 예절, 음악 등을 지도하고 있다.

특별활동에 통일교육을 지도할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통일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통일교육에 대한 방관이나 소극적 태도 그리고 통일은 학교에서의 통일보다도 정치적 즉 사회적 통일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본다.

초등학교 교육이 전인적 인간 육성이라고 볼 때 통일교육 외에 많은 교과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요즈음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으로 인하여 교과외 통일 교육활동이 지도할 시간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6.25행사시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정규적 학교행사시에는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지도할 기회는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지속적으로 지도 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때 정규적 학교 행사에 포함시켜 지도한 통일 교육은 일회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교과내 활동이건 교과외 활동이건 어느 한가지라도 꾸준히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북한 영화나 VTR상연 등은 아침 방송 시간을 활용하여 실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 방영 시간도 많아야 5분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방학중에 부담 없이 통일의 길, 통일 전망대, 남북의 창 등을 시청하고 간단히 감상문을 써 보도록 한다든가 통일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 오도록 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통일교육이라고 생각되며 실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 학교통일 교육의 나아갈 길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학교내 교원들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통일 교육의 방향을 공유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함에는 동감이며, 북한 자료들을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향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나 너무나도 신중을 기하다 보면 오히려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지도는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육방송 등을 통한 여러 가지 지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지도되어야 하며 통일교육의 체계성과 계열성을 명확히 하여 전학년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상상력을 기르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통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족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학습과 행사, 시사, 계기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고, 통일·안보 학습방법으로는 토의 중심의 탐구학습이 바람직하며, 통일안보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는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며 특히 영상매체가 효과적일 것이다.

첫째, 대화와 토론을 위주한 지도를 통해 학습자의 관심과 자율적 참여를 유발하는 능동적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북한관, 통일전망대 판문점, 안보전시관 등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해 학습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실천적 체험적 학습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cyber공간을 활용해 통일에 관한 각종 시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cyber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특성과 교육환경을 감안한 다양한 통일교육자료를 개발·활용하는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교과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은 주로 도덕 교과서를 통해 분단극복, 통일국가 실현 준비 등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 지도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관에 대한 가치관은 형식 시켜 줄 수 있지만, 통일에 대한 신념이나 의지를 갖고 실질적 통일성취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한계점을 조금이나마 무너뜨리고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과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을 통해 기른 지식과 가치관의 바탕 위에서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교과외 활동의 통일교육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때 통일교육이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통일교육은 이성적 인식의 바탕 위에 상호존중과 이해에 바탕을 두되 역사적 사실은 가감 없이 제시해야 한다. 즉 6.25의 큰 상처나 국력의 낭비 등을 소상한 자료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감상주의로 흐르기 쉬워 통일의지도 되든 말든 이중적 태도를 갖기 쉽다.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정서적 측면으로 고학년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이해와 판단을 하도록 지도 되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몇 가지 들자면,

첫째, 통일교육의 개념이나 목표의 불투명으로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일에 관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통일 교육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일치된 견해가 없다. 또한 통일이 우선인가? 안보가 우선인가?

둘째, 교과외 통일교육의 접근시각과 방법의 차이가 있다. 6월 통일교육 행사를 보면 학교실정이나 담당자의 시각에 따라 통일교육 중점이 달라지고 있다. 표준이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시되어야겠다.

셋째, 교수학습 자료의 제한이다. 북한에 대한 1차 자료가 절대 부족하며 상급기관에서 배부한 자료의 이용도 극히 희박한 실정이다.

다. 통일후계 세대 의식함양

학생들의 통일 무관심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주의적 경향이나, 물질중심의 사고나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미흡, 학교통일교육 과정상의 통일제재의 비중 미흡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다. 그러나 통일후계 세대에 통일의식을 심어주려면 교육과정상 통일제재 비중 등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독일통일 이후 거대한 통일 비용의 우려나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생각하면서 미리 대비해야 할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가 성장된 바탕위에 북한의 경제도 성장했을 때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본다.

5. 맺는 글

남북한은 화해 협력을 추구하면서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 남북한은 진정으로 동반자로서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통하여 남북의 통일을 논의하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통일은 '이기는 통일'에서 '함께 사는 통일' 또는 '공존의 통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또 완전한 통일이란 단순히 정치, 경제 체제에서의 단일화를 이룩했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가치관 등에서의 이질성이 극복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스스로 깨닫도록 설득 시켜야 한다. 현재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있더라도 감상주의적으로 호를 가능성이 많다. 통일은 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좋다는 심리적 이중적 태도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교육은 그동안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적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교육 조건의 조성이 급선무인데 교육의 자주성 문제로서 교육 주체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주성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자료를 제시하여 우선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조 영 기
광덕중학교 교사

I. 들어가는 말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읽다보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이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을 보게 된다.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우리 땅 곳곳에 남아있는 문화재는 조상들이 물려주신 민족의 숨결이자 자랑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무심코 스쳐 지나가듯 보기만 할 뿐, 그 문화재의 내력이나 가치에 무관심하다.

해방 이후 분단된 상황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음에도 언론에서 보도할 당시에만 통일에 대한 열기가 반짝거렸을 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춥고 배고프던 시절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기적이라고 할 만큼 고도 성장을 이루어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는 국력을 지닌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분단이다.

이제는 통일에 대해 월드컵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은 직간접적으로 분단에서 연유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분단국들이 어떻게 통일에 이르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통일을 위해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를 대표한 통일부가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

II. 효과적인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고민과 제안

1. 1300여년전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원효가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난 뒤 깨달음을 얻어 신라로 되돌아가서 한 일은, 당시 귀족적이고 관념적인 불교를 대중적 실천적 불교로 토착화시킨 것이다.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은 이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군사 정권하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가 정부와 전문가들에 의해 독점되고, 통일에 대한 논의마저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자칫하면 사상적 검증 대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누가 통일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겠는가?

다행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북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통일 논의의 물꼬가 트이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언론에서 뉴스화 되었을 때 잠시 뿐이고, 학교통일교육 역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관념적인 수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2.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대중적이고 실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그동안 생각했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정리하면서 제안하고자 한다.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참고가 되어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범위를 학교통일교육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하지만, 응용하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TV가 마을에 한 두 대 정도밖에 없어서 어른들 눈치보며 다리사이나 어깨너머로 보려고 깡충질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TV나 컴퓨터, 휴대폰 라디오, 핸드폰 등등 너무나 많은 대중 매체에 노출되어 오히려 부모들이 차단하지 않으면 중독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웬만한 가수나 탤런트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팬클럽이 거의 조직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우상이 된 연예인들은 팬클럽의 열성과 회원수가 이미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에 대한 통일교육 연수를 시킨다거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도록 협조를 구한다면, 관념적인 통일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통일에 대한 의지가 담긴 노래를 부르는 인기가수가 있다면, 즐겁게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리라고 본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모방하려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렇게 유익하게 이용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효대사가 노래를 지어 서라벌에 유행시켜 설총을 얻는 목적을 달성했듯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요즘처럼 발달한 대중 매체를 통해 전국민에게 들들불들 유행시킨다면 통일의 그 날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이제 관심을 학교 현장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통일교육을 도덕교사가 맡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과목과의 관련성을 애써 부정하려 하며, 도덕교사들마저 교과서 진도에 따라 해당 단원에서만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여기 저기 쌓여있는 자료들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나 연수회 등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고 교실수업에 그칠 뿐이다.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교과활동을 통한 교실 안의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주제로 한 캠프나 게임, 그리고 기행과 같은 체험활동 교육이 학생들에게 훨씬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는 약간 딱딱하고 관념적이고 재미가 없는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본다.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통일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교사의 마음과는 달리,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그 효과를 고양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 봐야 한다고 본다.

4.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의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원활한 연계 활동으로 통일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해 준다면, 일선 학교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료의 활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통일관련 시민 단체나 각종 유관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통일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5. 학교통일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일반교사 그리고 교육청 관리들의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풍부할수록 좋다.

통일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상태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승공 반공 멸공교육으로 굳어져 있는 사고를 지닌 어른들의 교육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다. 따라서 직책과 역할에 알맞은 다양한 수준의 통일 연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통일을 직접 가르치는 윤리 및 도덕 교사들에 대한 체험적 연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번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더라도,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에게 복지적 차원이 아닌 연수나 선수학습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4월말, 통일에 관심이 많은 몇몇 선생님들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다녀오고자 신청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있어서 탈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금강산을 다녀오는 것이 통일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의 산하를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서 느낀 생생한 체험을 들려주면서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한다면 학생들의 귀가 얼마나 좋겠하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기회를 갖기는 어려우므로 교육부나 통일부 또는 교육청별로 연수 대상 인원을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다.

6. 6월은 6.25전쟁이 발발한 비극적인 시기로서 조국을 지키다가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차원에서 '호국 보훈의 달'로 부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족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대화를 통해 통일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달이기도 하다.

따라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르는 6월을 '화해 평화 통일의 달'로 부르거나,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에서부터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통일교육 담당자가 배치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적대적이고 긴장관계였던 남북이 서서히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직도 많은 입장차이가 있지만 통일이라는 화두가 등장할 만큼 변화한 것도 사실이다.

아직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약하기 때문에 학교통일교육도 윤리도덕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에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시키거나, 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자면 지금처럼 윤리도덕 담당자가 맡기에 너무 과중한 업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 탈북자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학생 교류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각 지역별로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소정의 교양 교육을 시킨 후에, 지역별 인력 풀로 활용하는 것이다.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들이 직접 살았던 북한 사회의 모습들을 교사의 지도하에 특정한 주제를 정해 놓고 들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생활마저 곤란한 그들에게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그들의 생활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다.

9. 통일문제를 다루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은 대부분 북한이 우리와 다른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산 체제이기 때문에 파생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의 많은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경계해야 할 적으로서의 북한을 비판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로 통일해야 할 동포로서의 동질성도 알아야 한다.

내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포스터에 그려진 북한군은 정말로 흉악하게 생겼었다.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학생들에게 반세기

의 분단이 가져다 준 차이보다 반만년의 역사속에 녹아있는 민족의 동질성과 공통점을 알려주면 통일된 이후에도 문화적 충격이 훨씬 약화될 것이다.

Ⅲ. 맺는 말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통일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교육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과 통일교육에 관한 문제이므로 관심의 대상은 되리라고 믿는다.

90년대 초반까지 우리의 통일정책은 다소 경직된 면이 있어서 합부로 말하기가 어려웠고, 이후에는 변화의 기복이 커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감을 잡기가 힘들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유연성은 있으나 정보나 자료의 부족으로 통일교육을 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일부에서 주간 북한동향이나 주간 국제동향, 국제동향개황등을 메일로 보내주고 있어서 참고가 되기는 하지만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일정책의 큰 틀을 담당하는 통일부가 장차 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도한 이번 워크샵이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하는 우리 사회의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결집시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에 혼선이 없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한다.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이 문 호

전남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오늘날 국·내외적 사회변화로 인한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는 학교 통일교육에도 큰 변화가 찾아 왔음은 당연하다.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하여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이창렬 통일부 정책 담당관의 현장 인식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차원 높은 발제문에 경의를 표한다.

15일여 후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린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6·15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는다. 남북이 지난 55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결 상태를 청산하고 화해 협력과 평화 정착 및 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 온 겨레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던 것이며, 여기에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본고는 발제문에서 지적한 학교현장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덧붙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영상매체를 활용한 통일교육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

- 1) 북한은 우리에게 적과 동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 2)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북한 지역을 불법

접거하고 있는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4조 통일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남북간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하고 있다.

나.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1999년 6월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정의 및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자체가 정부차원의 홍보라는 지적을 씻어내는 일대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실시해야 할 통일교육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념별·계층별·세대별 다양한 시각을 국민합의 형성차원에서 정리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창렬 통일정책 담당관은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논의를 통해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다. 통일 교육 자료의 활용 문제

1) 통일 교육은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남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나아가 민족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역량 결집 및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교육이어야 한다.

2) 통일에 관한 많은 자료들은 검증된 것과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교육인적자원부 학교81120-273(2002.02.22)와 학교81120-488(2002.03.25)에 근거하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된 공문에 의하면 "최근 편향된 북한관과 통일관에 의한 일부 교사들의 임의 통일 교육이 우려되는 바, 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에 배치되는 임의 통일 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임의 통일 자료란 검인정 교과서 및 공인된 지도서, 교육부, 통일부, 시·

도교육청 등 정부 기관에서 개발·보급한 교재 이외의 자료"라고 정의하고, 교육 인적 자원부의 '학교 통일 교육의 방향'에 관한 요약문을 제시하였다.

4) 요약문에는 '통일 국가의 미래상', '미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시각', '6·25 전쟁 등 역사적 사실을 보는 시각', '북한 실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자료들의 출처는 대부분 통일부의 공식 자료들과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다. 특히 수업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료 교사들의 수업 활용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라. 영상매체 활용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토론 원고를 준비하는 가운데 '통일교육원(<http://www.uniedu.go.kr/>)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 탑재된 2001년 전국대학생 통일논문현상공모 입선작 한편을 통해 영상매체를 통한 학교 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적인 고찰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논제 : 「영상세대의 대북한 이미지 분석과 수용미학」
- 영화 매체 수용을 통한 이미지 포지셔닝을 중심으로 -

상명대학교 무대디자인과 4학년 김 묘 정

위 논문에서는 영상세대의 대북한 인식 교육의 방향과 통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바 학교통일교육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 대북한 인식 교육의 방향

통일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는 객관적이고도 올바른 북한관을 확립하는 길이다. 차후 영상매체를 통한 대북한 이미지의 수용이 복선(複線)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기본적인 통일관을 뿌리째 뒤흔들 우려가 있으며, 이는 여간 민감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인 이윤배반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대북한 인식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상매체 수용 이후의 교육적 처방은 물론 올바른 방식으로 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U 영상매체를 통한 통일 교육

영상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영상매체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있는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영상매체 자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영상매체의 힘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자신만의 판단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학생 스스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즐거움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통일교육을 위해 우리 학생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항상 자료의 활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활용할 만한 통일관련 자료가 봇물처럼 놓여져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다음 표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에 안내된 통일·북한 관련 사이트 현황을 제시해 본 것이다.

구 분	정부 및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대학·연구소등)	언론기관
사이트 수	11 6.25전쟁기념사업단 등	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등	19 한국방송공사-겨레가 하나되어 등
구 분	민간단체·종교단체	민간기업	개인·동호회
사이트 수	36 경실련 통일협회 등	29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46 10대가 보는 북한의 모습 등

< 통일·북한 관련 사이트 현황 > *출처 <http://www.uniedu.go.kr>

간단히 수치상으로 살펴볼지라도 인터넷 사이트가 166개임을 헤아릴 수 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사의 신념과 열정에 의해 교육과정은 재구성되어야 하며 그런 노력이 기울여질 때 통일교육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혹여 교사 자신의 편견이 우려된다면 교과교육연구회 즉, 광주도덕·윤리교육 아카데미나 통일연구모임에 참여하는 동료교사들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연후에 수업에 임할 수 있는 열린 사고도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맺으며

우리는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을 즈음 영상매체 특히 TV,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은 인터넷 정보의 바다를 여행하느라 시간을 쏟고, 텔레비전을 즐기며, 만화를 보고 영화를 본다. 가히 그들을 영상세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함은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흥미 가득한 통일교육을 이끌 수업 기술이 필요한 때이다. '통일국가의 상징체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제시하여 토론수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본다.

오늘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은 필요한 때에 알차게 진행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행스럽다. 학생들은 미래 통일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음 날 통일 조국을 위해 제 몫을 다하는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성스러운 교사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기쁨이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 형 용
상무고등학교 교사

I. 문제의 제기

▶ 통일부 이창렬 정책담당관님께서 발제하신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은 그 동안 제기되었던 어떤 반공, 안보, 통일교육보다도 진보적이고 현실적이며 균형 잡힌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일교육이 학교교육의 현장에 정착되어 활성화되길 기원하면서 교육현장에서 당면하는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각종 설문조사나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40%~60% 정도로 조사하는 시기와 지역,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서 얻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80% 정도가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12% 정도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나머지 8% 정도는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얻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학교통일교육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언론이나 국민의 정서에 따라 감상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조차 좀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통일의 문제를 접근하면 red complex로 색안경을 끼고 보고, 반대로 보수적 입장에 서면 어용으로 몰리어 학생들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외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러한 통일교육의 어려움은 통일의 문제에 비교적 진보적 입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정부의 통일교육 정책에서도 그 이중적 구조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II.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이중성

1. 통일교육의 문제점

▶ 그 동안 학교통일교육이 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과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요인은 민족분단과 6.25전쟁으로 인하여 남북 상호간에 형성된 적대적 관계를 아직도 청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평화적 공생관계가 확실하게 조성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념교육의 논리와 체계를 전환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념교육이 북한에 대하여 적개심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반공안보교육에서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 평화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은 여태 자신이 배우고 가르쳐온 사실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교육의 대전환은 자기 정체성의 부정이며 이중적 모순으로 학생, 교사 모두 부담감을 안겨 주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기피하는 이유로 보여집니다.

▶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날 신세대의 특성 중의 하나인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경향이 있어 민족이나 통일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통일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이념교육이 일관성 있는 통일 교육 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없이 정치적 논리나 단편적인 언론 보도에 의하여 감정적 통일의식으로 흐르면서 교육 담당자의 상충된 논리적 모순으로 자기 부정과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통일교육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 통일교육의 이중성

▶ 통일부 이창렬 담당관님께서 발제하신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 방향”의 내용에서 “통일교육의 이중성은 남북의 상황, 국제적 관계,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통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실체가 존재한 상황에서 적과 동포라는 이중적 구조에서 안보 의식과 화해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설정하고, 남북의 문제는 민

족의 문제이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과 맞물린 국제 관계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으며, 발제문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국내의 남북관계를 인식하는 보수와 진보의 다른 이중성 등을 고려하여 남북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적으로 통일 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그러나 논자는 이러한 특수성과 현실성을 전제로 한 통일 교육은 또 다른 논리적 모순을 낳게 되고 학생과 교사들이 통일 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를 제공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개방화되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정신과 역행하는 통일교육이 남북이 처한 현실과 지역성 등 특수성을 더 강조할 때에는 교육의 논리가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의 논리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현실적 문제와 지역적 문제 등 특수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편성과 다양성의 바탕 위에서 창의성을 동원하여 토론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방법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통일교육도 개방화되어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현실성보다는 미래 가치성을, 지역성보다는 통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민족 분단이후 체제와 사상을 달리하면서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언어와 문화 등을 가지고 반세기가 넘도록 적대시하면서 살아온 결과, 이제는 민족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통일교육을 하자는 것은 달라진 민족 문화를 서로 수렴하여 하나의 민족 문화, 본래의 민족 정신과 문화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전쟁이나 흡수 통일 방식으로 한 쪽을 굴복시키고 점령하여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각기 다른 점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 서로 같은 점을 찾아내어 현명한 선택을 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로 합치자는 것입니다.

▶ 이러한 통일교육의 목적과 의미를 외면하고 통일 교육이 남북이 처한 현실성, 지역성, 특수성을 더 강조한 때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교육의 논리가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일 교육의 의미가 특

수성과 현실성을 강조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한다면 통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육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정치적 원리가 교육의 원리를 통제하고 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논리가 교육의 원리를 지배할 때 고정관념, 흑백논리, 1대1의 거래(zero sum game)와 같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치적 논리는 현실의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계산 즉 이해 관계에 빠지기 쉽고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기 쉽기 때문에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은 정치적 논리로 교육의 원리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면 교육의 기능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 방향감각을 상실할 우려가 높아 집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적 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듯이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원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3.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 발제문 3장,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에서 통일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체제의 이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승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 동안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여 자유를 더 강조하였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여 평등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남쪽에서 자유 민주주의라 하여 자유를 더 강조하면 빈부의 격차가 심한 불평등한 사회란 뜻이 되고, 북쪽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평등한 이상사회 건설이라고 하여 평등을 더 주장하면 개성이나 능력, 창의성이 무시된 획일화된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루려는 진보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 없는 평등사회나, 평등 없는 자유는 절름발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너울을 쓴 반민주주의의 항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한다면 자유민주주의식의 흡수통일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자유민주주의식의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고,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고집한다면 무력에 의해

적화통일을 하여 공산주의식 교육을 계속하여 통일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자유와 평등이 균형되게 고려되는 형태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II.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오늘날 우리 민족이 당면한 민족 최대의 과제는 조국의 통일이며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바람직한 통일 의식과 실천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 하여 그 위상에 맞게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교육 그 자체가 하나의 통합 교과적인 교육과정으로서 마련되어 학교에서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정치적 논리인 힘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원리인 조화와 통일의 변증법적 원리로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에 의해서 실질적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요망됩니다.

통일교육이 정치적 논리나 단편적인 언론 보도에 의한 감정적 통일 의식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통한 통일 의지를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일의 기본원칙은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삶의 좌표가 되어야 하고 남북한 모두가 교육하고 실천해야 할 약속이며 통일 조국의 미래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통일교육은 이미 결정된 세계가 아니라 역사의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통일 세대의 주인공들이 스스로 그들의 세계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동안 남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민족의 통일을 위해 민족화합 민

주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 각종 제안, 제의, 방안, 선언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7. 4 남북 공동성명, 6. 15선언 등의 합의를 도출하여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으로 통일하자는 통일 3대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일의 3대 원칙이 통일교육의 3대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2.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일대비교육은 통일 과정에서 겪게될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족 공동체 의식과 미래의 정보사회에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 등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교육의 틀 속에 들어가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 민주사회를 이룩할 때 실질적 통일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추구하는 공통점과 조국 통일의 미래상이 민주주의 체제라면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민족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 의식과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관련 특정 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3.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험의 통일교육 반영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교육 현장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적습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전 교과에서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학능력시험이나 논술시험 등에서 통일관련 문제의 출제 반영비율을 높이고 이를 적극 홍보하였으면 합니다.

2002학년도 수능시험에서 5문제가 출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어, 수리, 사회, 과학탐구, 외국어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관련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하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4. 다양한 통일교육자료의 제작과 북한관련 자료가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려고 해도 그에 따른 학습자료의 부족과 교육 프로그램의 미비로 관련 교과의 연계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한 관련교과 자료는 구하기도 힘들뿐 아니라 그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편향된 북한관과 통일관에 의한 임의적 통일 교육 자료가 아닌가 우려되어 통일교육을 하는 자체를 망설인다고 합니다.

대개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는 학습자료는 교육부의 인터넷 평화학교 (<http://tongil.moe.go.kr>), 통일부의 교육자료들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성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것이고 그 교육적 효과도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체험학습과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통일관련 학습 자료가 제작 보급되었으면 합니다.

5. 통일교육 관련 연수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통일교육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교육체계와 내용이 자주 바뀌고 통일교육 자체의 이중성 때문에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육 자체가 교육적 신념체계와 사고체계의 전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적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범 교과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 이해의 폭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교과의 활동을 통한 통일대비능력의 함양

최 규 삼
광주 무등중학교 교사

1. 운영을 시작하며

통일환경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던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적지 않는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그 속에서 개인의 행복과 국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이며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냉철하게 분석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통일교육이 과거의 안보중심 통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통일교육의 방법도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 통일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중심의 소집단 토론학습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강화하고 학습내용도 안보·통일중심에서 화해·협력의 증진과 사회·문화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통일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본교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방법으로 교과서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교과 외 활동인 재량활동, 특별 활동, 행사·체험학습을 통한 통일 대비능력의 함양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운영의 목적

- 교과 외 활동을 통한 학교 통일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 가. 통일교육 관련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을 체계화하고,
 - 나. 통일교육이 포함되는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 다.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한다.

3. 지도 대상 : 광주무등중학교 전교생(646명)

4. 지도 기간 : 2000.3.1 ~ 2002.2.28(2년)

5. 실천과제

- 가. 특기·적성교육시간을 통하여 북한을 바르게 이해한다.
- 나.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범 교과 재량활동을 편성·운영한다.
- 다. 행사·체험활동을 통하여 통일의를 다진다.

6.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지도 사례

가.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통한 통일교육 지도

(1) 통일 관련 반 조직

- (가) 특기·적성교육 활동시간에 통일관련 반 조직- 연극반, NIE반 조직
- 1) 본교 특기·적성교육 20개 부서 22개 반에서 통일교육이 가능하고 학생과 교사가 희망하는 부서를 조사하여 통일관련 반으로 연극반과, NIE반을 조직하였습니다.
 - 2) 통일교육관련 학습주제는 교육부 장학자료 제89호(통일교육지도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통일교육활성화 방안 연구(통일교육지도 지침 및 자료 개발), 통일부의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및 인터넷상의 자료를 근거로 추출하여 지도하였습니다.
 - 3) 특기·적성교육에서 반 편성은 학기별로 희망 조사를 하여 편성하였으나 연극반과 NIE반에서는 희망 조사결과 1학기에 신청한 학생

이 다시 신청하여 연중계속해서 북한이해 교육을 각 반별로6~8회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4) 연간 운영 실적

가) 연극반 연간 운영 실적

주	영역	활동내용	교수자료 및 방법	비고
3~4	연극의 기초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 갖기-북한에 대해 궁금한 것 15가지	자기 점검, 설문조사, 토의	통일 관련 사이트 소개
8~10	소개하기와 연극놀이	북한 바로 알기	읽기자료(북한의시, 소설) 모둠독서 토론	www.ktu.or.kr
16~20	공연 연습과정, 공연 준비, 평가	"통일 학교의 하루" 공연 준비와 연습	모둠별 발표(시범수업)	가장 잘된 모둠의 작품 시상

나) NIE반 연간 운영실적

주	영역	활동내용	교수자료/방법	비고
3	NIE의 기초	통일 교육의 필요성 인식	시사자료, 설문지, 사이트 안내/토론	http://iie.joonggang.co.kr/nie
6~10	통일 노트	남·북한 비교	시사자료/모둠활동.포트폴리오	노트 준비
		통일 일지 작성	신문기사/모둠 활동	
		통일 국기 제작	신문기사/모둠활동	
		기사 스크랩 및 소감	통일관련기사, 학습지/모둠 및 개별학습. 포트폴리오	
11~15	통일 신문 제작	동결성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학습지/브레인스토밍	4절 쉐트지
		제작회의	신문기사,통일신문 사례/모둠 활동	
		주제 선정	통일관련기사, 역사신문/모둠활동	
		기사 작성	신문/모둠활동	
		편집 및 완성	기사문/모둠활동	
16~20	총정리 및 평가	발표회	통일신문, 실물화상기/powerpoint/모둠 발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효과 분석 및 대책
		활동소감 발표 및 의식 변화 정도 분석, 대책 전시 및 평가	설문지/개인별 발표, 토론 작품게시 및 상호평가	

5) 통일교육 지도 수업모형

가) 연극반을 통한 통일교육 수업모형

단원명	통일시대의 문화 이해 - 통일 학교의 하루	
학습목표	통일 대비 능력 함양 - 통일 국가의 학교 교육의 하루를 상상하고 재연하면서 생활문화 중심의 남북한 교류를 탐색할 수 있다.	수업형태
		모둠별 발표수업
단계	교수 - 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5분)	※ 학습동기 유발 - 통일 조국의 학교 모습 상상하기 ※ 통일에 대한 관심 고취 및 탐구문제 탐색 - 모둠별 선정된 주제에 대한 논의	※ 읽기자료
진개(35분)	※ 모둠별 통일관련 주제 탐구 - 대본을 상호 검토하고 도움말 주고 받기 ※ “통일 학교의 하루” 모둠별 발표 - 공연 진행자의 인사말 - 사례 1(아침 자습) - 사례 2(점심 시간) - 사례 3(청소 시간) -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재연하며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 ※ 통일 학교의 지향점 모색	※ 통일 대본 ※ 공연 준비 - 소도구 및 분장, 의상 (학생 수준)
정리(5분)	※ 모둠별 상호 평가 및 느낀 점 나누기 - 모둠별로 발표 - 생각 넓히기 ※ 차시 예고	※ 상호평가지

나) NIE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수업모형

단원명	통일한국의 미래상 - 통일 국기(國旗) 구상하기	
학습목표	통일 대비 능력 함양 - 통일 국가의 상징을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간의 의식 차이를 예상해 보고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수업형태
		모둠학습
단계	교 수 - 학 습 과 정	
도입(5분)	* 학습동기 유발 * 주요개념 설명 및 학습과제 안내 - 한 국가에서 국기(國旗)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설명 * 각 모둠원을 남한과 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 2개팀으로 편성	* 읽기자료
진개(35분)	* 학습지 해결(개별학습) - 현재 남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국기에 담겨 있는 의미 조사 - 통일 한국의 국기에 담겨져야 할 의미 생각 및 서술 * 새로운 국기의 도안 및 의미 설명(모둠학습) - 담겨져야 할 의미 제시 (각 대표팀의 주장등을 고려하여 합의) - 모둠별로 도안구상 - 신문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	* 학습지, 신문, 도화지 * 탐구 자료는 교사가 미리 준비하여 학생의 활동은 분석 및 창의적 대안 제시가 주가 되게 한다.
정리(5분)	* 모둠별 발표 및 평가 - 모둠별로 발표 - 최종 결정안 찾기	* 통일 국기 * 왜 그렇게 했는지 의미 설명이 있도록 한다.

나.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제7차 교육과정에 재량활동이 도입되어서 지역, 학교의 여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되었다. 본교는 이러한 점을 살려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1) 교내 창의적 재량활동 연구팀 구성.

- (가) 팀 구성(3명) : · 팀장 - 연구부장 · 팀원 - 희망 교사(2명)
- (나) 역할 : · 프로그램 개발 · 학급 학생 관리
- 교수 · 학습 과정안 작성 및 지도

(2) 재량활동 편성 · 운영

- (가) 편성 형태 - 전체 필수형 (나) 시간 운영 - 정일제
- (다) 시간표 작성 - 화요일 (라) 시간 배당 - 총 34시간 중 통일교육 14시간 운영
- (마) 재량활동 참여 대상 - 1학년 228명

* 창의적 재량활동 편성 · 운영(예시)

연번	영역	시간배당	학급담당
1	주제 탐구활동	5시간	1-1 박은영
2	민주 시민 교육	2시간	1-2 "
3	통일교육	14시간	1-3 "
4	예절교육	5시간	1-4 한정미
5	인성교육	3시간	1-5 "
6	소집단 공동 연구 활동	5시간	1-6 정혜란

(3) 통일교육 실시 현황

차시	지도내용		실시시기	비고
1	통일 의 필 요 성 북 한 이 해 통 일 의 다 집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생각 주머니)	4월 17일	예시참고
2		생각 주머니 발표 및 토론	4월 24일	
3		통일의 필요성 찾기 (유비 질문 · 마인드 맵을 활용하여)	5월 22일	
4		반전 영화 감상하기	5월 29일	
5		북한말 알아보기	6월 5일	
6		북한말 알아 맞추기(퀴즈)	6월 12일	
7		북한 속담 알아보기	6월 19일	예시참고
8		북한의 명승고적 알아보기	6월 26일	
9		'북한의 생활과 문화' VTR 감상	9월 4일	
10		감상문 쓰기 및 민족 동질성 찾기	9월 11일	예시참고
11		평화통일 4행시 · 통일을 염원하는 시 짓기	9월 18일	
12		통일 노래 배우기	9월 25일	
13		통일 국기 그리기	10월 9일	예시참고
14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 (brain writing)		

(4)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수업안 모형(학생 활동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아래의 생각 주머니 안에 나의 생각을 넣어 보시다. 그리고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 해 보시다.

△ 언제쯤 통일이 될까?

△ 통일은 누가 할까?

△ 통일은 왜 해야 할까?

통일과 등산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다.

통일 국기를 그려봅시다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통일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통일 국기를 그려 보시다.

· 통일 국기를 그려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 왜 나는 위와 같이 그렸나요?

북한의 생활과 문화 VTR을 시청하고
학년 반 이름 :

내용 나의 고정관념 새로 알게 된 사실

교육
정책

가정
생활

남자의
가사
참여

어머니
마음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알아두면 좋을 북한 속담

- *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라.
- * 겨울이 다 되어야 솔이 푸르름을 안다.
- *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으라.
= 남한 "
- * 가까운 집은 짝이고 먼데 짝은 비친다.
- * 나그네 귀는 석자다.
- * 참새는 굴레를 씌울 수 없어도 호랑이는 갈들일 수 있다.
- * 못 입어 잘난 농 없고 잘 입어 못난 농 없다.
= 남한 "
- * 손끝이 거름

다. 행사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교과 지도 이외에 각종 행사, 현장 체험학습, 단체활동, 학생회 활동 등의 특별활동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체험학습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강화하여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육대회, 학교축제, 북한영화 감상 등을 실시하였으며, 체험학습 후 견학기록문, 그리기, 글짓기, 사진 전시회 등을 통하여 정의적인 영역과 행동적 영역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 통일교육 행사·체험학습 내용

월	행사명	내용 및 방법	대상	일시	비고
3	통일시사 학급 토론회 운영	통일과 관련된 주제 토론하기	전교생	매월4주 월요일	
4	통일 관련 퀴즈 대회	통일과 관련된 퀴즈대회 실시	2학년	4.30	
5	체육대회를 통한 통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별 통일 가장행렬(우수학급 시상) ● 통일염원 달리기 대회 	전교생	5.17	
6	평화통일 체험의 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6.25전쟁기념 51주년 평화통일 글짓기, 표어짓기, 포스터그리기, 응변대회, 만화그리기, 독후감쓰기 대회 	전교생	6.1~ 6.30	
		● 북한친구에게 편지쓰기	전교생	6.15	
		● 수학여행을 통한 통일교육(통일전망대, 땅굴, 임진각, 강화도 국방유적지 탐방-주제탐구학습, 통일신문 제작 대회 및 전시회	2학년	5.31~ 6.2	
7	통일노트·통일스크랩북 전시회	모듬별 제작한 통일스크랩북. 개인별로 작성한 통일노트 전시회	전교생	7.19~ 7.21	수행평가
8	북한영화감상	동일부광주광역시북한관에서 상영하는 북한영화 1편씩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제출 하였다	전교생	7.14~ 8.25	수행평가
9	수련회를 통한 통일교육	통일촛불의식 및 캠프파이어, 통일토론회 개최	1학년	9.28~ 9.29	
10	학교축제를 통한 통일교육	촌극, 퀴즈대회, 시화전, 통일노래부르기 대회.	전교생	10.26	
11	통일문집발간	학교(10.13) 학급통일문집 발간(10.4~12.21)	"	10월~ 12월	

(가) 체험활동 1 - 수학여행을 통한 통일교육

수학여행 코스 중 강화도 국방유적지와 임진각,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택하여 국토분단의 현장과 자료실, 전시실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으며, 수학여행 후 통일신문제작을 통해 통일의식의 내면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 1) 실기 기간 : 2001. 5월 31일(목) ~ 6월 2일(토) (2박3일).
- 2) 참가대상 : 2학년 193명
- 3) 오두산 통일전망대 견학전 학습지 (예시)

* 통일 전망대 그 곳은....

	반 번호	이름			
1.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볼 때 북한과의 거리가 가장 먼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은 얼마인가?					
2. 1층 북한 전시실 및 북한 생활 체험장(인민학교 교실)에 보면 달라진 남북한 언어 책자가 있다. 그 곳에서 식생활 및 의생활 용어를 알아보자.					
구분	남한 말	북한 말	구분	남한 말	북한 말
3. 1층 북한 생활 체험장 중 인민 학교 교실에서 북한 학생의 학습장과 교사 연구록의 종이 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4. 2층 통일전시실에 전시된 내용 중에 2000. 6. 15 남북 정상 회담의 공동 선언문 발표 내용이 있다. ④번 항목은 무엇인지? - 이하 내용 생략 -					

4) 달리는 버스 안에서 통일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기.

임진각을 출발하여 통일 전망대를 향하여 달리는 버스 안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통일 의지를 기르도록 하였다.

< 예시 > 버스 안 토론

주 제	통일의 필요성 및 방법	날 짜	2001년 6월 1일
<p>여러분 앞으로 한 시간 후에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통일 전망대를 향하여 달리는 동안 통일에 대하여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토론을 해 봅시다.</p> <p>먼저 '통일은 왜 해야 할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p>			

5) 수학여행 후 통일신문 만들기

가) 대상 : 수학여행 참여 학생전부 (193명)

나) 내용 : 임진각, 통일전망대를 다녀온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다) 형식 : 신문 형식(제목은 주제에 맞게 자신이 직접 정한다, 만화, 만평, 퍼즐, 통일국기, 북한의 실상조사 등 다양하게 구성한다. 개인별 신문 1매씩 제작 제출한다, 규격은 전지1/2)

라) 제출일 : 6월 8일(금). 담당자 ; 박정신

마) 시상 : 금상(1명, 도서상품권 3매), 은상(3명 도서상품권 2매) 동상(5명 도서상품권 1매) 장려상(10명 노트 3권)

바) 통일신문 예시-생략

(나) 체험활동 2 - 수련회를 통한 통일교육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통하여 심신단련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고, 자아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련회시간을 이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한 후 통일의지를 다지고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1) 행사명 : 광주무등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 2) 기 간 : 2001. 9. 28 ~ 9.29(1박 2일)
- 3) 장 소 : 목포시청소년수련관
- 4) 대 상 : 1학년 215명

* 우리 함께 하는 통일 한 마당 (예시)

구분	내 용	준비물	시간
통일촌극 및 장기 자랑	전체합창 및 배경음악(통일과 관련된 음악)-축제 분위기 조성 ● 통일촌극(북한의 언어 체험, 이산의 아픔, 이념의 갈등, 북한의 중학교실 모습 등을 나타낼 수 있는 10분 정도의 콩트)-6개팀 참가 ● 개인별 장기 자랑-노래, 춤, 성대묘사, 통일에 대한 노래	촌극, 장기 자랑은 입소 전에 신청을 받아 사전 연습을 하였음	20:00~21:30
통일의 다짐대회	● 촛불의식	초, 음악	21:30~22:00
통일 한마당	● 캠프파이어(시나리오 생략)	음악 불꽃놀이 용품	22:20~23:10

다) 통일달리기 대회

광주에서 평양까지-통일을 이루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의미로 달리면서 허들 넘기, 매트 위에서 구르기, 뽀뽀 넘기. 그물 속 뚫기 등을 이어서 달린다. 참가학년 3학년 230명

(라) 체험활동 4 - 학교 축제를 통한 통일교육

학교 축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잠재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축제기간 중 통일에 대한 전시회, 통일에 대한 촌극, 통일에 대한 OX퀴즈 대회, 통일노래 부르기 대회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북한에 대한 이해 및 통일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 1) 일시 : 2000. 10. 26
- 2) 장소 : 본교
- 3) 참가대상 : 전체학생 646

<학교축제에 참여한 통일프로그램>

종목	참여 인원	활동내용	지도 교사	비고
통일연극	15명	연극부. 북한중학생이 무등중학교에 진학와서 일어나는 일을 공연하였다. 공연시간 25분	최수진	
통일노래 부르기 대회	전교생	반별로 통일 노래를 준비하여 합창대회를 실시함. 17개 팀 참가	이은덕	
통일 OX 퀴즈 대회	"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에 대한 상식을 OX퀴즈로 문제를 제시하고 중간에 탈락한 학생은 제외하고 마지막 챔피언이 탄생할 때까지 경기를 진행하였다. 소요시간 약120분	최규삼	
통일에 대한 촌극	연극반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끼를 발휘하여 4개 팀이 공연함 (남북한의 언어의 차 에서오는 오해 등)	김수진	
통일에 관한 시화전, 포스터, 표어대회	전교생	평소 미술시간에 틈틈이 제작한 시화전, 표어, 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함. 총 115점 전시	이장경	

(마) 체험활동 5 - 북한영화감상을 통한 통일교육

북한영화감상을 통해 북한의 실상 및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한관에서 상영하는 북한영화를 여름방학동안에 감상하고 과제로 영화감상문 1편씩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 1) 일시 : 2001. 7.14(토) ~ 2001. 8. 25(토)
- 2) 장소 : 광주광역시북한관
- 3) 대상 : 1,2,3학년 전체(646명)
- 4) 보고서 : 감상문 1편씩 제출

<북한영화 상영 목록표>

상영일시	북한영화제목	관람자수	감상문제출자
7월 14일(토)	「길, (90분)」	13명	8명
7월 21일(토)	「도시처녀 시집와요, (80분)」	17명	15명
7월 28일(토)	호동왕자와낙랑공주(72분)만화영화	89명	86명
8월 04일(토)	금강산으로 가자(75분)	137명	123명
8월 11일(토)	청춘이여(90분)	158명	153명
8월 18일(토)	불가사리(95분)	132명	128명
8월 25일(토)	령리한 너구리(45분)만화영화	53명	49명
		599/645(93%)	562/599(94%)

<영화감상문 예시>

영화제목	북한영화 "령리한 너구리" 를 보고 나서		
2학년	5반	27번	성명 김 소 희
2001년 8월 18일 토요일 수연이와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광주 중외공원 북한관에서 상영된다는 북한영화를 보러 갔다. 솔직히 나는 북한은 우리 보다 못하니까 영화도 못 만들 줄 알았는데, 북한도 영화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몹시 궁금했다.....			

(2) 통일 시사·계기 교육

신문, 라디오, 잡지, TV 등에서 통일교육 내용과 관련된 요소를 찾아 학생수준에 맞게 자료를 선정하고 토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사고의 기회를 갖도록 지도하였다.

시사·계기 교육의 방법으로는 통일학습 코너설치, 통일 스크랩 만들기, 훈화교육, 명상교육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가) 통일교육 학습코너 운영

학생들의 학습 소산물이 통일 스크랩, 글짓기, 포스터, 학습 결과에 대한

느낌, 견학기록문 등을 각 학급 뒤쪽 학습판에 전시하고 토론의 장과 통일 의지력 배양을 위한 코너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통일 스크랩 만들기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으로 보도되는 생생한 통일관련 내용의 기사, 사진, 그림 등을 오려 붙이고 간단한 느낌이나 설명을 쓴 후 학습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수행평가에 반영하였다.

* 통일스크랩 제작 방법 및 내용

제작 방법	내 용	수행평가에 반영
모듬별(4~5명)로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수집하여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해 모듬별로 느낌이나 소감을 쓰도록 하였다.	북한의 현실(정치, 군사, 문화, 경제, 풍습) 북한 학생들의 모습 남북한의 언어 비교 남북협력, 북한의 명승지, 남북한의 공통점	학기별 1회씩 년 2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덕과 수행평가에 100점 만점 중 60점을 반영하였음

(다) 통일 혼화교육

혼화교육은 북한의 실상, 세계정세, 남북경제협력, 통일조국이 미래상에 대한 내용을 매월 첫 주 월요일 애국 조회시 교사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실시하였으며,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들이 보충지도 하였다.

* 통일교육 혼화 목록 (예시)

연번	일시	주 제	담당자	시간
1	3. 5	통일의 의미	최규삼	5시간
2	4. 2	남북한의 언어 풍습의 차이점	최수진	6 "
3	5. 7	경인선 철도 복원공사가 미치는 영향	허진석	7 "
4	6. 4	남북경협외의 궁극적이 영향	박경신	5 "
5	7. 2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	김수진	4 "
6	8. 27	통일한국의 미래상	김옥자	5 "
7	9. 3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현정미	6 "
8	10. 8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	박은영	5 "

(라) 명상 교육

자체 제작한 자료로 통일명상을 매월 2주 월요일 실시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 및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민족공동체의식 고취들을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명상교육 목록표 (예시)

방송순	방송일	방송한 내용	시 간	비 고
1	3. 12	분단과 통일의 교훈	4 "	
2	4. 9	북한을 돕는 방법은?	3 "	
3	5. 14	통일주역의 자세	4 "	
4	6. 11	북한 그들은 누구인가?	4 "	

7.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 특기·적성교육시간을 통한 통일교육의 성과

- (1) 교사들의 72.9%가 특기·적성교육시간에 통일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 (2) 통일교육을 받고 난후 학생들의 79.2%가 북한에 대해 친밀감을 가졌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60.4%가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생각에 72.9%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 (3) 특기·적성교육의 다른 부서에서도 통일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학생의 91.7%가 응답하였고, 지도교사의 71.3%가 통일교육을 다른 부서에서 지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앞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교육이 확대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나.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성과

- (1) 1학년 22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재량활동 34시간중 14시간을 통일교육을 지도했던 교사 모두가 통일교육 프로그램 적용과 활용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4시간의 교수-학습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 (2) 학생의 76.8%가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지도결과 78.5%가 관심과 흥미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교육의 지도 결과

체육대회, 학교축제, 수학여행, 수련회, 북한영화감상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교육이 가능하고 매우 효과적이라고 학생의 87%가 응답하였다.

8.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 특기·적성교육과 재량활동, 행사·체험학습에서 지도할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 교과 외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셋째,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고 북한 동포에 대해 친밀감을 갖게 되었으며,

넷째, 다양한 행사와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고,

다섯째, 북한도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 동질성을 인식하여 통일 이후에 대비한 민주 시민 정신을 함양하게 되었다.

3. 제3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02. 6. 12(수), 14:00~16:50
- 장소 : 대구고등학교 시청각실
- 참석 : 351명
- 주최 : 통 일 부
- 주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토론 및 사례 발표문

1.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접근방법과 실천방향
(김진학, 대구고등학교 교사) (p.153)
2. 남북이 하나로 만나는 학교통일교육
(이종순, 대구중학교 교사) (p.161)
3.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이국현, 경북대사범대 부설중학교 교사) (p.168)
4. 사회과 교사가 바라본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김갑동, 경북대사범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p.173)
5.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 - 사례
(강우석, 경서중학교 교사) (p.179)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접근방법과 실천방향

김진학
대구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면서

20세기 인류사를 뒤흔든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는 아마도 소련의 해체와 뒤이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동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는 일찍이 마르크스를 비롯한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이 “인간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만인의 자발적인 결사체”를 꿈꾸어 온 사회주의 실험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음을 확연하게 보여준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마저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비록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만든 사회주의 국가는 무너졌지만,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빈부격차 및 문화 실조 등에 대한 항의와 비판으로서 사회주의가 가진 힘은 여전히 가냘프게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반면의 증거로서 최근 사회주의권의 대부분이 붕괴되거나 자본주의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어 온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 이 시점까지도, 북한의 경우는 경제적인 침체의 심화 및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앓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민들이 예전과는 다른 정치적 태도를 보이고 정치적 망명과 탈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내부적으로 휘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금방 붕괴될 것이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사회에서는 주민층으로부터 지배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변화가 마치 숨을 가쁘게 쉬듯이 몰아쳐도 여전히 북한 체제가 광대의 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통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당면 앞에서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통일을 걱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다소 조급한' 통일 논리에 조바심을 내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과열된' 통일 논의의 자세와 태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통일은 아무런 준비와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선물'도 아니고, 시대와 상황의 조건에 따라 우연히 발생하는 '역사의 사건'도 아니다. 이러한 맥락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해답들이 많은 통일문제 전문가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 입각한 방법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의 법적, 제도적인 노력이 보다 직접적이고 시급하며 중대하겠지만, 너무나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혼자만의 노력이나 의지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쌍방적인 문제이기에 너무 서둘러서 후회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그보다는 오히려 돌아가는 듯한 답답함은 없지 않지만 국가 백년지계라고 하는 교육 분야에서 바람직한 통일 의식과 건전한 통일 가치관 형성의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예컨데, 작년 51주년 6·25전쟁을 맞이하여 실시한 여론 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모 일간지의 다음과 같은 기사 보도 내용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중고생 42%, 6·25 발발 연도 못 맞춰”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한국전쟁 발발 연도를 맞추지 못했으며, 남북한의 통일에도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역사교육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5일 밝혀졌다.

틴 뉴스 매거진 「포브틴」이 지난 5월 10일~16일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는 언제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에 '1950년'이라고 정답을 맞춘 학생은 58%였고, 나머지 42%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는 찬성이 45%, 반대가 40%였으며 나머지 15%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 한 세대 전만 해도 평연으로 받아들여지던 통일 문제가 선택의 문제로 변질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1. 6. 15 ○○○신문』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변화하는 세계 질서,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 그리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상황 속에서 학교통일교육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방향과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이번에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가 현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육 일선현장에 각별한 관심의 초점을 불러 일으키기에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발표자가 제안하는 바처럼 무엇보다도 과거의 냉전 체제가 종말을 고하면서 한반도에서도 서서히 탈냉전의 분위기가 성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통일교육은 변화하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또한 분단 상황과 통일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일 사회에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데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논지의 발표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할 수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 선생님의 논의의 주제는 향후 그 시행 과정상에서 주도면밀하게 연구 보완되겠지만, 일선 현장의 학교통일교육 담당자들에게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학교통일교육의 실천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해 볼 만한 연구과제를 남겨주는 것 같다.

그런데 묘하게도 오늘 이 자리는 이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 대한 지정토론자로서 서다 보니까 학문적 소양이나 실천적 경험이 일천한 탓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논평의 관례에 따라야 하는 처지에 많은 고심을 해 보았지만 선뜻 나서기에는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뜻을 같이하면서, 동일한 차원의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2. 학교통일교육의 변천사

학교통일교육의 전체적인 변천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 실시된 반공교육(미군정기~제4차 교육과정기)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멸공을 통한 통일을 추구해 왔으며, 통일·안보교육(제5차 교육과정기)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동시에 동포애의 양면성을 부각시켰고, 화해·협력시대에 알맞게 개편된 통일교육(제6차 교육과정기)은 199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

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통일교육'이라기 보다는 '반공교육'이 주류를 이루어 북한에 대한 부정,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옹호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교육차원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반공의식을 기초로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판단을 허용하기 보다 규정된 결론을 내면화시키려는 교육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방향의 사고만을 유도하는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북한의 현실이나 통일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교사들은 "이데올로기 교육은 지나치게 체제 옹호적이어서 가르치는 데 애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를 토로하는 점에 비추어봐도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종래의 반공교육이 반공 논의와 통일 논의 사이에서 상호 모순이 나타나고 상충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칭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추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주도록 하는 규범적 접근방법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반쪽으로서 언젠가 합쳐서 같이 살아야 할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등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전제로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1990년대에 들면서부터 앞서 학교통일교육의 규범적 접근 방법이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시각과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을 안고 있어서 북한 사회와 주민들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거나 통일 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통일·안보교육은 다시 통일교육으로 바뀌어졌다.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통일에 비중을 두면서 안보 교육을 통일의 하위 영역으로 지도하게 되었다.

3.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방법

앞서 언급한 종래의 학교통일교육의 규범적 접근 방법이 북한에 대한 규정된 시각을 심어주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배양하려는 정의적 특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규범적이거나 추상적인 교육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관점이 일부에서 야기되면서,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세계 질서,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 그리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상황 속에서 학교통일교육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방향과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의 학교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규범적 접근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객관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통일교육은 북한 사회의 실상과 변화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한반도 주변의 역동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초 위에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대응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발표자가 밝힌 '행동을 보다 강조하는 이념적·실천적 접근법'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둘째,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려면 모든 교과에 걸쳐서, 특별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다루도록 확대해야 한다.

발표자도 "현재 중등학교 영어교과서 안에 이산가족이나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의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고, 사회 과목에도 북한 관련 부분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고 토로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하지만 통일관련 교과를 모든 교과로 확대하여 각 교과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지식, 가치관, 태도를 포함하는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포괄하여 다루도록 해야 하며, 교과 이외의 각종 과외 활동을 통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의 단체활동, 현장학습, 유적지 답사와 같은 행사활동에서도 백두산이나 금강산 체험을 하게 한다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소재는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문화-전통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 생활과 가족관계, 학생들의 생활, 또는 자연 지리나 관광 자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 내용은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기에 일상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서 체험의 대상이거나 실천의 내용이 될 수 있어 학교통일교육과 관련지어 볼 때, 북한을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비슷한 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도 막연하고 거창한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발표자가 “일선학교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온고지신의 접근 방법, 즉 우리 민족의 생활 양식 중 ‘평화애호’, ‘상호부조’, ‘경로효친’ 등 승계하여야 할 가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같은 맥락이다.

4.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학습 방법

학교통일교육의 수업 방법은 도덕 윤리과 또는 사회과에서 구안되고 있는 탐구학습 모형-집단탐구 수업모형, 개념 수업모형, 비교분석 모형, 가치명료화 모형, 판단력 증진 모형, 문제해결 학습모형, 프로젝트 학습모형, 토론편 학습 모형 등이 유용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체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이러한 수업 모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통일교육의 수업은 강의 일변도의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금번 7차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해 교과 시수는 축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나 재량활동 시간에 통일교육이 포함될 수 있어 수업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 정상화

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대입수능시험에서의 통일관련 문제의 출제 비중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물론 이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북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의 학교통일교육은 ‘열린’ 학습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열린’ 통일교육의 학습방법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원리에 기초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통일 환경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능동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학교통일교육은 다양한 주장과 개방된 논의를 허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문제 사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수업 목표는 변화하는 사태에 대하여 열려져 있는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남북한의 차이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은 우리와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불편한 측면도 있지만 편안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길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발표자가 “통일교육은 암기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이해에 바탕한 문제해결 능력 배양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수업 내용은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교과서의 지식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북한의 현실에 관한 사실적인 정보와 통일문제와 관련되는 시사 정보 등을 다양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고정된 정보로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은 통일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범주를 삼되, 교과서 지식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융통성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수업 방법은 하나의 고정된 틀이 있기보다는 학습 장면과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수업기법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수업 모형들을 응용하여 새롭고 참신한 수업방법을 구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발표자가 "학교 교육현장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포용 정책을 설명하는 경우에 고려 통일을 이룬 왕건의 정책을 논의 주제로 삼아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우리 역사를 이용한 통일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한 수업 기법들이 적용되든 간에 수업 과정상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의미에서 하나의 대안을 소개하는 데 불과하다.

먼저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토의를 통하여 수업 주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주제에 알맞은 학습자료를 신문 잡지, 관련 서적, 뉴스의 보도 내용, 또는 관계자와의 면담,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스스로 수집하도록 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학생들이 탐독하고 그 내용을 발표한 후 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토론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방적으로 논의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세심한 교육적 지도가 요구된다. 예컨대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어떠한가?"라는 주제의 경우, 북한의 식량 부족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북한을 도와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와 줄 필요가 없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만약 지원할 경우의 의미와 문제점, 또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의 의미와 문제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줄고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다시 한번 발표자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남북이 하나로 만나는 학교통일교육

이 종 순
대구중학교 교사

I. 들어가기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남북 정상이 서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정상회담을 한 후 발표된 「6.15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에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천만 이산가족과 국민들은 머지않아 곧 통일이 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언론과 TV를 통해 여과 없이 비춰진 '김정일'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김정일 신드롬'현상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갑습니다', '휘파람' 등의 노래가 공중파를 타면서 쉽게 청소년들 사이에 파고들었다.

지금까지 우리 통일교육의 목표는 勝共, 反共, 安保, 統一·安保, 統一教育 등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면서 그 시대적 특성들을 반영하여 왔고 그 때 마다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조금씩 변화 발전해 왔으나 이렇게 갑자기 던져진 문화적 충격 앞에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레드아노미(대북 인식의 혼란)라는 말까지 생기게 한 이런 사회 심리의 바닥에 흐르는 변화를 촉자는 바로 「정보의 개방」이라 한다. '북한 지도자'의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TV 뉴스시간에 생생하게 보도됨으로써 사람들은 '괴팍하고 난폭하며 독선적인 독재자'의 모습이 아닌 호탕하고 격식을 따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김정일 이미지'를 뒤흔들어 버린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자칫 지금까지의 학교통일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내용은 어느 정도 정선된(?)내용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교육방향을 전환하고 정보를 공개하느냐?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물론 과거보다 인터넷, 신문, TV 등을 통하여 열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갑자기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이 모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 통일교육의 이중부담을 論考에서는 우리의 통일문제의 이중성 (학교 통일교육의 이중성)이란 단어로써 해석하고 있다. 즉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을 경계의 대상(適)과 화해·협력의 대상(同胞)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장차 통일 과업을 수행해야 할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을 바르게 알게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동시에 더불어 살아갈 동포로 북한을 포용하고 겨안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이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학교통일교육 지침

먼저 학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방침을 간단히 소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학교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1)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른다.

2. 통일교육 방침

가. 민주 시민 의식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나.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주민 생활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도록 한다.

다. 남북한의 불신과 대결을 불식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1) “대립에서 화합으로”, 2001 통일교육 지도자료, 중학교,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라. 통일 환경과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도록 한다.

마. 우리 사회의 화합과 남북한 협력을 실천하는 평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3. 통일교육 실천방안 :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 능력 배양

가. 북한사회와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남북한 사회에 대한 비교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통일환경의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수용하여 북한의 현실과 통일문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 남북한 사회의 객관적 비교를 통한 인식은 민족의 역사적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의 분단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갖도록 하고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발문전략을 활용한다.

Ⅲ. 학교 통일교육의 실제

1. 公敎育의 체계성과 객관성 유지 2)

지금 우리는 분명히 분단된 국토에서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 경계를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의 상봉이 몇 번 있었지만 여지없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울면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지금까지의 과거를 모두 잊고 무조건 북한을 미화하거나, 6. 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까지 뒤바꾸는 罫는 범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성급하게 통일을 앞당기려는 태도나 낙관주의적·감상주의적 통일관, 지나친 이념논쟁 등은 모두가 통일의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냉철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탈북자, 이산가족 문제, 남

2) 이창렬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북한 경제·문화 협력 등)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통일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이 자칫 우리만 손해보고 북한에 '마구 퍼 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에 대한 회의와 우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베푼 수혜의 댓가를 너무 빨리 보상받으려고 한 탓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 통일교육의 公教育的 특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되 교수방법에서는 새로운 모형의 적용을 통한 탄력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 '마음열기' 교육과 '서로 다름'을 이해시키는 통일교육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 온 사람들이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공산주의는 바로 適이고 화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50여년을 살아온 지금, 남과 북은 과연 마음을 열고 합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에 대한 해답은 몇 차례에 걸친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이나, 스포츠 문화·경제, 언론단체 교류 등에서 충분히 지워질 수 있었다. 그곳에는 理念도 체제도 없고 오로지 韓民族, 우리 동포, 부모, 남편, 형제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면 전쟁을 겪지 않고 이산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나와 더불어 살아갈 동포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가? 통일이 되었을 때를 想定해보고 북한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 할 수 있음을 역할놀이 등을 통해 연습해 보게 할 수도 있다.

북한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가슴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열기 교육'과 반세기 동안의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살아온 현실을 인정하는 '다름을 인정'해주는 내용의 통일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통일교육의 방향은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은 언젠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할 내 민족, 내 동포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 문화, 제도 등에 대한 탐구 기회를 부여하고 북한관광 가상 체험, 가상 통일 뉴스, 통일 지도 그리기, 북한 친구에게 편지 쓰기, 공익광고 제작, 역할놀이 학습, 통일 노래 만들기, 도전 통일벨 등의 다양한 학습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을 동포로 보다 더 가까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교육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

가. 통일관련 시사 자료의 활용

(1)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와 시사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통일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 시사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는 북한 사회의 현실 주민의 학생생활, 생활관습, 전통문화 등을 소재로 하는 것이 좋다.

시사자료를 활용한 수업은 일정한 학습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각종 시사자료를 학생들이 직접 수집한 다음 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1)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통일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임진각, 통일전망대, 땅굴, 철의 삼각지 등)

(2) 현실적으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의 실험형태(이산가족 등 모의 역할놀이)로 간접 체험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다. 생활문화를 소재로 하는 교육

(1) 북한주민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와 생활에 관련되는 소재,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남북한 주민들의 차이점,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예상하여 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게 한다.

(2) 남북한의 생활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름과 같음의 이해를 통해 장단점을 평가하고 종합하여 바람직한 통일 문화를 창조하도록 한다.

라. 대화와 토론을 통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이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협동학습의 수업을 전개한다.

마. 시청각 기자재와 컴퓨터의 활용

북한과 통일에 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조사해 보도록 한다. 특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나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을 체험하게 할 수 있으며 북한 실상에 관한 정보사냥대회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4. 통일교육 지도상의 유의점

오늘날의 학생들은 미래의 통일 주역이므로 교사는 다음 내용을 특히 유의해서 지도하도록 한다.

가. 주인정신을 갖도록 하자

나. 강한 의지력을 키우게 하자

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자

라.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자

마. 세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해서 냉정하고 예민하게 다른 나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통일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남북분단의 원인과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통일문제는 분명 우리 문제이지만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으므로, 우리는 주변국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무조건 외세라 하여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통일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이끄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을 기르자

“통일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통일이 되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나?” “지금 이대호가 더 좋다.” “통일되면 못사는 북한 주민을 위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처럼 ‘통일에 대해 관심 없다’는 청소년이 의외로 많아 학교통일교육의 難題로 남아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아껴주고 남을 배려할 수 있으며, 내 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한 동포로 생각하고 동포애를 가지며 사랑을 나눌 때 통일국가 성취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이룩될 것이다.

사.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갖도록 하자

북한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이상의 화해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단순히 '물자의 나눔'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동포애'도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나눔'도 전달하여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화해 의식을 싹트게 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제언

학교 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반영 강화로 수능시험에 출제되거나 범교과에 걸친 통일교육이 필요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말미암아 실제 바람직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통일과 관련하여 다루는 내용의 깊이나 폭의 문제에서도 공교육인 학교 교육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은 교과지도 내용과 별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윤리과 캐비닛에 보관용으로 전락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급된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³⁾는 교사들이 교과시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일 교육 교재로 수업 모형과 지도안, 학습자료가 함께 개발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통일교육 담당자들에게는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등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항상 최신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또 교사로 구성된 금강산 견학이나 북한 학교 방문 등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살아있는 통일교육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3) 오기성,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 2002,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이 국 현

경북대 사범대 부설중학교 교사

현 정부의 출범이래 지속적인 포용정책의 추진 결과 2000년 6·15정상회담과 1, 2, 3차에 걸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2001년 남북관계의 소강상태, 2002년 4월 제4차 이산가족 상봉, 최근의 아리랑 축제 등의 남북관계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변화가 심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일선교사들이 함께 하여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이란 주제로 통일부 이창렬 정책2담당관으로부터 강연을 듣고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저는 학교통일교육 담당자로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애로사항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주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1. 학교통일교육의 실제와 통일교육의 전제에 대하여

가. 현재 일선학교에서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절한 자료가 부족하고, 한편으론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자료들의 활용으로 인한 혼란의 발생이란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예를 들면 평양의 인구가 얼마인지? 북한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실상이 어떠한지? 이런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의 입수가 어려우며, 구체적인 홍보자료나 지침이 없다. 자칫 교사의 개별적인 열정이나 노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기에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이나 통일환경의 변화,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

과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일관된 정책이 입안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지난번 6·15공동선언에서 밝힌 통일방안(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견해)에 대한 남북의 이견이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 이견 등은 결국 정당을 넘어서는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학교통일교육의 범주에 대하여

가. 통일교육의 법적인 토대가 통일교육지원법(1999.2)이며,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의 확립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으로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각종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근거 마련, 통일교육에 대한 물적 인적 자원의 배분을 가능케 한 점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70년 8·15선언 이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통일방안은 이미 이런 토대 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3.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에 대하여

가. 학교교육과정에서의 반영 강화에 대하여

통일교육 수업 시수가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축소되었으나, 다른 요인으로 더 다양하게,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업 시수의 단축(도덕 중2년 : II-4, 고1년 : II단원)으로 학생들의 통일교육 기회는 줄어들었으며, 그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재량활동 시간의 최대한 활용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염려가 된다. 본교의 경우 1, 2학년 각 34시간 중 통일교육에 할당된 시간이 4시간씩에 불과하다.

그리고 범교과적인 통일교육의 실시도 범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일교육의 기회 확대와 병행하여 실시될 때 그 효과가 있으리라 생

각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탄력적인 교과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통일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대하여

학교교육현장에서 교과내용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기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사이버자료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공유가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센터(uniedu.go.kr)나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와 각종 언론사의 사이트에 많은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탑재되고 있어, 교사의 관심에 따라서는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뜻이 있는 모든 교사가 보다 손쉽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의 제작·보급은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나 적절한 자료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은 그만큼 통일교육의 비중이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다. 학교교육현장에서의 합의 도출 노력에 대하여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및 분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학교 내 교장과 교사 등 일선현장 교육자간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통일교육의 방향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6·25 기념 노래를 방송하는 문제로 학교 내 갈등이 있었다거나, 남북정상회담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김대중 대통령이 뒤에서 미는 형태의 그림을 교실 뒤에 전시하는 문제, 북한노래 '반갑습니다'의 사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는 한편으로 매우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싶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통일문제에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기

우이길 바라는 심정이다.

학교통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행정당국과 전교직원의 공감대가 실질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학생들의 통일후계세대 의식 함양에 대하여

통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통일무관심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개선(다양한 행사활동의 지속적인 추진-통일퀴즈 대회, 통일노가바 대회, 통일성금 마련 바자회, 안보강연, 각종 영상매체의 보급-과 현장체험학습-판문점 견학, 금강산 관광, 전방 부대 견학, 승공관 방문- 등의 활성화)과 학교통일교육과정상의 통일단원 비중 강화, 교육당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필수 과제이다.

본교는 2001~2002년도에 걸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정, 후원하는 통일시범학교이다. 이를 위해 본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관련 교과교육의 철저(통일스크랩북의 작성 활용-수행평가 반영), 통일 환경의 조성(교실 뒷면 및 현관, 복도에 통일교육 코너 설치), 클럽활동 부서(통일교육반) 운영, 다양한 행사활동의 추진 등이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전교직원 나아가 학부모들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 교사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갖고 임한다.

아울러 통일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는 북한의 조기 붕괴론에 따른 사회적 혼란,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업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정부의 포용능력 신장, 국민의 의식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정부도 연착륙에 반하는 갑작스런 사태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4.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의 제시

가.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확대를 위한 수업 시수의 증강이나 범교과적인 통일교육의 확대 방안, 범교과 교사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일관된 통일정책의 수립과 실천, 이를 가능케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각종 통일교육 자료의 발간, 보급 등)

다.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탄력적인 교과운영과 열성이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통일의를 불러일으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과 교사가 바라본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안

김 갑 동

경북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1.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2000년 6월 13일 남북의 정상들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 국민 모두는 감격하였으며, 세계인들도 주목하였다.

특히, 물질 중심 사고와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통일에는 무관심한 세대인 학생들이 양측 정상이 상봉하는 장면 등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보면, 정치·이념적 체제 비교에 치우친 통일 교육으로는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북한 사회가 노출되자 학생들은 기존의 이질감이나 적대감 대신 다른 시각으로 북한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은 이제 민족간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학교 통일 교육을 이끌어 갈 대부분의 교사들은 분단과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통일 교육에 대해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통일에 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 명쾌하게 인용 또는 활용할 학습 자료 및 교재의 부족으로 애로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주제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분명한 것은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는 대립에서 화합으로, 긴장에서 평화로, 분단에서 공존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분단 이후의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통일 교육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통일과 관련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일반사회 영역 분석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에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두 개의 대단원 중 하나의 대단원이 통일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이다.(전체 200p 중 100p)

그러나,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시수는 줄어들어(주당 1시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통일 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본다. 도덕 교과와 더불어 통일 관련교과인 사회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은 양적, 질적으로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내용 구성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내용 구성을 보면 도덕 교과서처럼 다양한 자료가 곁들여진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의 지속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일반사회 영역에서 통일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판사	일반사회 영역 (분량)	통일교육 관련내용 이실린곳	관련 단원명 및 내용	자료의 종류
대한 교과서 (주)	152p~322p (170p)	167p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특징과 시민 사회의 발전 방향→집중탐구→우리 나라 시민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열린과제3	· 인터넷사이트
		191p	국가권력과 시민의 권리→열린과제4	· 인터넷 사이트
		277p	한국 사회 변동의 특징과 문제점→집중탐구→열린과제1~4	· 사진(분단에서 오늘까지)10종 · 지문(남북의 언어)
법문사	178p~343p (165p)	209p	수행평가 과제	· 도표(남북관계에 대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에 관한 내용)
		258p	· 사회적 쟁점의 경제적 측면→남북정상회담	· 사진 1종
		302p	· 사례탐구2. 남북한 청소년의 차이	· 사진 2종

출판사	일반사회 영역 (분량)	통일교육 관련내용 이실린곳	관련 단원명 및 내용	자료의 종류
(주)도서 출판 디딤돌	166p~304p (138p)	292p	· 남북통일에 대비하자 · 독일 통일에서 얻는 교훈	· 사진 2종 · 사진 1종 및 실문조사 결과
(주)두산	154p~297p (143p)	286p	· 한반도 통일	· 인터넷 사이트
		287p	· 탐구활동→독일과 우리 나라의 통일	· 사진3종
		288p	· 보충자료→통일 후 독일	· 신문 기사
(주)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174p~339p (165p)	185p	· 민주 시민 사회의 건설	· 사진 1종
(주) 지학사	166p~319p (153p)	288p	·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한 노력 →탐구 활동	· 사진 1종
		306p	·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제	· 사진 1종
		307p	· 탐구활동→통일국가의 미래 뉴스	· 사진1종 및 관련 방송 대본

3. 사회과 교사가 바라 본 학교 통일 교육의 실천 방안

가. 사회 교과서의 통일 관련 내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국정교과서인 6차 교육과정 공동사회(상) 일반사회 교과서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이 전체 260p 중 12p(221p~232p)분량으로 양적으로 약 4.6%가량 차지한데 비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 사회과(일반사회 영역) 교과서에 수록된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이 0.6%<(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2.1%<(주)두산>로 양적으로도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물론 효율적인 사회과의 통일 교육을 위해서는 양적으로 통일 관련 내용이 많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통일에 관한 내용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어야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관련 내용이 있어야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현실성과 시사성이 있는 풍부한 자료를 준비하여 생동감 있는 수업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흔히 통일 관련 교과로 불리우는 도덕, 사회 교과뿐만 아니라, 통일 교육을 각 교과 특성에 맞도록 내용을

개발하여 반영하는 범교과적 접근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통일 관련 교과서 내용을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회 교과서에는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이 전체적으로 내용 구성이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과에서는 도덕 교과처럼 통일에 관한 단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 단원별로 골고루 통일에 관한 내용을 도덕 교과서와 중복이 안되도록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과는 세부적으로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야별로 북한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의 자료를 교과서에 반영하여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일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남북한 체제 비교, 통일 정책 등 지루하고 딱딱한 무거운 담론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교과 내용은 학생들이 통일에 관해 관심을 잃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 묘사 등 생활문화적 접근을 통해 남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통일 국가가 건설됐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다. 시험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교과의 내용이든지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상당히 힘든 실정이다. 6차 교육과정 공동사회(상) 교과서처럼 통일 관련 내용이 교과서의 거의 마지막 단원에 실리면 시험에 출제할 기회도 없고, 교사들도 학년말 업무 처리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보니 통일 관련 내용을 소홀히 다루기 쉽다.

따라서 통일 관련 내용을 전 단원에 걸쳐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통일 관련 내용이 시험에 1년 동안에 4차례(1학기 1·2차 고사, 2학기 1·2차 고사) 출제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현재 대입 수능 시험에 꾸준히 출제하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 있는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다양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재량 활동 시간 활용

현재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에는 교과 재량 활동 10단위와 창의적 재량 활동 2단위가 배정되어 있어서, 교과 시수의 부족을 이 재량 활동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재량 활동이 도덕 교과에 할애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이 방안 역시 통일 교육을 위해 쉽게 확보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서 수요자인 학생들도 통일에 무관심하여 선택을 별로 하지 않고, 재량 활동 담당 교사도 일반적으로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에게 돌아가므로 담당 교사의 과목 및 관심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고 가르치기 쉬운 과목에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재량 활동을 통해 통일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면 충분한 토론 및 학계의 검증은 마친 다양한 통일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즉, 교사들에게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통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제공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남북 화해 협력시대의 통일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 문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방안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마. 통일 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학생들은 통일에 관한 내용을 수업 시간보다 신문, TV등의 언론 매체에 서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전반기에 우리 언론에서는 독일 통일 후의 경제적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에게 통일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은 다양한 채널로 남북관계를 접하고 통일에 관해 수업 전에 이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일의 당위성과 같은 추상적인 비전의 제시만으로는 학생들의 관심을 고양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학교 외에 언론, 가정 등 다양한 사회 교육 매체와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 교육의 자료로 시사적인 자료의 활용이 좋은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일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관련 단체의 검증을 거친 후 학교 현장에 제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습 자료를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한 통일 교육의 내용은 시의 적절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도 반감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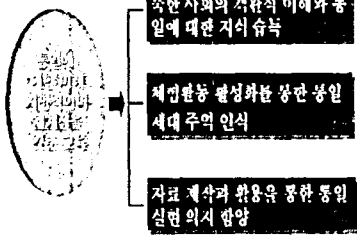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통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통일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안보와 화해협력의 이중성, 민족 문제와 국제 문제의 이중성, 통일 환경의 변화 이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시사 자료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통일 의지를 함양하고, 공교육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정부 및 언론 매체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일 교육 연수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자료의 활용을 통한 인식의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강 우 석
경서중학교 교사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1	<p>대구광역시교육청 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 보고회</p>  <p>2001. 10. 29. (월) 경 서 중 학 교</p>	<p>안녕하십니까? 경서중학교 교사 강우석 입니다.</p> <p>지금부터 대구광역시교육청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사례를 파워 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p>
2	<p>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를 통한 통일 실현 의지 함양</p>  <p>2000. 3. 1. ~ 2002. 2. 28.</p>	<p>본교는 2000년 3월 1일부터 2년간 『북한실상의 객관적 이해를 통한 통일 실현 의지 함양』이라는 주제로 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p>
3	<p>보고 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의 개요 이론적 배경 운영의 설계 운영의 실제 운영의 결과 및 해석 결론 및 제언 	<p>보고 순서는</p> <p>운영의 개요 이론적 배경 운영의 설계 운영의 실제 운영의 결과 및 해석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p>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4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의 개요</p>	<p>먼저 운영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5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의 필요성</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교육 수업지도 방법 개선 및 학습자료 개발</p>	<p>운영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 주변 국가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힘입어 통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도록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며,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업지도 방법 개선 및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시켜 나갈 필요성을 느껴 본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p>
6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의 목적</p> 	<p>다음으로 운영의 목적은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성을 갖춘 교육을 통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사회의 객관적 이해와 통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통일 세대의 주역임을 인식시키며 ○ 자료 제작과 활용을 통하여 통일 실현의지를 제고시키는데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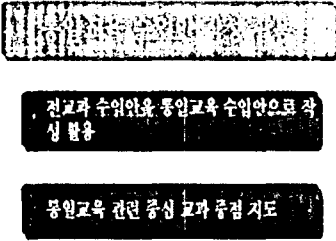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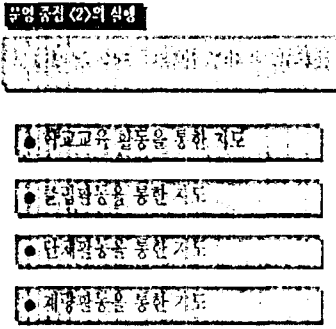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7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 범위</p> <p>교과활동은 전학년 전 교과 중심</p> <p>체험활동은 학교행사, 클럽활동, 단체활동 중심</p> <p>통일교육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환경구성</p>	<p>운영의 범위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활동은 전 학년 전 교과중심으로 ○ 체험활동은 학교행사와 클럽활동,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 통일교육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환경구성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8	<p style="text-align: center;">이론적 배경</p>	<p>그리고 본 시범운영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는</p>
9	<p style="text-align: center;">분헌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통일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 통일실현 의지 함양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통일교육 이론적 지도방법 </div> </div>	<p>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 결과 먼저 통일 교육의 목표 및 기본 방향과 통일교육의 이론과 지도방법에 대한 관련 이론을 탐색하였으며, 또 본 시범운영과 관련된 선행연구 내용도 분석하였습니다.</p> <p>그 결과 통일교육을 통한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와 통일 실현 의지 함양의 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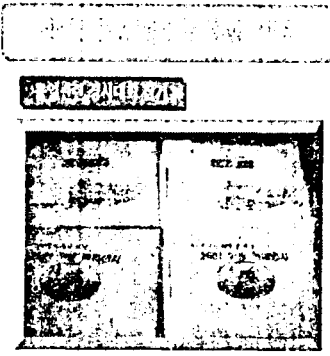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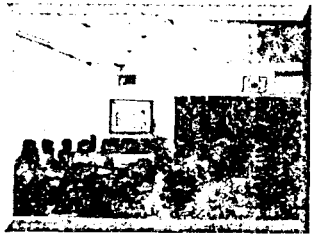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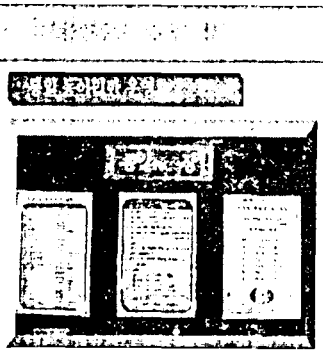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10	<p style="text-align: center;">실태 조사 및 분석</p>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직원 ● 학부모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응답 ● 빈도 분석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분석 및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동일체에 대한 관심 부족 통일교육의 다양한 방법 요망 ● 교사·다양한 수업 지도 방법 자료 개발 및 활용 ● 학부모·동일체에 대한 관심 제고 거점지의 연계 지도 </div> </div>	<p>실태조사 및 분석에서 대상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 응답에 의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p> <p>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통일교육의 다양한 방법이 요망되었으며,</p> <p>교사는 다양한 수업 지도 방법과 자료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며 학부모는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p>
11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 중점</p>	<p>이상 운영의 필요성과 목적, 실태 분석을 통하여 설정한 운영 중점은</p>
12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운영 중점 <1>의 설명</p> <p>통일교육 수업안을 적용한 교과교육 활동 강화</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운영 중점 <2>의 설명</p> <p>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구안 및 활성화</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운영 중점 <3>의 설명</p> <p>자료의 제작과 활용을 통한 통일 의지 고양으로 설정하였습니다.</p> </div>	<p>운영중점<1>은 통일교육 수업안을 적용한 교과교육 활동 강화</p> <p>운영중점<2>는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구안 및 활성화</p> <p>운영중점<3> 자료의 제작과 활용을 통한 통일 의지 고양으로 설정하였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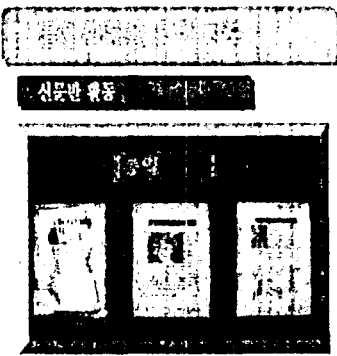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13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의 설계</p>	<p>다음은 운영의 설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p>
14	<p style="text-align: center;">대상 및 기간</p> <p>대상 </p> <p>기간 </p>	<p>대상 및 기간에서 대상은 본교 전교생 244명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2000년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p>
15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의 절차</p> <p>1차년도 </p> <p>2차년도 </p>	<p>운영의 절차는 1차년도에 계획 수립 및 전개 중심으로 2차년도에 발전, 심화 단계인 실행을 통하여 운영의 결과 분석 및 일반화 추진에 두었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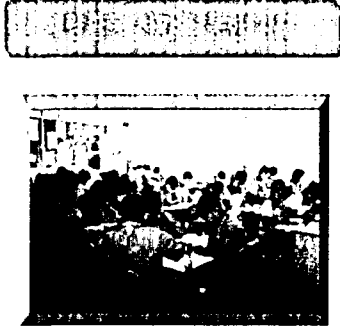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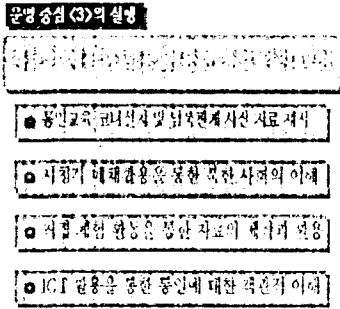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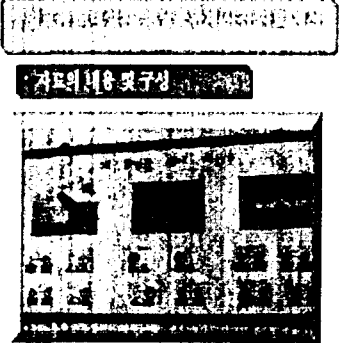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16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의 실제</p>	<p>다음은 운영의 실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17	<p>운영중점 <1>의 실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분석 및 ○ 관련교과 학습 내용 구성 ○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활동 강화 ○ 통일교육 관련 수업 모형 및 방법 구안, 적용 ○ 통일교육 수업안 작성하여 활용하였습니다. 	<p>운영중점 1의 실행 : 첫 번째 운영과제인 <통일교육 수업안을 적용한 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서</p> <p>첫째, 교육과정을 분석 둘째, 관련교과 학습 내용 구성 셋째, 통일 교육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활동 강화 넷째, 통일교육 관련 수업 모형 및 방법 구안, 적용 다섯째, 통일교육 수업안을 작성하여 활용하였습니다.</p>
18	<p>교과별 통일 교육 내용 체계</p> <p>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중학교 통일교육 내용요소 <국사, 사회, 통합></p> <p>제7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지도 방안</p>	<p>먼저 교육과정 분석에 있어서 교과별 통일교육 내용 체계는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통일 대비 교육과 국가 안보교육에 중점을 두며,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중학교 통일내용 요소는 남북한 화해, 협력, 평화 실현 의지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북한 실상을 바로 알게 하여 열린 안보 개념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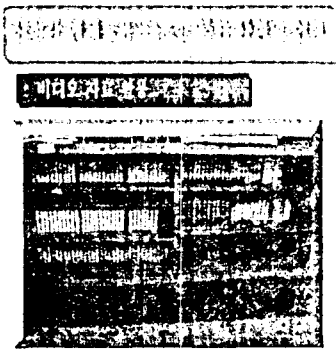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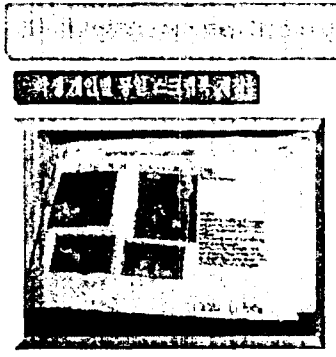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19	<p>관련 교과 학습 내용 구성은 국어 교과에서 남북한 언어 차이 등, 도덕 교과에서는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북한에 대한 가치 갈등등, 사회 교과에서는 남북한의 인구 분석,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통일 정책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p>	<p>관련 교과 학습 내용 구성은 국어 교과에서 남북한 언어 차이 등, 도덕 교과에서는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북한에 대한 가치 갈등등, 사회 교과에서는 남북한의 인구 분석,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통일 정책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p>
20	<p>통일 교육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해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원 1인 1연구, 방학 중 통일 교육 관련 자가 연수, 전문기관 및 선진지 학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p>	<p>통일 교육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해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원 1인 1연구, 방학 중 통일 교육 관련 자가 연수, 전문기관 및 선진지 학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p>
21	<p>통일교육 관련 수업 모형 및 방법 구안·적용에 있어서는 수업기본 모형 및 토의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통일수업 모형을 구안하여, 학생들이 학습 문제를 비교, 분석, 해결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를 확립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습 방법에 대한 적응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p>	<p>통일교육 관련 수업 모형 및 방법 구안·적용에 있어서는 수업기본 모형 및 토의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통일수업 모형을 구안하여, 학생들이 학습 문제를 비교, 분석, 해결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를 확립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습 방법에 대한 적응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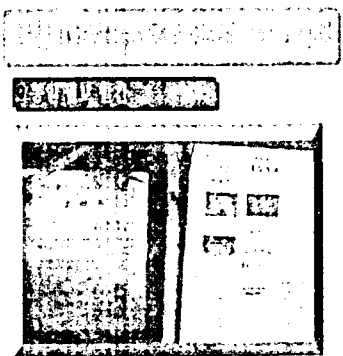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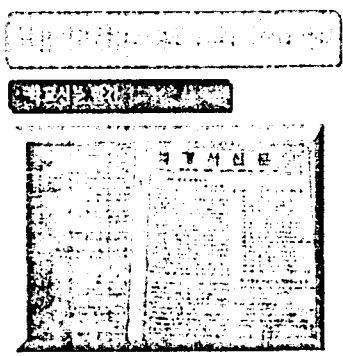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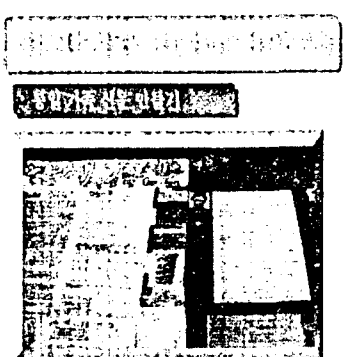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22		<p>통일교육 수업안 작성 활용은 전교과 수업안을 통일교육 수업안으로 작성 활용하였으며, 도덕, 사회, 국어 등 통일교육 관련 중심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p>
23		<p>운영중점 2의 실행 : 두 번째 운영과제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구안 및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학교교육 활동을 통한 지도 둘째, 클럽활동을 통한 지도 셋째, 단체활동을 통한 지도 넷째, 재량활동을 통하여 지도를 하였습니다.</p>
24		<p>학교교육 활동을 통한 지도 중 ·문화 교육은 통일로 미래로라는 자료집은 작성 활용하였고 ·초청 강연회는 탈북 인사 및 6·25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진은 탈북인사 이연실씨를 초청하여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강연회 장면입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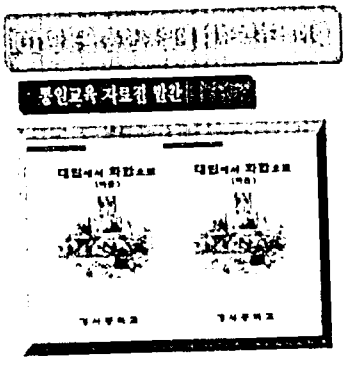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25		<p>통일관련 경시대회는 각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통일 관련 경시 대회 참가 및 교내경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p>
26		<p>현장체험학습은 통일 관련 상설 전시장 및 전국 순회 자료 전시회 관람과 시사성 있는 자료들을 직접 보고 통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지를 기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방송 및 비디오 시청은 통일교육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경서신문 및 학급활동 시간에 홍보하여 시청하게 하고 매주 수요일 비디오 방영 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하였으며 통일 생활본에 소감을 적도록 하였습니다.</p>
27		<p>클럽활동을 통한 지도에서 ·먼저 통일 동아리반 운영은 매주 신문, 잡지, 방송을 통해 접하게 되는 시사성 있는 통일 관련 소식을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늘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통일 웹 코너를 운영하고,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란 자료를 매주 1회씩 만들어 학급에 돌려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 하였습니다.</p>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28		<p>신문반 활동은 학교신문의 경서소식란을 통해 통일에 관한 정보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북한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특집란 통일25시 코너를 운영 하였습니다</p>
29		<p>방송반 활동은 점심시간 교내방송을 통해 북한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쓰기, 통일관련 글짓기 등 우수한 작품을 골라 방영하였습니다.</p>
30		<p>단체 활동을 통한 지도는 현장학습, 봉사활동, 수련활동 등의 활동 시에 통일에 대비한 내용을 정신 교육 및 모둠활동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진은 수련 활동시 모둠별로 통일 관련 자료 제작 및 발표하는 장면입니다.</p>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31		<p>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지도는 재량활동 프로그램 및 자료를 통일시범교육 담당 교사가 작성하여 담임교사가 지도 하였습니다. 사진은 통일 학급회의 장면과 통일스크랩북 만들기 장면입니다.</p>
32		<p>운영중점 3의 실행 : 세 번째 운영과제인 <자료의 제작과 활용을 통한 통일 의지 고양>을 위해서 첫째, 통일교육 코너 설치 및 남북관계 사진자료 게시 둘째, 시청각 매체 활용을 통한 북한사회의 이해 셋째, 직접 체험활동을 통한 자료의 제작과 활용 넷째, ICT활용을 통한 통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도록 지도하였습니다.</p>
33		<p>통일교육 코너 설치 및 남북관계 사진자료 게시에서 ·먼저 자료의 내용 및 구성은 건물 현관 및 복도를 활용 시대별로 구성하여 남북관계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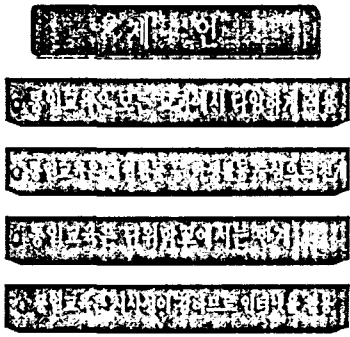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34		<p>다음 통일교육 코너 설치 및 자료제시는 2000학년도에 통일교육 코너 12개, 판넬 50개, 2001학년도에 통일교육 코너 12개, 액자 50개로 교체 설치하여 지도하였습니다.</p>
35		<p>시청각 매체활용을 통한 북한 사회의 이해는 비디오 자료를 교육연수원에서 60개, KBS방송국에서 20개 복사하여 매주 수요일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하였습니다.</p>
36		<p>직접 체험활동을 통한 자료의 제작과 활용에서 먼저 학생 개인별 스크랩북을 제작하여 관련 교과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방학 중 과제물로 제출하여 방학중에도 계속하여 제작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p>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37		<p>통일원보는 매일 발간하여 각 교실에 게시하여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2000학년도에는 통일부 주관 제5회 전국 학교신문 교지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장려상을 획득하였습니다.</p>
38		<p>학교 신문은 매 분기별로 발간되는 학교 신문에 통일 관련 자료를 게재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p>
39		<p>통일 가족 신문 만들기는 한 학기에 1회 과제학습으로 통일가족신문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p>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40		<p>ICT활용을 통한 통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남북한 언어 비교 자료 제작 각 교실에 비치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언어의 통일이 필요함을 지도하였습니다.</p> <p>시사성 있고, 즉시성 있는 통일교육을 위한 NIE 교육으로 PDF 파일을 이용하였습니다.</p>
41		<p>또한 통일교육 자료집을 발간하여 학급에 비치함으로써 통일교육에 필요한 주요 내용, 즉 북한의 가정 생활, 의식주 생활, 가족관계, 생활습관 등 북한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많은 사항들을 접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통일관련 웹사이트 안내를 통해 지도하였습니다</p>
42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의 결과 및 해석</p>	<p>다음은 운영의 결과 및 해석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p>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43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 방법 및 내용</p> <p>분석 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용 통한 빈도분석 <p>분석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활동: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 ● 체험활동:통일세대 인식 변화 ● 자료제작자 활용:통일 의식 변화 ● 통일 실현 의지 고양 	<p>분석 방법 및 내용에서 분석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교과활동을 통해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 정도와 체험활동을 통해 통일세대의 인식 변화, 자료 제작과 활용을 통한 통일 의식 변화를 통해 통일 실현 의지를 분석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p>
44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 결과 및 해석</p> <p>운영중점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필요성 이해에 도움 ● 도의 저습을 통한 판문점에 관심 ● 북한사회의 실상 이해 	<p>분석 결과 및 해석 중 먼저 운영중점 1은 통일의 필요성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토의 학습을 통해 많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북한 사회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45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 결과 및 해석</p> <p>운영중점2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활동:통일 세대의 주역임을 인식 ● 특별활동:통일에 대한 이해와 북한 실상 이해 ● 비디오 시청과 현장 체험 학습이 통일 문제 이해에 가장 도움 	<p>운영중점 2에서는 체험활동을 통해 통일 세대의 주역임을 인식시키고, 특별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이해와 북한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비디오 시청과 현장 체험 학습이 통일 문제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46	<p>분석 결과 및 해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사 자료가 통일 의지 고양에 도움 ● 통일가족, 통일월보, 시청각 자료 등은 북한 이해에 도움 ● 웹 사이트 활용은 거의 도움이 안됨 	<p>운영중점 3에서는 각종 시사자료가 통일의지 고양에 도움이 되었고 통일가족신문, 통일월보, 시청각 자료 등은 북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며, 웹 사이트 활용은 거의 도움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교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컴퓨터 보급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p>
47	<p>결론 및 제언</p>	<p>이상과 같이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를 통한 통일 실현의지 함양이라는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 및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48	<p>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 ● 통일 세대의 주역으로서 책임과 의무 인식 ● 북한 실상과 남북한의 동질성을 인식 <p>통일에 대한 실현 의지 함양</p>	<p>결론은 교과 교육 활동을 통하여 북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했으며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통일 세대의 주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인식시킬 수 있었고 또한 다양한 매체의 제작과 활용으로 북한 실상과 남북한의 동질성을 인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실현 의지를 함양시킬 수 있었습니다</p>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49		<p>다음은 제언입니다.</p> <p>통일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다양하게 적용해야 하겠으며 통일교육은 체험활동 등 학생활동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p> <p>또한 통일교육은 단위학교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통일교육은 시사성이 강하므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p>
50		<p>이상으로 본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사례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4. 제4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02. 9. 27(금), 14:00~16:40
-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강당
- 참석 : 234명
- 주최 : 통 일 부
- 주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토론 발표문

1.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지향점
(김승현, 대전보성초등학교 교사) (p.199)
2. 교사·학생의 통일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윤현수, 대전가양중학교 교사) (p.205)
3.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최현호, 대전어은중학교 교사) (p.216)
4.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신동수, 대전송촌고등학교 교사) (p.224)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지향점

김 승 현
대전보성초등학교 교사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가치의 다양화도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면서 획일적인 사고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통일교육을 깊이 생각하는 교사라면 누구나 고민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은 현재의 불행한 분단 현실이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구하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안에서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통일교육이 얼마나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주제발표를 해주신 차우규 연구위원께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직접 집필하거나 기획하는 핵심적인 일들을 하신 분답게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시하였다.

특히 안보와 화해협력의 이중성 문제에 대한 설명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통일교육과 관련된 제7차 교육과정의 분석, 학교통일교육의 접근 방법과 활성화 방안 등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매우 뜻 깊은 연구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차우규 연구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평할 수 있을 만큼 학교통일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만, 주제발표문에 대해 토론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평소 생각을 피력

하는 선에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1. 주제발표문 중에서 토론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내용과 기대

첫째, 학교통일교육 실천에서의 쟁점들로 제시한 7가지는 통일에 관한 교육을 지도해 본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로 7~8개 과목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다.

둘째, 학교통일교육의 전제로 제시한 모두(冒頭)의 내용은 통일교육을 접근함에 있어서 교사들이 범하기 쉬운 내용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의 이중성으로 제시한 안보와 화해협력, 민족문제와 국제문제, 그리고 안보와 화해협력정책의 현실성과 교육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방안은 학교통일교육의 실천 방향으로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간의 예로 보아 Peace Keeping만 있고 Peace Making이 없으면 남북 간의 군사력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평화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가 제한되고 다방면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교사들에게 정치권에서 합일된 의견 제시를 하지 못할 경우 교사들은 시사성 있는 자료를 교육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기가 어렵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중심교과인 도덕과 사회과의 분석은 통일교육을 담당할 현장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도덕과의 시간이 3학년 이상 학년마다 연간 3시간뿐이라는 점이다.

물론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나, 설문지를 통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면 통일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는 극히 드물어 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소원이 진정으로 통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통일과 관련된 시간 배정이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를 7가지로 제시하면서 목표의 가치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도 예로서 제시하였는데, 이는 통일교육을 하는 교사들에게 관련 제재나 시사 자료를 다루는 안목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통일과 관련된 교과 시간 배정이 증가되지 않고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한 통일교육 목표도 교사들의 머리 속에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차우규 주제발표자께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13가지를 제시하고, 지도 방법도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하위 지도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처지에 따라서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구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3월초부터 현장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고자 여러 교사들이 모여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즘 많은 자료들이 발간되어 학교로 배부되고 있고, 통일교육 관련 인터넷 주소에도 많은 자료들이 탑재되므로 찾아서 활용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주제발표자께서 “자율적 접근”을 설명하면서 예로 든 내용은 기성 세대가 가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개선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 접근에 관한 방법들이 널리 홍보되지 않고는 기성 세대로부터 교육을 받은 젊은 교사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쟁점이나 사례중심 접근에 있어서도 대개 이러한 내용을 상황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지도함에 있어 상황론적으로 보아 바르게 판단할 교사가 얼마나 될까? 또 자신 있게 지도할 교사가 얼마나 될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발표자께서 주장했듯이 교육 내용을 지도함에 있어 의도적이 아니라면 교육 주체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신나고 창의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자께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8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표준 통일교육 교육 과정안의 마련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국민적 합의 혹은 지지 여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바, 보수와 진보적 관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일교육안이 마련되면 교사들로 하여금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지도에서부터 평가까지 일관성 있고, 학교급이나 학년수준에 맞는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준 통일교육 과정안이 마련되지 않고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토론자가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으로,

첫째, TV방송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대중매체인 방송은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본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방송의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TV방송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가상적인 체험까지 할 수 있어 그 효과가 충분하리라 본다.

둘째,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사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토론자는 2001년 초여름 우연찮게 통일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하였다. 그 중 하나가 통일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은 것인데, 연수 프로그램 중 비무장지대인 판문점을 다녀오는 기회가 있었다. 머무르는 시간은 짧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참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 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여름 방학 기간에는 금강산을 다녀오는 기회가 주어졌다. 연수를 받던 중 들은 기쁜 소식은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순간까지 혹시나 하는 생각들로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리 만큼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지만 그 느낌은 나만의 느낌이 아니고 여행객 모두의 느낌인 듯하였다. 선에 가까운 토론자도 북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었기에 느낌은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상황적으로 Peace Keeping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토론자가 교육을 받아서일 것이다. 그 어떤 연수를 받았더라도 이와 같은 큰 느낌이 나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라고 자문하면 답은 NO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현장체험 연수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다.

2.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지향점

초등학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생각되어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지향점에 관해서 평소의 생각을 개진하겠다.

가.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교과 전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정책, 북한 현실 등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경우 통일에 관한 노력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 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은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 면에서는 2학년에서 바른 생활 교과 및 국어 교과에서 일상적인 생활경험과 관련하여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의 염원을 강조하는 내용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정도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본격적인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교과의 국가·민족생활 영역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교육환경이나 제도상에서 지적되는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통일 관련 교과내용이 도덕과에 집중되어 있어 도덕과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통일교육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교과에서는 다루는 정도가 미약하다.

둘째, 통일문제를 다루는 교과내용이 대부분 교과서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학기말이므로 학습효과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통일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수업방법, 통일논의의 분위기, 교수 학습자료 등에 문제가 있다. 수업방법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은 주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 관련 교수 학습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넷째, 교사들의 연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

나.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지향점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반쪽임을 인식시키는 방법이며, 남북한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북한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는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한다.

세계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북한관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학습 과정이 필요

하다. 또한 변화하는 통일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만들어 가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통일교육의 목표는 남북간의 상호 이해와 화해에 중심을 둔 북한 이해 교육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3. 맺는 글

세계사적 흐름으로 보아도 이제 남북한은 동반자로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논의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기뻐하는 통일을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통일이란 이해관계로 인하여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나 경제 체제에 있어서 단일화는 정치가들의 몫이라면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사회나 문화, 가치관 등에서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자들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만 창의성 있는 통일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혹은 지지 여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바, 보수와 진보적 관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일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현장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학생들을 직접 현장 체험을 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관련 교사들부터 현장 체험을 시켜 가슴으로 느껴지는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을 함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는 자료나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통일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흥미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흥미 있는 자료를 투입하면 만족할만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학생의 통일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윤 현 수
대전가양중학교 교사

1. 문제 제기

다시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 통일교육은 언제나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철저했던 시절, 학교통일교육은 사회주의와의 체제우위 경쟁을 선점하기 위한 생존전략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 역시 이러한 남북한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중심의 통일교육을 지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리고 다시 통일의 희망과 통일교육을 이야기한 것은 동구권 공산주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이다. 한반도에서는 2000년 6월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 최고지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환경이 탈냉전 패러다임으로 급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탈냉전의 통일환경에 맞는 새로운 통일교육이 등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그 중요한 역할을 학교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통일논의가 비교적 자유롭게 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학교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공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입시와 진학이라는 현실 앞에서 학교는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경쟁과 성과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내몰려있다. 이런 교육현실에서 통일을 위해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고, 민족의 통일을 생각해보자는 당위적 명제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자문을 해본다.

이 글은 우리 학교의 통일교육과 관련한 의식실태조사를 담고 있다. 이 글이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학교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많은 대안들이 모색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2. 통일의식 실태분석

교육의 목표를 고전적으로 정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라고 할 때,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통일의식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시범학교 운영의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지난 4월에 학생1181명, 교사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통일을 보는 N세대의 특성, 학교통일교육을 보는 교사와 학생의 현격한 시각차이, 그리고 현장의 통일교육이 갖는 문제점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학교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듯 싶다.

가. 통일,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이를 필요가 있을까?

학생들의 평소 북한에 관한 관심정도<표1>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북한이나 통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전체의 1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85%를 차지한다.

<표 1>

구분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은 편이다.		거의 없다.		N
학년별	N	%	N	%	N	%	N	%	N	%	
1학년	18	4.4%	50	12.3%	178	44.0%	81	20.0%	78	19.3%	405
2학년	12	3.3%	35	9.6%	157	43.1%	89	24.5%	71	19.5%	364
3학년	20	4.9%	45	10.9%	160	38.8%	91	22.1%	90	23.3%	412
전체	50	4.2%	130	11.0%	495	41.9%	261	22.1%	245	20.7%	1181

41.9%의 학생은 보통이다 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단원의 순서가 되면 북한을 학습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전체학생의 85%가 북한에 대한 방임과 무관심을 표시한 것은 통일담당 교사들에게는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표2>에 영향을 준다.

<표 2>

구분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통일은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이를 필요는 없다.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통일을 절대 반대다.		관심 없다.			
	N	%	N	%	N	%	N	%	N	%	N	%
1학년	249	61.5%	72	17.8%	32	7.9%	11	2.7%	41	10.1%	405	
2학년	159	43.7%	115	31.6%	21	5.8%	6	1.6%	63	17.3%	364	
3학년	146	35.4%	152	36.9%	44	10.7%	12	2.9%	58	14.1%	412	
진체	554	46.9%	339	28.7%	97	8.2%	29	2.5%	162	13.7%	1181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46.9%의 학생들이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라고 대답했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53.1%를 차지한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고학년일수록 통일의 당위성에 반대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38.5⇒56.3⇒64.6)

저학년일수록 교사의 권위나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지만, 자아의식이 분명해지는 고학년일수록 자신의 주관에 분명히 드러내며, 이 과정에서 당위성의 손실이 발생하는 듯 하다. 물론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 이외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북한정보의 습득량이 많아지는 것도 통일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도 한 원인이 되는 듯하다.

이해타산에 밝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N세대들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 없이 통일문제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교사들은 89%이상이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표3>

<표 3>

남북통일에 대한 선생님의 솔직한 생각은?	①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44	89.8
	② 통일은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이를 필요는 없다.	5	10.2
	③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0	0
	④ 통일을 절대 반대한다.	0	0
	⑤ 관심 없다.	0	0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현격한 차이(46.9%: 89.8%)는 학교 통일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통일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지극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사들의 통일의지가 높다고 해서 통일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수많은 진리를 교육하고 하지만, 그 일부만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통일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의심할 여지없이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면, 학교통일교육의 성과는 반감될 것이다.

학생이 북한과 통일을 보는 시각은 교사의 것과 다르다. 학생들의 통일 의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통일교육에 무관심뿐 아니라 통일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통일을 반대하는 것일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근거는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나.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에 반대한다.

통일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표4>의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은 보기에 대한 고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반복학습 되어온 통일의 당위성을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4>

구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산가족의 고통		경제성장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기타()		N
	N	%	N	%	N	%	N	%	N	%	
1학년	130	32.1%	64	15.8%	125	30.9%	64	15.8%	22	5.4%	405
2학년	83	22.8%	45	12.4%	133	36.5%	75	20.6%	28	7.7%	364
3학년	92	22.3%	66	16.0%	131	31.8%	91	22.1%	32	7.8%	412
전체	305	25.8%	175	14.8%	389	32.9%	230	19.5%	82	6.9%	1181

응답 중 전쟁불안감 해소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분포 14.8%를 보였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전쟁이나 전쟁위협을 전혀 실감하지 못한 전후세대인 점이 반영된 듯 싶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최대의 피해자는 여

성과 청소년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점,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 그리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의 상처를 간과하는 듯 싶다.

주목해 볼 것은 통일의 이유로서 19.5% 반응을 보인 경제발전과 민족의 발전이다. 이 문항에 대하여 고학년일수록 수치가 높은 반면에 이산가족나 한민족이라는 당위적 근거에 대해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반응이 낮았다.

학생들은 통일문제를 규범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이고 이해 타산적이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제적 현실적 통일 접근방법은 통일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표5>라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발견된다. 다른 것보다도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이 어렵다라고 29.7%의 학생들이 반응했다.

<표 5>

구분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남북한의 이념차이		남북 당국의 통일외지 부족		주변국의 이해대립		분단으로 인한 사회 문화적 차이		막대한 통일 비용		N
	N	%	N	%	N	%	N	%	N	%	
1학년	-	-	77	19.0%	82	20.2%	51	12.6%	121	29.9%	405
2학년	3	8%	70	19.2%	65	17.9%	45	12.4%	109	29.9%	364
3학년	-	-	78	18.9%	75	18.2%	47	11.4%	121	29.4%	412
전체	3	3%	225	19.1%	222	18.8%	143	12.1%	351	29.7%	1181

학생들 대부분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통일비용과 대북 지원을 매우 아까워하고 있으며, 통일이후 통일공동체의 실제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 통일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교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지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현실적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대효과 즉, 경제적 지원과 교류가 남북한 상생의 경제적 협력관계 구축, 남북한 신뢰관계 구축, 국가신용도 향상, 그리고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간접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통일비용의 성격, 즉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통일비용이 북한의 기반산업을 만드는데 쓰임으로써 통일 후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간과하는 분단비용 즉 현재의 분단체제유지에 필요한 소모적인 분단비용이 통일비용에 못지 않는 점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 학교통일교육, 특별한 감동은 없어요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만족을 묻는 질문<표6>에 학생들은 보통이다가 50.8%로 가장 많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18.4%를 잇고 있다. 이 결과는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표1>을 묻는 반응에서 보통이다가 41.9%를 차지한 것과 아주 유사한 결과이다.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것은 특별한 감동이나 경험 없이 교육과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것은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6>

구분 학년별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주 불만스럽다.		N	
	N	%	N	%	N	%	N	%	N	%		
1학년	30	7.4%	43	10.6%	208	51.4%	74	18.3%	50	12.3%	405	
2학년	15	4.1%	34	9.3%	180	49.5%	85	23.4%	50	13.7%	364	
3학년	29	7.0%	78	18.9%	212	51.5%	58	14.1%	35	8.5%	412	
전체	74	6.3%	155	13.1%	600	50.8%	217	18.4%	135	11.4%	1181	

그렇다면,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각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궁금한 점 중의 하나이다.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교사의 사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학생과 교사는 통일수업의 만족도가 낮다라고 똑 같이 반응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이유<표7>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학생들은 교사 중심의 전통적 수업방법에 대하여 28%의 학생이 불만을 표시하여 가장 비율이 높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일문제와 같은 이념적인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수업방법마저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에 불만이 있다.

<표 7>

구분	과거의 통일 관련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의 부족		통일 교육 수업시간의 부족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교사중심의 전통적 수업방법		기타()		N
	N	%	N	%	N	%	N	%	N	%	
1학년			111	27.4%	95	23.5%	121	29.9%	31	7.7%	405
2학년	11	3.0%	77	21.2%	83	22.8%	97	26.6%	44	12.1%	364
3학년			94	22.8%	101	24.5%	115	27.9%	55	13.3%	412
전체	11	0.9%	282	23.9%	279	23.6%	333	28.2%	130	11.0%	1181

반면에 교사들은 설문에 응한 교사의 57.1%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의 부족을 뽑고 있다. 이것은 도덕교과를 제외한 다른 과목 교사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통일교육 자체가 전통적으로 도덕과 사회과목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학생들의 수업불만의 1위로 표시했던 교사중심의 전통적 수업방법에 대해서는 교사 단 1명만이 공감을 표시했을 뿐이고, 32.7%가 학생들의 무관심을 수업의 불만족 원인으로 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에게 수업의 불만족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유용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의 부족	28	57.1
	② 통일교육 수업시간의 부족	3	6.1
	③ 학생들의 무관심	16	32.7
	④ 교사중심의 전통적 수업방법	1	2.0
	⑤기타()	1	2.0

학생들은 통일관련 각종 포스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 연례적인 통일관련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것의 교육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결과물이 전시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통일교육의 성과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 체험 속에 통일문제를 내면화하는 교육이 아닌 백화점식 집단주의적 전시행사에 끝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면 학생들의 통일의식수준을 의심하게 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작품에 구체화시킬 통일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가 내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 체험학습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통일교육의 학습방법은 무엇일까? 견학중심의 현장체험이 46.8%로 가장 많고, 인터넷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28.6%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중심의 전통적 수업이 아닌 학생중심의 체험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원하고 있다.

구분 학년 별	원하는 통일 학습 방법은?										
	토론학습		독서, 인터넷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견학 등 현장체험		클럽활동반 운영		기타()		N
	N	%	N	%	N	%	N	%	N	%	
1학년	50	12.4%	113	28.0%	197	48.8%	25	6.2%	19	4.7%	405
2학년	51	14.0%	93	25.5%	181	49.7%	23	6.3%	16	4.4%	364
3학년	54	13.2%	131	32.0%	173	42.3%	28	6.8%	23	5.6%	412
전체	155	13.2%	337	28.6%	551	46.8%	76	6.5%	58	4.9%	1181

학교통일교육은 지역의 통일학습관을 활용하거나, 분단과 통일의 상징을 담고 있는 장소로 현장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분단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족의 고통이 나의 문제로 전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과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사이버 통일학습을 활용하는 것은 간접체험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3.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학교현장에서 통일관련단원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면,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이중적 잣대를 알게 된다. 시험에선 분명히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 당위성을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다. 어떻게 하면 학교통일교육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을까?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로 적어본다.

첫째, 학생들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흥미를 이끌어내자

통일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슴 벅찬 감동이 아니다. 현실적이고 경제적

인 관점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학생들에게 동포애적 마음으로 통일을 맞이 하자는 교수법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첫 단계가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의 변화된 통일의식을 확인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시각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로서 우리는 이미 어떤 것들이 학생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학생들을 수업에 몰입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다. 통일교육의 내용이 이념과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는 이성적 내용이지만, 교수학습방법 면에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기술과 시청각매체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새로운 통일수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범 교과에서 통일을 이야기하자

우리 학교의 경우 교사설문에서 북한 및 통일과 관련한 수업을 실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5.1%의 교사가 없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교통일교육이 유용하지 않은 원인은 다양하고 유의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57.1%)

우선 통일관련 수업은 도덕과 윤리 과목의 영역이라는 선입견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과연 그럴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르친다고 할 때 어느 과목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할까? 사회과목만 해당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뿐 아니라 언어와 예술,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철학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북한과 통일교육은 도덕윤리교과뿐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범교과적 접근이 필요한 또 한가지 이유가 있다. 과거 도덕교과에서 정치중심의 이념교육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키웠던 선례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라는 휴머니즘과 부딪친 대학생들이 과거 반공교육에서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로 급진적 이념을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이 정치와 이념에 한정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알고 있다. 북한을 알고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적 특징과 북한의 통일방안을 아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북한의 문화 사회 예술 경제 등 다원화된 접근채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을 어느 교과에서 담당할 것인가?

셋째, 교과별 통일교육전문가 양성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과별 통일교육전문가의 양성과 연수프로그램의 완성이다. 예를 들어 최근 ICT교육의 열풍속에서 전교과적으로 “OO과에서의 ICT활용” 또는 “ICT를 활용한 OO과 수업방안” 등과 같은 연구성과물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 및 연구모임 그리고 연수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은 어떠한가? 통일교육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연수원과정조차도 도덕 윤리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연구모임이나 교과별 전문가 연수 과정이 얼마나 될까?

넷째, 통일교육의 논쟁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자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이 말하는 통일교육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통일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도서관 어디엔가 있을 6.25 또는 북한 관련 비디오자료는 보급된 시기와 단체를 불문하고 비슷한 내용에 일관된 시각을 담고 있다.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자료의 진실성을 논의에서 제외하면 통일교육 자체를 전개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는 교사들 중에는 수많은 북한자료 중에 어떤 자료를 선택하고, 어떤 관점에서 북한을 설명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각 언론사, 정부기관, 개인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북한자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교사의 판단에 따라 북한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관점, 즉 통일 및 북한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다. 우리사회에서 다원화된 관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교사개인이 통일에 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는 개인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수업에서 교사의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관점에 따라 통일교육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거나 통일이후의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북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의 주적인가? 화해협력의 대상인가?
-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에 바탕한 통일교육은 우리 정부의 흡수통일반대와 상충되지 않는가?
- 우리정부의 대북지원과 화해협력정책은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 6.15 남북공동선언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고 했는데,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과의 통일은 가능할 것인가?
-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과연 통일국가의 모습은 무엇인가?
- 통일교육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가? 남남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상의 관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학교통일교육의 큰 틀은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한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통일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공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의미와 해설을 포함하고 있으니 통일담당교사로서는 위의 지침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 설문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학생의 65.1%, 교사의 95.9%가 TV 신문 인터넷등의 매스미디어라고 대답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사회로부터 더 많은 북한정보를 얻고 있는데, 과연 학교의 통일교육은 설자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수많은 정보 중에 의미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교사로부터 배운 내용을 다시 TV에서 볼 때 그것은 그 학생에게 각인되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학교통일교육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통일의 준비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변수를 종합하여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통일교육은 현상을 통해 본질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통일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최 현 호
대전어은중학교 교사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차 박사님의 이론에 대단히 공감하는 바이다. 먼저, 교사나 통일교육담당자가 지녀야 할 이론적 접근이나 목표는 참신하며, 또한 기존의 내용보다 다른 이론적 접근이어서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다소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다면 개론적인, 총론적인 인상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면, 교수학습방법이나 과정안 등이 제시되어야 하나 내용이 다소 부족한 듯 하다. 즉,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수업시간에 제시되어야 할 교육내용이나 방법론의 상세화이다.

또한 정부나 기관 또는 교육청 등에서 해야 할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업시간에 내용이나 교수학습방법론 등이 미약하다.

통일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통일을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다. 기성세대들은 이해하고 있지만(물론 무관심한 사람은 예외이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것이 원만히 된다면 통일교육에 대한 제반과정은 용이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눈높이의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설득한 교수학습과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1. 통일교육과 통합교육

통일교육의 개념은 통일 대비 교육과 통일 이후를 위한 교육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통합교육이란 개념은 통일이후 남북한이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통합(integration)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통일(unification)과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가. 통일(unification)은 기본적으로 영토 통합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통합과 가장 밀

접히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한 국가를 형성할 때, 즉 하나의 영토와 하나의 국민을 가진 나라로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을 말할 수 있다. 통합은 통일이 만들어내는 상황이고 통일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이다. 통합(integration)은 두 개 이상의 체제가 잘 기능하는 하나의 체제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하나의 단계로 파악하기보다는 남북 분단 상태가 종식된 후, 통일된 사회 내에서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켜 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교육이 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사회 이해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와의 공존능력 함양교육”이다.

최근 통일교육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확대 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룬다. 과거 반공교육의 획일성, 승공통일의 폭력성에 비해 보면, “다름을 인정”하자는 이 주장은 통일에 대한 우리사회의 진전된 의식을 보여준다.

남북한간의 “다름(difference)”은 할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역사의 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풍부한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성(diversity)”의 자산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제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Unity in Diversity)을 이룩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는 평화로운 사회건설과 전혀 배치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향유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가치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북한사회에 대해 편견 없이 이해하고, 그들이 성취한 문화적 업적에 대해 경험함으로써 남한중심의 협소한 문화적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접근이 통일교육 수업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사람들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문화적 코드의 차이로 설

명해 보는 것이다.

규범론적, 당위론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눈높이를 맞춰 북한사회를 이해시킨다면, 그것은 다름을 알고, 차이를 인식하여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면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현상에서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실패이며 또한 통일교육의 실패이다. 즉, 통일교육에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은 남북한 정치, 경제, 체제적 이데올로기 측면보다는 북한의 문화와 교육, 사회현상을 알고 싶어한다. 특히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현상이다. 또한 북한의 청소년들은 우리와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이 통일대비와 통일이후의 '하나의 민족'이라는 가치를 심어주기 위함이라면, 수요자중심의 눈 높이에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교수방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 교육이 되는 것이다.

3. 현장중심의 학교통일교육 방안

현실적인 차원에서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방안은,

- 1) 수행평가를 활용하는 부분이다.(교사는 크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체육 등을 크게 구분하여 상세하게 하위영역까지 제시해줄 수 있다. 이 중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하위영역 중 하나를 골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제출하게 한다.)
- 2)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설문지를 받아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수와 내용을 교과내용에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 3) 과제물을 제시하는 방법이다.(교과내용에 맞게 과제물을 제시한다.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인터넷 사이트나 참고문헌, 서적 등을 제시하여 준다.)
- 4) 교과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는 편이다.)
- 5) 특별(클럽)활동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가장 시사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다.)

4. 교수학습 방법론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시간이나 기타 다른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방법은 무엇인가?

통일교육은 대상에 따라, 학교환경에 따라, 주제에 따라, 내용에 따라, 시간(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토론식 수업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등이 병행되고 있다. 토의 수업의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유비 토의, 직소우, 구조화된 논쟁, 집단 탐구, 디스코그래피, PMR, 광고나 만화 활용하기 등등의 다양한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시되고 있다.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병행적인 방법은 더욱 수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1) 신문(최신의 남북한 관계 및 시사자료)
- 2) 인터넷(기존, 최신의 남북한 관계 및 시사자료)
- 3) 교재 외의 참고서적(특히 전문가 집단이 만든 참고서 등은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통일교육 수업시 교사(전문가)의 자세

- 1) 발표자가 제시한 학교통일교육의 전제 및 목표는 필히 교사가 숙지하여 균형적인 인지와 시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전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 2) 교사는 수업내용에 알맞게 수업시간의 접근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예로 북한이해교육 접근인가? 생활관련 접근인가? 학제적 접근인가? 자율적 접근인가? 물론 여러 접근법이 병행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접근법들은 수업 진행시 수업의 목표점과 연결될 수 있다.
- 3) 수업의 내용에 따른 교수학습의 접근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내용을 똑같이 같은 접근법으로 사용하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4) 통일교육은 수업의 대상학년에 따라 내용과 접근법이 중요하다. 특히 교과이외의 내용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6. 학교 통일교육 현장에서의 실태

1) 수요자중심의 눈높이 통일교육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은 주로 교육자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발달 수준에 대해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흥미와 관심, 발달 수준, 인지 양식, 다양한 지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차를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차를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단 하나의 수업 방법은 있을 수 없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즉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극대화하는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수업, 적응 수업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더 잘 배우는 경향이 있다. 학습 동기는 학습자들이 공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말을 연못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라도, 말이 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말의 의지, 욕구에 달려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좋은 수업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학습자가 열의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느냐는 학습자가 충분히 동기 유발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자의 동기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어떠한 수업 방법도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학습 양식 유형으로 학습자의 지각 양식 선호도에 따른 청각형, 시각형, 촉각-운동형 분류를 들 수 있다. 청각형 학습자는 들으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며 대체로 분석적, 논리적, 계열적 사고에 뛰어난 반면, 시각형 학습자는 보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이해를 할 때 머리 속에 그림을 그려 이해하고자 한다. 촉각-운동형 학습자는 만지고 움직이면서 학습하기를 좋아하는 학습자들이다. 이러한 유형을 감안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 학습자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학습 능력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학습자가 자신이 지닌 현재 수

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게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수업 전략이다.

학습자의 흥미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 역시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실, 동일한 정보를 배워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동일한 내용을 배우되 개념이나 원리 중심으로 학습하거나, 여러 다양한 학습 내용 중에 선택 학습이 가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흥미나 관심, 진로 등에 따라 배우고 싶은 내용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학습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학습 양식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학습 내용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학습 내용의 제시 방식(presentation modes)을 학생들의 학습 양식에 부합되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브루너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표상 형식(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양식)을 사용하면 어떤 교과 내용도 그 내용의 지적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한 주장이나, 가드너의 “학습자는 자신의 뛰어난 지능을 사용하여 학습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다지능 이론이 대표적인 예이다.

시각형 학습자는 그림 등과 함께 제시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청각형 학습자는 강의나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촉각형 학습자는 조작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연구이다.

차별화 교육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수업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수업을 다차원적으로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내용 제시방식을 결정하고, 학습 양식과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활동을 설계하며, 그리고 학습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과제를 부과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2) 차이와 다름의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

문화이해지는 귀인훈련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문화이해지를 통하여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배운다. 즉, 타문화의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가 행동원인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를 출현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다.

(1) 문화이해지의 제작 과정

문화이해지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각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약 100개 정도 선정해 놓는다. 그럼으로써 각각의 상황마다 상대방의 행동이유를 다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하고, 그 행동의 이유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것이다.

문화이해지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문화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 100개 정도를 선정한다.

둘째, 갈등상황 하나 하나를 이야기 형식으로 묘사한다.

셋째,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이유가 무엇인가를 맞추어 보는 서너 개의 보기를 선택지 형식으로 만든다.

넷째, 정답을 선택하고, 각 보기가 왜 맞거나 틀리는지를 문화적 배경과 함께 설명해 주는 해설을 작성한다.

다섯째, 작성된 문화이해지를 타당화 과정을 거쳐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책자로 제작한다.

(2) 남북한간 문화이해지의 제작사례

① 갈등상황의 수집: 남한과 북한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수집한다. 이 갈등상황의 선정은 다양한 통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소설, 영화나 TV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수기나 북한방문기 등을 다양하게 접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사례의 작성: 문화이해지의 형식은 각각의 사례마다 상황묘사 보기 및 해설을 필요로 한다. 선정된 갈등상황을 기초로 하여 각 상황마다 사례를 작성한다. 남북한간의 문화이해지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상황

○ 남북한 사람이 만난 상황을 전제로 한다.

○ 서로 만나거나 왕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북한사람의 행동을 남한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성한다

- 상황묘사가 현실적이고 자세하고 가능한 한 재미있게 만들되 직접관련이 없는 내용은 뺀다.
- 보기에서 오답을 고를 수 있는 약간의 근거를 준다.
- 내용이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길이는 약 10~20줄 정도로 한다.

▶ 보기

- 4지선다형으로 하고, 각각의 길이는 2줄 정도로 한다.
- 완전한 문장으로 맺는다('……때문에' 등으로 하지 않는다)
- 정답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오답에는 주로 남한사람이 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 상황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 해설

- 정답, 오답, 해설이 모두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참고문헌에 페이지까지 밝힐 것)
- 해설이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가능한 한 자세하게)
-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인상을 주면 안 된다.
- 해설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면 좋다고 넣어도 좋다.

③ 작성된 사례의 정당화: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1차로 작성된 사례들은 타당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이해지의 작성과정에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나 북한의 실제상황과 맞는지, 그리고 정답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치는 것이 좋다. 타당화를 위해서는 작성된 사례들을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보이고 조언을 얻는다든가, 탈북 지식인 몇 사람에게 보이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탈북 지식인들의 지적은 북한의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을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신 등 수
대전송촌고등학교 교사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침체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는 지난 4월 금강산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이후 최근 부산 아시안 게임의 참가 결정과 통일축구,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연결, 상설 이산 가족 면회소 설치 합의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남북 관계의 변화는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까지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우리의 남북 문제가 과거부터 순탄하게만 이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남북관계를 예측하여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니 우리는 이런 자세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해 주기가 어려운 것이 통일교육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의 복잡성에도 기인하겠지만 우리의 통일교육이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일관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처럼 통일교육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자인 차우규 연구원께서는 중등학교에 재직 중에 도덕교육과 통일교육에 탁월한 안목과 역량을 보였던 분이다.

이론과 실천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식견이 부족한 본인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고 토론자로서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통일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단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I. 학교 통일 교육의 실천 방향

1. 통일교육의 개념 정의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단순한 절충형 통일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 이념인 자유와 평등, 인권, 자유 민주주의 등에 기초한 통일 국가를 추구하려는 것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우리의 체제와 정치적 정체성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통일의 당사자인 북측이 인정할 수 있는 목표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흡수통일로 여길 수도 있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대방의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 전제된 이념적 바탕이 깔려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물론 북한의 체제를 바탕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는 더더욱 주장하고 싶지 않다. 이에 적어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지니고 살아온 두 당사자가 통일을 추구하려면 양자가 공감하는 제3의 이념과 체제를 내세워야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통일교육의 개념은 통일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일된 이후의 국가체제를 쉽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민족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통일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한 통일교육의 개념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통일교육 교사의 인식과 교육적 자율성

학교 통일 교육을 담당한 교사가 어떤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 통일 교육의 내용과 자료의 선택, 교육의 방법이 달라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교육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통일 교육이 충분히 이

루어져야한다.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어느 정도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하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 자신이 먼저 신념화 되어있지 않고 다양한 가치관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월드컵 기간 막바지에 있었던 연평도 근해의 남북해군의 교전을 두고 그동안 통일 교육을 담당해온 관련교과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과 교사들의 서로 엇갈리는 이해와 해석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와 남북 문제를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문민정부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물론 우리 사회가 다원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원인은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의 오도된 관점에 영향 받은 바도 크다.

우리가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려면 교사들부터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과 이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에 대한 통일 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 교사들이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교사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81120-488(2002.03.25)에 근거하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된 공문에 의하면 “최근 편향된 북한관과 통일관에 의한 일부 교사들의 임의 통일 교육이 우려되는 바, 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에 배치되는 임의 통일 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현장에서 통일교육지침서에 안내된 자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지만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는가가 애매한 적이 있었다.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자료들의 출처는 대부분 통일부의 공식 자료들과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다.

위 공문을 받은 다음부터는 각종 자료를 활용할 때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객관적인 것인가?’, ‘이 자료는 임의성 시비가 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의 물음들에 위축되어 교사 스스로 자료 활용에 소극성을 보인다면 바람직한 통일 논의는 제한 받게 되고 수업의 효과와 효율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적어도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자료가 의도적 편향성을 지니고 통일

교육의 객관성이 저하되도록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요즘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에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정도로 무지하지 않으므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가릴 수 있다.

II. 학교 통일교육의 전제

1. 안보와 화해 협력의 이중성 문제

1) 북한에 대한 정의의 문제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국민들에게 혼란하게 느껴졌던 북한에 대한 정의의 문제에 대해 발표자께서 '그 동안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북한의 다른 모습이 일부 나타난 것일 뿐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적(경계의 대상)과 동포(화해협력의 대상)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특별히 이견은 없으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추구하며 동족 상간의 아픔을 겪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과도적 딜레마로 적(경계의 대상)과 동포(화해협력의 대상)로서의 모습을 함께 지닐 수밖에 없지만 같은 형제요 민족으로서 노력하기에 따라 적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충분히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적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항상 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적대적 행위를 할 때 그 세력만 적으로 간주하고 일반 민중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한 국가의 정체성의 보루라고 하는 국방부에서조차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문제를 놓고 국방백서 발간을 연기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안보와 화해 협력의 병행 필요성 이해 문제

이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자가 '현재의 북한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습은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은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한 주장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보완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현실주의적 입장과 이상주의적 입장은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 간의 관계도 상호간에 법적으로는 배치되지만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인정하고자 했듯이 싫든 좋든 현실적으

로 우리는 북한을 국가관계로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안보가 요구될 때는 안보를, 화해협력이 필요할 때는 화해협력을 추구하면 된다.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안보의 대상에 대한 개념을 북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안보의 대상은 북한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라도 규정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우리에게 안보위협을의 세력으로 보여진다면 안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안보의 위협세력이 되는지의 판단은 좀더 전문적인 별개의 문제다. 화해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변 세력과는 다르게 우리의 형제요 동포로서 함께 하다가 공동체가 손상되어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란은 안보교육과 통일 교육의 논리를 연계시킴에 나타난 문제이다. 안보의 대상이라는 문제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개념을 동일선 상에 놓지 말고 별개의 문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결국 국 단일한 대상이므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하여 안보의 대상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동반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안보(Peace Making)를 추구하며 적으로서의 모습을 줄이고 화해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교류와 협력을 통일 정책적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교육 현장에의 적용 문제

앞에서 논의된 북한에 대한 정의의 문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서 주제 발표자의 주장에 공감한다. 어차피 통일교육은 역사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분단현실의 산물로서 분단의 극복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소재를 통하여 교육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논리로 교육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의 논리와 관점을 설정할 때 어려운 점은, 남북 관련 사건이나 통일정책, 통일행사 등을 평가하는 정치권과 언론, 사회단체가 남남 갈등을 갖는다는 점이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이해 세력간의 입장과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나친 점이 있다.

바람직한 통일 교육을 위해서는 남한 내부의 정치·사회적 통합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통일교육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 교육과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2. 민족 문제와 국제 문제의 이중성

2000년 6월 15일에 합의된 남북 공동선언 1항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언급한 '자주'의 성격문제는 '폐쇄적 자주'와 '열린 자주'의 개념으로 나누고 그에 관련된 역사를 인용하여 논의하고 있다.

주변국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과 새로운 지역적 협력관계, 통일이후의 외교관계와 공동의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해 우리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에 대해 상호 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본인도 대체로 동의한다.

좀더 강조할 점은 과거 역사에서 보았듯이 주변국의 눈치를 보는 단계를 넘어 주변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적진 분열현상을 보였던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통일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민족의 의사와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화기 때와 해방 후에도 그랬듯이 우리의 문제를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국익과 세력다툼의 희생양으로 삼았지 않는가.

고로 분단의 과정에서는 외세의 힘이 작용했지만 이제는 남북의 진정한 민족적 반성과 결속으로 강대국을 역이용하여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열린 민족주의적 자세는 갖되 그들이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서 기대 이익을 나눠 갖고자 통일에 협력하도록 외교적 논리를 세우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통일 전 독일의 국민들이 이념과 민족을 구분하여 민족주의를 중요시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해소된 듯하지만 부시 행정부 초기 김대중 정부와 외교적 불일치는 그것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던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주변 국가를 배척하지도 의존하지도 말며 열린'자주'를 추구하되 민족적 이익과 단결을 우선시

하는 입장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과거의 남과 북은 이 점에 대해서는 역사적 반성이 있어야 한다.

III. 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의 통일관련 교과 중에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두 개의 대단원 중 II장(100쪽)이 통일 교육 내용으로 할애되어 있으나 시 수가 주당 1시간인 관계로 수업은 수박 겉핥기 식이다.

사회 역시 분량이 6차의 공통사회(상) 일반사회 교과서 전체의 12쪽으로 4.6%를 에 비해 7차 교육과정 사회과(일반사회 영역)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전체의 0.6%<(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2.1%<(주)두산>를 차지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내용의 질과 체계도 도덕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자료도 빈약하다.

형이상학적 사고가 가능한 고등학생들의 통일교육이 시 수가 줄어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에서 교과 시 수 조절과 교원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되는 교과 재량활동 시간이나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통일관련 교과에 배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학생들도 선택하지 않는다. 입시교육치중으로 통일관련 특별활동이나 교과활동에는 관심이 없다. 일반교과 교사들은 동기화 되지 못했고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료의 부족으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수행하기 어렵다.

IV.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학교 통일 교육의 접근 방법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학교 통일 교육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제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통일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학자들과 교사들이 제시된 접근방법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학교통일교육의 지도 방법에서 제시한 7가지 영역에 포함된 학습 방법들을 적용할 자료를 잡무가 많은 우리의 학교 현실에서 교사개인이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자료의 개발을 전담할 기구나 교사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2. 표준통일교육과정안의 마련

이 하위 주제와 관련한 학교 통일방안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발표자의 8가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첫 번째 제시한 표준통일교육과정안의 마련을 가능하면 남쪽이나 북쪽 어느 한쪽만의 입장이 아닌 양자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이후 국가의 비전과 형태를 고려한 통일교육과정안이 제시되면 더욱 좋다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우려한 흡수통일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표준통일교육과정안의 마련을 남북한 양자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나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통일을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민감한 것일 수도 있다.

3. 통일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다음으로 더욱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로 제시한 통일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의 문제인데 통일이 우리 민족의 절실한 문제이고 보면 통일교육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통일 교육, 통일운동, 통일 사업 등에 적절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여야 한다. 투자가 인색한 곳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4. 통일관련 내용의 입시반영비율 확대

또 다른 강조 점은 여덟 번째의 대입수능 시험에의 반영 문제인데 1문항 이상이 아니라 더 많이 출제하고 더불어 학교에서 통일관련 교과점수와 통일관련 활동 점수를 부여하고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아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가정할 때 학창 시절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5. 다양한 통일교육자료의 제작과 심도 있는 북한관련 자료의 공개

교육의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려고 해도 학습자료의 부족과 교육 프로그램의 미비로 흥미 있는 통일교육 및 관련 교과 연계지도가 잘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 관련교과 자료는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편향성과 임의성에 대한 우려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체를 망설이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의 객관성 시비를 잠재울 대책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투입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시의성 있게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다.

6. 통일교육 관련 다양한 교사 연수 및 체험기회의 확대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교육체제와 내용이 자주 바뀌고 통일교육 자체의 이중성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자체가 교육적 신념체계에 근거해 이루어지므로 교사의 통일교육 마인드의 형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범대나 교대의 교육과정에 통일관련 교육과정이 미비하고 현장의 교사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가 드물고 대부분 통일관련교과 교사가 아니면 관심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범교과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 이해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교사들이 북한이나 통일관련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지난 봄의 평양 아리랑 축전 참가처럼 남북한 교사 교류 추진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7. 통일 교육 내용의 포괄적 접근

통일교육은 좁은 의미의 이데올로기 교육이나 안보 교육이 아니라, 남북한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찾아내고 만들어 가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객관적 이해의 강화 2) 사회 문화생활중심의 동질성 추구 3) 민족적 화해 협력의 강조 4) 평화와 공존의 삶을 강조하는 틀 속에 구체적으로는 북한 이해, 공동체 교육, 가치교육, 평화교육, 넓은 의미의 안보교육, 다문화 교육, 배려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간주의 교육 등과 연계하여 좀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민족과 국가의 통합성에 대한 교육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주장

한다. 너와 나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상대를 인정, 존중,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그것이 확대되어 사회 통합과 민족화합 및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편적 세계 시민으로서 윤리를 지닌 인간이 미래의 이상적 인간형으로 추구된다. 이런 인간형의 육성을 위해 생태학적 관점에서 특히 화해와 평화, 자주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해, 평화, 자주의 개념은 앞으로 강조해야할 통일교육의 주요한 주제이다.

8. 지속적이고 다양한 통일교육의 장 마련

학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몇 번의 통일관련 행사 - 통일과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나의 주장 발표대회, 6.25 몇 주년 기념행사, 현충원 참여행사, 직원연수, 통일 강연회 등과 같은 행사 - 가 교과 외 통일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혹자는 이러한 교육 활동을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방법과 관점에서 추진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행사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려면 반복성과 지속성을 지녀야 하나 학교에서 교과 진도와 관련 없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교과 수업 이외에 학년이나 학급의 공동체 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재량활동, 통일테마 야영수련이나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교사와 학교관리자의 통일교육 의지가 중요하다.

5. 제5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02. 11. 7(목), 14:00~16:40
- 장소 : 제주도교육박물관 강당
- 참석 : 199명
- 주최 : 통 일 부
- 주관 : 제주도교육청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토론자 발표문

1.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김홍선, 하원초등학교 교사) (p.237)
2.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영민, 제주중학교 교사) (p.254)
3.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이광일, 오현고등학교 교사) (p.270)
4.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모색
(황미나,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p.281)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 홍 선
하원초등학교 교사

- I. 새로운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 II. 초등학교 통일교육 지도에 대한 실태
 - 1. 실태분석
 - 2. 실태분석에 대한 논의
- III.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 1.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 2.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 3. 학교통일교육의 기본방향

I. 새로운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분단된 조국이라 할 수 있다. 한 핏줄로 이어온 우리 민족이 1945년 해방과 함께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지난 반세기 동안 적대적 관계로 지내오면서 남은 것은 고통과 상처, 이질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에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되어온 남북대화에서 국민들은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만 되풀이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역사에 굵은 획을 그어 놓았다. 서로 적으로 여기며 대결과 반목의 대상이었던 두 정상이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회담에서 두 정상은 자주적인 통일문제 해결,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한 공통성 인정과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 증대 등에 대해서 서로 합의했다. 이것은 55년 만에 막혔던 물길이 탁 트이는 중대사였다. 따라서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남북한간의 대결·경쟁보다는 화해·협력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진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서해교전으로 나타난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가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북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일이 멀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예상외로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살아 갈 현재의 어린이들은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여 그동안 벌여졌던 불신과 이질성을 하나씩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교육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도덕교과서에는 “반공, 반북”이라는 말 대신에 남북한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이라는 내용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교과서에는 남북정상회담이 화보로 실렸다. 2000년부터 “통일”이라는 교사용 교재가 공급되었으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20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일선교사들이 어려움은 많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

이며 어느 정도까지 다루어져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다. 통일교육을 위한 시수 확보가 되지 않고 제한된 자료와 교사 자신이 확고한 방향이 서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계획으로 그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통일교육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불안정하게 변화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다시 교육내용이 달라져 일관성 없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바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보화 시대에 선택된 내용으로 획일적인 교육을 통하여 통일의 당위성만을 가르친다면 마치 반공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북한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태도와 의식을 심어주어 훗날 통일 이후 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초등학교 통일교육 지도에 대한 실태¹⁾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의 통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1. 실태 분석

1) 6·15 정상회담 이후의 통일교육

6·25 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① 통일교육의 필요성 ②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 ③ 통일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1) 6·15 정상회담 이후 통일 교육의 필요성

<표Ⅱ-1> 6·15 정상회담 이후 통일 교육의 필요성

응답내용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지는 않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응답자 수	273	28	0	5	306
%	89.2	9.2	0	1.6	100

1) 김홍선(2002), "남북 정상회담 이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기초 자료로 2001년 12월 제주도내 초등학교 교사 306명에게 설문지를 통해 조사 연구.

(2) 6·15 정상 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표Ⅱ-2> 6·15 정상 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응답내용	한 핏줄 한 민족이므로	납북한 이질성이 심화되지 않기 위하여	통일 후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계
응답자 수	76	146	45	6	273
%	27.8	53.5	16.7	2.2	100.0

(3) 6·15 정상 회담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표Ⅱ-3> 6·15 정상 회담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응답내용	통일된 후에 하더라도 충분하다.	통일이 된 후에 감적을 할 수가 있으므로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소용이 없으므로	달리 해야 할 교육이 많으므로	계
응답자 수	7	12	4	5	28
%	25.0	42.9	14.3	17.8	100

2) 통일교육 지도 시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과 주로 이용하는 시간에 대하여 ① 연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 ② 2001년도 통일 교육 실제 지도 시간 ③ 통일교육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에 대하여 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1) 연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

<표Ⅱ-4> 연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

응답내용	0~5시간	6~10시간	11~15시간	15~20시간	20시간 이상	계
응답자 수	95	127	34	27	23	306
%	31.0	41.5	11.1	8.8	7.5	100

(2) 2001년도 통일교육 실제 지도 시간(2001년 12월 말 현재)

<표Ⅱ-5> 2001년도 통일교육 실제 지도 시간(2001년 12월 말 현재)

응답내용	0~5시간	6~10시간	11~15시간	15~20시간	20시간 이상	계
응답자 수	127	126	24	19	10	306
%	41.5	41.5	7.8	6.2	3.2	100

(3) 통일교육을 지도하는 시간

<표Ⅱ-6> 통일교육을 지도하는 시간

응답내용	도덕(바른생활)	재량활동	특별활동	기타	계
응답자 수	201	89	7	9	306
%	65.7	29.1	2.3	2.9	100

3) 교사용 「통일」 교재의 활용과 특징

교사용 「통일」 교재의 활용과 두드러진 특징, 개선점 등에 대하여 ① 교사용 「통일」 교재의 활용 정도 ② 「통일」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시간 ③ 「통일」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었던 까닭 ④ 「통일」 교재를 교사용만 지급한 것에 대한 교사의 생각 ⑤ 「통일」 교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⑥ 현재의 「통일」 교재와 과거 통일 관련 교재와의 차이 ⑦ 「통일」 교재 내용 중 더 보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1) 교사용 「통일」 교재 활용 정도

<표Ⅱ-7> 교사용 「통일」 교재 활용 정도

응답내용	늘 활용한다	가끔 활용한다	활용해 본적이 없다	계
응답자 수	36	217	53	306
%	11.8	70.9	17.3	100

(2) 「통일」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시간(서술형)

<표Ⅱ-8> 「통일」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시간(서술형)

응답내용	도덕(바른생활)	재량활동	국어	아침활동	행사	계
응답자 수	20	16	6	6	5	53
%	37.7	30.2	11.3	11.3	9.5	100

(3) 「통일」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는 이유

<표Ⅱ-9> 「통일」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는 이유

응답내용	활용할 시간이 없어서	다른 자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내용이 좋지 않아서	계
응답자 수	122	130	16	2	270
%	45.2	48.1	5.9	0.7	100

(4) 「통일」 교재를 교사용만 지급한 것에 대한 생각

<표Ⅱ-10> 「통일」 교재를 교사용만 지급한 것에 대한 생각

응답내용	지급처럼 교사용만 지급하여도 통일교육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진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여도 상관없다.	계
응답자 수	57	225	24	306
%	18.6	73.5	7.8	100

(5) 교사용 「통일」 교재의 특징

<표Ⅱ-11> 교사용 「통일」 교재의 특징

응답내용	남북한생활상 비교	북한생활 비교	주제별학년 수준에 맞게	흥미 있는 다양한 자료	민족 동질성 및 통일에 대한 접근	현실성 부족	계
응답자 수	21	19	12	16	21	7	96
%	21.8	19.8	12.5	16.7	21.9	7.3	100

(6) 현재 「통일」 교재와 과거 통일 관련 교재와의 차이(서술형)

현재의 「통일」 교재와 과거 통일 관련 교재와의 차이는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과 '비방·획일 교육'에서 '민족 동질성 및 통일에 대한 접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7) 「통일」 교재에서 더 보완해야 할 내용(서술형)

<표Ⅱ-12> 「통일」 교재에서 더 보완해야 할 내용(서술형)

응답내용	구체적인 내용	북한의 현실적인 생활내용	CD자료 및 시청각자료 제공	동질성 확대	객관성 유지	계
응답자 수	20	16	16	13	12	77
%	25.9	20.8	20.8	16.9	15.6	100

앞으로 「통일」 교재 내용을 더 보완한다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이산가족, 통일의 필요성, 통일후의 생활 등과 지도 자료, 민족의 동질성(역사, 미풍양속, 전통문화 등)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4) 학교 통일교육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대하여 ① 교사의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② 통일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 ③ 통일교육을 할 때 염두에 두는 점 ④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수업모형 ⑤ 어린이

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⑥ 학교 통일교육 행사 실시 횟수 ⑦ 통일교육 행사 실시 시기 ⑧ 그 밖의 통일교육 행사 등에 대하여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표Ⅱ-13>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응답내용	매우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관심이 없다	계
응답자 수	10	72	199	25	306
%	3.3	23.5	65.0	8.2	100

(2) 통일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

<표Ⅱ-14> 통일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

응답내용	통일교재	신문·잡지	인터넷·CD	평소 아는 대로	계
응답자 수	67	87	84	68	306
%	21.9	28.4	27.5	22.2	100

(3) 통일교육 지도 시 염두에 두는 생각

<표Ⅱ-15> 통일교육 지도 시 염두에 두는 생각

응답내용	우리 민족의 공통성	남북한 생활상 비교	민주주의 우월성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	이산가족의 슬픔	평화통일	계
응답자 수	147	55	21	6	31	46	306
%	48.0	18.0	6.9	2.0	10.1	15.0	100

(4)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업 모형

<표Ⅱ-16>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업 모형

응답내용	교사 주도의 설명식	어린이 중심이 반 표 및 토의 학습	역 할 놀이 학습	과제 조사 학습	시청각 자료 활용 학습	기타	계
응답자 수	121	56	4	33	88	4	306
%	39.5	18.3	1.3	10.8	28.8	1.3	100

(5) 반 어린이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표Ⅱ-17> 반 어린이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응답내용	매우 높은 편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편이다	별 흥미 없이 참여한다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이다	계
응답자 수	8	192	55	51	306
%	2.6	62.7	18.0	16.6	100

(6) 통일교육에 대한 1년 동안 행사 총 횟수

<표Ⅱ-18> 통일교육에 대한 1년 동안 행사 총 횟수

응답내용	0~1회	2~3회	4~5회	6회 이상	계
응답자 수	123	171	11	1	306
%	40.2	55.9	3.6	0.3	100

(7) 연간 통일교육에 관련된 부문별 행사실시 횟수

<표Ⅱ-19> 연간 통일교육에 관련된 부문별 행사실시 횟수

응답내용	응변대회				진기·행진대회				그리기·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현장체험학습				기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실시횟수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응답자수	33	218	5			27	35				21	339	14	2		35	253	15	2		237	65	4			295	10	1		
%	27.1	71	17			88.6	11.4				6.9	87.9	4.6	0.6		11.8	82.7	4.9	0.6		77.5	21.2	1.3			96.4	3.3	0.3		

(8) 통일관련 행사 개최 시기

<표Ⅱ-20> 통일관련 행사 개최 시기

응답내용	5~6월	7~8월	9~10월	11~12월	계
응답자 수	294	4	6	2	306
%	96.1	1.3	1.9	0.7	100

(9) 그 밖의 통일교육 행사(서술형)

<표Ⅱ-21> 그 밖의 통일교육 행사(서술형)

응답내용	영상자료 감상 및 소감 쓰기	토론대회	강사초빙수업	독서 및 독서 후 활동	계
응답자 수	14	10	9	8	41
%	34.1	24.3	21.9	19.5	100

5)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① 교사가 실제로 지도해 본 통일교육 프로그램 ② 통일교육시 가장 어려운 점 ③ 통일교육 연수에 대한 생각 ④ 통일교육 정책 추진처 ⑤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1) 현직 교사가 실제로 지도해 본 통일교육 프로그램(서술형)

<표Ⅱ-22> 현직 교사가 실제로 지도해 본 통일교육 프로그램

응답내용	역할놀이 수업	토론 학습	신문·잡지 환용 수업	시청각자료 환용 수업	계
응답자 수	7	6	9	5	27
%	26.0	22.2	33.3	18.5	100

(2)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교육에 내용

<표Ⅱ-23>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교육에 내용

응답내용	민족공동체 의식 및 동질성 회복교육	역사교육	언어교육	민주시민 교육	계
응답자 수	278	10	4	14	306
%	90.8	3.3	1.3	4.6	100

(3) 통일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표Ⅱ-24> 통일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응답내용	통일교육 내용의 한계	통일교육내용의 방향	시수 확보	자료부족	계
응답자 수	102	103	28	71	304
%	33.3	33.3	9.2	23.2	100

(4) 통일교육 수강 연수 여부

<표Ⅱ-25> 통일교육 수강 연수 여부

응답내용	연수를 받겠다	시간이 나면 받겠다	받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계
응답자 수	50	176	45	35	306
%	16.3	57.5	14.7	11.4	99.9

(5) 통일교육 정책 추진처

<표Ⅱ-26> 통일교육 정책 추진 처

응답내용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통일연구원	기타	계
응답자 수	121	98	76	11	306
%	39.5	32.1	24.9	3.5	100

(6)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표Ⅱ-27>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응답내용	자료 확보 및 제공	교사의 인식 제고	시수 확보	교사의 연수 강화	계
응답자 수	118	102	62	24	306
%	38.6	33.3	20.3	7.8	100

6) 민족 통일에 대한 인식

우리 민족의 영원인 통일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① 교사가 생각하는 통일 형태 ② 햇볕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③ 6·15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④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⑤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⑥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 ⑦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⑧ 그 밖의 통일 및 통일에 관련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1) 교사가 생각하는 통일 형태

<표Ⅱ-28> 교사가 생각하는 통일 형태

응답내용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	남북이 현 상태에서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태	남북이 정치적·지리적으로 한 국가가 되는 상태	기타	계
응답자 수	151	115	35	5	306
%	49.3	37.6	11.4	1.6	100

(2) 「햇볕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표Ⅱ-29> 「햇볕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응답내용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주는 만큼 얻어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계
응답자 수	60	53	175	17	305
%	19.7	17.4	57.4	5.6	100

(3) 6·15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표Ⅱ-30> 6·15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응답내용	변화하고 있다	조금씩 변화하여 갈 것이다	변화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계
응답자 수	20	190	83	13	306
%	6.5	62.1	27.1	3.2	100

(4)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

<표Ⅱ-31>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

응답내용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계
응답자 수	117	67	26	210
%	55.7	31.9	12.4	100

(5)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표Ⅱ-32>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응답내용	체제유지를 위해서	남한에 흡수될까봐	동구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
응답자 수	86	9	1	96
%	89.6	9.4	1	100

(6)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

<표Ⅱ-33>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

응답내용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하면 좋아진 것이다	우리정부가 일관성 있게 지원하면 개선될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회기적으로 좋아진 수 없다	중국어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계
응답자 수	27	84	184	11	306
%	8.8	27.5	60.1	3.6	100

(7)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표Ⅱ-34>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응답내용	5년 이내	10년 이내	15년 이내	20년 이내	20년 이상	계
응답자 수	6	63	38	84	115	306
%	2.9	20.6	12.4	27.4	37.6	100

2. 실태 분석에 대한 논의

1) 바람직한 측면에서

첫째, 대부분의 교사가 남북한 이질성이 심화되지 않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시간은 연간 10시간 이내로 대부분 도덕(바른생활)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하고 있다.

둘째,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교육 내용은 민족공동체의식 및 동질성 회복교육으로, 통일교육 지도 시에 가장 염두에 두고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확보 및 제공, 교사의 인식제고, 시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할 때 신문·잡지, 인터넷·CD 등의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셋째, 「통일」 교재의 특징으로 남북한 생활상 비교와 민족 동질성 및 통일에 대하여 접근하였다고 보아 과거의 교육 내용에 비해 통일지향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 개선되어야 할 측면에서

첫째, 「통일」 교재가 바람직하게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활용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거나 「통일」 교재가 교사용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일교재를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할 것을 원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 정도이며 통일연수 수강여부에서도 소극적이어서 앞으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교사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연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수업형태는 교사 주도의 설명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 지도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바라고 있다.

셋째, 통일교육 행사는 년 2~3회 정도로 6·25를 전후하여 글짓기, 그리기 및 포스터 그리기 등 극히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정도이다.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넷째, 통일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통일교육 내용의 방향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어 통일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북한의 변화 및 통일정책의 평가, 통일시기와 관련해서

첫째, 우리나라의 통일형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를 생각하고 있으며,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금씩 태도가 변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서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교사들의 의식에서도 남남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햇볕정책은 여·야가 합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아 정부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지원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앞으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65%의 교사들이 20년 이상 걸린 것으로 보아 지금부터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남북한 이질화가 더 심화되어 통일 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Ⅲ.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1)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1) 교육과정에서의 개선 방향

첫째, 교과 통합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위상을 더욱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전반적인 교과활동, 특별활동, 제량활동, 학교행사, 잠재적인 교육과정 등의 모든 학교생활의 측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교육목표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환상적이지 않고 현실감 있는 교육과정 목표로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교육 내용에서의 개선 방향

기존의 정치 이념의 도덕 교육에서 벗어나 범교과 학습으로 확대하여 사회·문화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어과, 사회과, 특별활동에서 북한관련 내용을 확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3) 시수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

도덕과 주당 시수를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여 지도하는 방안으로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수를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정된 정보화 교육 34시간을 년 17시간으로 하고 17시간을 통일교육 지도시간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4) 교원 연수의 개선 방향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단기간연수로 강의식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교원연수가 필요하다.

(5) 자료개발 및 제공

통일문제나 통일정책에 관련된 자료는 많으나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자료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 흥미와 관심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로 눈높이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 CD자료, 그림, 사진, 관련 사이트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거나 이러한 자료를 개발하는데 교사들을 참여시키는 일도 바람직하다.

(6) 「통일」 교재 내용과 보급

「통일」 교재는 비교적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자료이다. 과거 통일교재와 비교하였을 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바람직한 교재이며 교사들이 손쉽게 지도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교사용만 지급하는 것보다 전 어린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일교육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통일의 필요성, 통일 후의 생활, 민족의 동질성 등을 더 보완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2) 지도 방법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1) 저학년을 위한 통일교육 지도 방법 -

- ① 역할놀이 수업
- ② 통일지도 만들기
- ③ 편지글 쓰기
- ④ 그림이나 카드 만들기
- ⑤ 퍼즐게임
- ⑥ 통일 주사위 놀이
- ⑦ 노래가사 바꾸어 부르기
- ⑧ 만화 완성하기
- ⑨ 마인드 맵(Mind map)
- ⑩ 시청각자료 보고 느낌 말하기

(2) 고학년을 위한 통일교육 지도 방법 -

- ① 전문가 수첩 만들기
- ② 토론학습 수업모형
- ③ 탐구학습 수업모형
- ④ 개념분석 수업모형
- ⑤ 시사자료(NIE) 활용 수업모형
- ⑥ 가치갈등 수업모형
- ⑦ 미완성 문장 완성하기
- ⑧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통일교육
- ⑨ 가상 체험학습
- ⑩ 시청각 매체 활용

2.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1) 정부의 역할

통일교육은 가치개입적 교육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 단체나 기관마다 교사나 교수, 강사요원마다 잦대가 상이하기 때문에 혼돈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²⁾ 따라서 정부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목표와 내용을 정비하여 「통일교육의 지침서」와 같은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꾸준히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준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을 위한 법과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여 일선교사들이 통일교육을 하는데 혼란이나 갈등이 야기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을 범교과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부분적 개편이나 교과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며, 시간확보, 교사들에 대한 연수 및 자료제공에 대하여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이근철·오기성(2000),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하는 통일교육론」 도서출판, p.336.

2) 학교의 역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약화된 통일의식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통일교육에 대하여 확고한 경영의지가 필요하다.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행사, 체험학습에 대한 허가 등에 대하여 학교장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통일교육 환경조성에 힘써야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나름대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3) 교사의 역할

교사들은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통일교육을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활중심에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으로부터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실 북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하여 아는 정도이다.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업방법도 강의식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활동중심에서부터 사고력을 높여 어린이들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교사 자신이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식견을 바르게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학교통일교육의 기본방향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에 대한 관점이 크게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되었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교류가 남북한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문화적 교류분위기에 맞물려 통일정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통일교육이 급격하게 바뀌어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의 바탕은

첫째,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나가야

하며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 내용은 그동안 상실되었던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 관습과 언어, 역사와 민족정신을 되살리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심어 우리는 한민족임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시점에서 통일교육은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만이 접근 가능한 것이다.

초등학생들에게 북한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이야기며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가 '같음'과 '다름'이 있는 것처럼 북한도 우리와 '같음'과 '다름'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후에 통일된 한민족 국가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미래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를 어렸을 때부터 터득하게 해주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책임과 의무일 것이다.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영 민
제주중학교 교사

- I. 머리말
- II. 통일교육의 개념
- III.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 IV. 통일교육의 문제점
- V. 통일교육의 방향
- VI. 맺음말

I. 머리말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그 결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합심 협력하여 추진해야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결합공급(jointness of supply)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남북한 통일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우리 한민족의 염원을 달성하는 것이며, 더욱이 주변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효과(externality)적인 효용성도 내포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한민족의 내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90년대를 전후하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 연방의 와해, 독일의 통일 등으로 세계 힘의 구조는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도 탈 이데올로기화하여 각 지역별로 경제 불릭을 형성하며 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학 구조를 형성해 나아가게 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 주변 상황은 동북아 주변 4강이 상호간에 협력과 유대, 상호 의존을 통하여 안정화 구도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 구도는 남북한의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통일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는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최근 남북한간에는 경수로 사업, 금강산 관광, 남북 경협, 비료 지원, 차관급 회담, 농구 경기 대회 등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북한 잠수정 동해안 침투, 서해안 교전 사태 등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현재 독자적인 경제 회생 능력을 상실하여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 몇 천명에서 최대 30만~40만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사일 발사 실험 발표를 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다행히 베를린 북-미 고위급 회담의 타결로 미사일 발사 실험이 유예되기는 하였지만, 일련의 이러한 일들은 통일 논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통일교육은 이렇게 간단치 않은 한반도 상황을 전제로 한다. 냉전 시대의 이념적 대립, 경제 논리에 의한 국가간 경쟁 그리고 남과 북의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통일교육도 명칭이나 내용들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목표 설정이나 내용 선정 그리고 학습 방법 등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직된 사회 속에서는 획일적인 교수·학습이 관행화 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 합리성과 같은 가치들이 강조될 것으로 예견되는 21세기에는 유동적인 통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수·학습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통일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세계적인 보편성과 한국적인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고 민족 동질성의 추구하고 남북한 경쟁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통일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되었던 변화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행해져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통일교육의 개념

통일은 일정 영역 내의 이산 집단 내에서 개개인간의 이해와 견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여 필요한 변경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인 공동체의식(sence community)이 구성원들 간에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기구가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분단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규정될 수도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분단은 단일 생활권 지역의 국민이 분할된 것, 즉 국토 분할을 의미하며, 통일은 분단전의 국토 생활권 영역으로 단일화되는 것, 즉 국토 통일을 의미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분단은 하나의 통치권이 존재하던 곳에 복수의 통치권이 존재하게 된 것, 즉 국권 분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단일 정권에 의한 한반도 통치, 즉 단일 정부화를 의미한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분단은 다른 체제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생기는 생활과 의식상의 분열에 의한 사회 문화의 이질화, 즉 민족 분열을 의미하며, 통일은 생활 양식과 의식의 동질화, 즉 민족 화합을 의미한다.

결국 통일이란 국토와 국권 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사회·문화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북한이 다시 하나로 되는 국토 통일, 국민 통합과 더불어 민족 의식의 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영토나 정권의 통합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까지도 융화되는 정신적 통합을 함께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통일교육이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일 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가르쳐서 모든 국민이 균형 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

여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 통일의 당위성, 통일 의지의 함양, 합리적인 통일 방법의 검토, 통일의 조건, 통일을 위한 노력과 태도, 남북한 동질성 추구, 통일 조국의 미래상 등 통일을 준비하는 내용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을 함께 지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통일대비교육과 통일이후교육의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대비교육 - 통일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교육으로서 평화 공존 시대를 거쳐 통일을 이룰 때까지의 교육이다. 지금으로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 및 남북한간의 대화 추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태도, 사고, 가치관, 행동 규범 등을 습득케 하는 교육이다.

둘째, 통일이후교육 - 통일을 이룩한 이후 통일 국가를 완성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화에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태도, 가치관, 의식, 사고, 행동 규범 등을 이해하고 습득케 하는 교육이다.

결국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관련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진지하고 합리적·객관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추어 장차 통일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의 두 측면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생존과 체제 그리고 통일의 현실적 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춘 균형 있는 통일 안목의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Ⅲ. 통일교육의 변천과정¹⁾

우리의 통일 노력은 시대 흐름에 따라 국내외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모습의 통일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통일 정책 방향은 통일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분단 이후 1960년대까지는 통일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반공을 국시로 '선건설 후통일'을 표방함으로써 소극적 통일 자세로 일관한 시기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도덕 교육을 국정 교과서로 지정하여 반공 교육이

1)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은 교육내용에 의해 반공교육기(1948년~1980년대 중반), 통일안보교육기(제5차 교육과정), 통일교육기(1990년~현재)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연대별로 살펴보았다.

강화됨으로써 북한을 대결 상대로 규정, 적개심 고취에 주안을 두어 지도하여 왔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정부는 평화통일구상선언('70.8.15), 7·4남북공동성명('72.7.4), 평화통일의교정책선언('73.6.23),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74.8.15)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북한을 선의의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남북한 상호비방중지, 신뢰 회복을 위한 문호 개방 등을 북한측에 촉구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그 동안 배양된 통일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를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 통일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정책 전환과 '선평화 후통일'이라는 정책 기조 위에서 평화 통일 정책을 펴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북한의 통일 정책 비판과 우리의 통일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윤리 교육이 강조되고 통일 안보 교육의 지침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 같이 살아가야 할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한 대결 구조가 화해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시대적·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증대되었던 반공 교육의 개선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더불어 통일 의지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국민 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6년부터 반공 교육이라는 용어를 통일 안보 교육으로 대체하고 제5차 교육 과정에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1990년대에 와서는 우리가 그 동안 이루어 놓은 경제 발전, 적극적인 북방외교 정책 등 눈부시게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주도하게 되었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등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통일 안보 교육을 다시 통일교육으로 개칭하기에 이른다.

이상에서 통일에 관련한 교육은 '80년대 중반까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도를 달리해 왔을 뿐 '반공 교육'으로 일관했고, '86년 5차 교육 과정에서 '통일 안보 교육'으로, 그리고 '92년 6차 교육 과정과 '97년 7차 교육 과정에서는 '통일교육'으로 점차 발전적 과정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다.

IV. 통일교육의 문제점

통일교육의 목적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 계획 하에서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해력을 원리적이고 이론적 수준에서 배양하여 통일을 성취하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장차 통일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에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공 교육, 반공 교육, 멸공 교육, 승공 교육, 국방·안보 교육,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이념 교육, 안보 교육, 국민 정신 교육, 통일·안보 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일 관련 교육이 실시되면서 분단 고착화로 혹은 지나치게 안보 논리 차원으로 흐르지 않았느냐는 비판과 함께, 통일교육이 명확한 교육학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정책상의 고려에 의해 혹은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political selectivity)에 의해 실시됨으로써 이론적 체계나 교육 내용 및 방법상의 일관된 틀을 지니지 못한 채 그때 그때의 정치적 목표 구현에 동원되는 우를 범해 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통일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통일교육의 명확한 지침이나 계획,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방법, 평가 그리고 통일교육의 지원 관리 체제 등이 일관되게 실시되지 못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는 임기 응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와 통일부가 선정한 통일교육의 목표가 있어 왔지만 통일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교육 또는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내용까지는 다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교과 통합적, 가치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과나 국민윤리과 혹은 사회과나 국사과의 특정 과목에만 편중되어 실시됨으로서 기대하는 만족한 성과를 얻기에는 부족하였다.

나아가 통일교육 내용을 다루는 특정 교과들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대부분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 학년이 거의 끝나 갈 무렵에나

다루어지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학습 평가가 종료되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것에만 민감해져 있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국·영·수 위주의 주지 교과만이 중시되는 현재의 교육 풍토에서 도덕과나 사회과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암기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도 통일교육의 성과가 미진한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분단국의 현실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교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인 입시 제도가 노정한 주지 교과 위주의 학교 교육 풍토 속에서 통일교육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감정과 정의적 측면을 중심으로 교과 중심의 주입식 교수·학습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6·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에게는 동기 유발과 흥미 유지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감까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교과서 분석을 위주로 한 한 연구에서는 교과서 속에서 기술된 북한 관련 내용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적대 감정을 갖기 쉽도록 부정적 측면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 유의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① 북한 주민들은 상대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 ② 북한은 공산당의 명령에 무조건적 복종을 하는 기계적인 인간을 만드는 일률적인 사회이다.
- ③ 북한은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사회이다.
- ④ 북한 지도층의 주민 통제의 성과를 과대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교과서에서의 통일 및 북한 관련 내용과 이의 주입식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인식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통일 의지를 길러주기 보다는 편향적인 사고 방식을 길러주기 쉬우며 통일 조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판적 인식을 고취시킬 우려가 많은 것이다.

더구나 통일에 대한 합리적 사고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민주 사회적 기능들이 도외시 된 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호소하려는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참다운 민족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장애가 되어 왔다.

셋째,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남북한 문제나 통일교육의 내용을 제기할 때 우리의 주관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경우가 있었다. 공산주의 이론이나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북한 내부의 문제를 지적할 때에도 제공자나 출처가 불명확함으로써 설득력이 부족하기도 하였다.

현행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북한의 현실 가운데 김일성 부자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 측면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언어 생활에서는 북한이 호전적이고 투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외래어의 이상한 표기법 등 우리와 의미가 다른 용어만을 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만 기술한 것이기에 타당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우리말 표기가 가능한 용어들마저도 무분별하게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몰주체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언어에 관한 한 오히려 훨씬 주체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긍정적 요소는 배제하고 부정적 측면만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북한을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인 사회로 본다든지 또는 북한 지도층이 요구하는 주장과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은 점 그리고 북한의 사회 제도나 생활 방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를 하는 것은 실상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초에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대응 능력과 태도를 함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저해함은 물론 오히려 이질감만 부추기는 것이다.

넷째, 통일교육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차 이루어질 통일 조국 속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할 민주 시민의 육성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들과 상대했을 때 건전한 민주적 사고 방식을 동원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통일 조국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볼 때 공산주의의 모순 점을 지적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우월성만을 강조해 왔을 뿐 민주 시민의 육성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다섯째, 일부 교사들의 사고 구조가 기존의 반공 교육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단편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일은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 행위의 산출물이며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참여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교육은 극히 경계하고 지양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외에도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각종 자료와 연수 기회의 부족 그리고 통일에 관한 시사 자료 및 각종 시청각 자료 등 교수·학습 자료의 미비 등도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V. 통일교육의 방향

과거에 통일교육이 남북한 각각 상대방의 실태 파악에 있어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강조되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흘렀다면,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을 누리는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으로 민족 통합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체득케 하며 통일된 조국의 세계사적 역할과 지위 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이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민족 공동체 의식을 적극 고취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²⁾

오늘날 남북한 관계 개선의 장애 요인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민족의 이질화와 상호 불신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내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일 국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 주민이 민족 공동체의 성원으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의식의 혼란을 극복하고 민족 공동체 속

2)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학생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민족공동체 의식은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1천 여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7.2%만이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우리 민족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의지를 보이고 있는 학생은 17.1%에 불과하고 북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생은 3.7%에 지나지 않으며 69.1%가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 "중학생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교육제주』(통권 96호, 제주도교육청, 1997), p.103.

에서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과 민족 공동체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민족 공동체 교육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 전통, 문화의 재확인을 통해 남과 북에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적대 의식과 불신감을 해소하고 서로가 관용, 화합, 협력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여 앞으로 이룩해 나아갈 민족 공동체 속에서의 이상적인 행동 양식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온 민족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갈라져 있는 민족을 하나로 묶어 놓고 있는 바탕이며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질화된 민족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체적 삶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은 더욱 절실하다.

둘째,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통일관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각이요, 체계화된 견해이다. 대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내면화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올바른 통일관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통일관을 가진 학생은,

① 맹목적인 민족 우월주의나 민족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장애 요소인 조국 분단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지닌 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분단의 역사적 배경, 그 중 특히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동시에 분단 이후 북한의 실상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남북한간의 이질화의 실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였는가를 파악하고, 또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자이다.

② 남북한간 이질화와 민족 상잔의 불행한 과거를 이유로 공동체 의식 형성에 회의감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남북한간의 민족적 동질성에 깊은 신념을 가진 자이다. 분단 반세기는 4천년의 기나긴 민족사에 비추어 매우 짧다는 것과 문화·역사·관습·언어 등의 단일 민족으로서의 압도적인 동질성이 현존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남북한의 끈기 있는 노력에 의하여 공동체 의식을 뿌리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자이다.

③ 무조건의 감정적인 입장에서 통일만을 염원하는 자가 아니라, 통일의 당위성을 냉철하게 지적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단과 대결로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통과 손실, 그리고 통일을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다각적으로 분석 제시하고, 남북한은 물론 해외 동포까지 포함시켜 한민족의 발전과 그에 따른 영광을 달성해야겠다는 자각과 의지를 가진 자이다.

④ 통일 국가의 실현에 대하여 한반도의 변수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자이다.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과 남북한의 국가 지도 이념, 통일 정책 등을 파악하고,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 비추어 북한의 변화 방향과 변화의 필연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이다.

⑤ 통일 지상주의에 빠져 어떤 조건하에서도 통일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의 한계를 알고 있는 자이다. 통일 국가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과 인권의 존중, 삶의 질고양 등 인간의 기본권은 준수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지닌 자이다.

⑥ 통일 국가를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국가와 그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지니고 있는 자이다. 통일 국가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그에 도달키 위한 과정 및 단계와 통일 후 통일 조국이 직면하게 될 많은 대내외적 난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준비가 어떤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안보 의식과 이념 교육 위주의 분단 체제 지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통일 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의지 및 사명감 등 정의적 측면만 강조하고 통일에 대한 태도나 의식의 밑바탕이 되는 체계적인 지식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현행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식의 바탕 위에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 및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통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남북한 통일에 관련된 제 문제들을 보다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통일이 단순한 두 개의 정부 통합이라는 제도적인 의미 이전에 민

족사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의 발전 즉, 당위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일을 강조하여 통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민족 분단의 배경과 성격, 분단의 고통과 손실 등 통일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오늘날 국내외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정확한 시각과 체계화된 견해를 갖출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민주 시민 교육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주적인 생활 규범 등에 대한 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공통된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할 때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 결정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장차 통일 세대들인 청소년들은 통일 국가 속에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통일교육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민주적 태도와 민주 시민적 자질의 배양은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도울 수 있어 통일을 앞당겨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발생할 갈등을 해소하고 후유증을 극소화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킬 때 통일 문제 논의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발휘하여 통일 관련 제반 사회 갈등의 성숙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생활 습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해와 관용, 갈등 사태의 민주적 해결과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기반으로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통일 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없애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통일교육 현실을 돌이켜보면 비판적 사고의 함양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북한 사회의 모순이나 실상을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도는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 강요하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능동적인 입장에서 북한 사회나 공산주의 이념의 오류를 비판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봉쇄 당한 채 오직 교사 또는 교과서가 요구하는 문제의 구조화된 위계에 부합하여 대답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실정을 감춘다든가 축소 평가를 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등의 흑평을 하여 단지 경계와 적대 의식을 일으키는 감정적인 차원의 교육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객관적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편견 해소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동질성을 확보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열린 교육(open education)이 되어야 한다.

열린 통일교육의 수업 방법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다양한 주장과 개방된 논의를 허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 사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린 통일교육의 수업 목표는 민주주의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지향할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남북한의 차이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린 통일교육의 수업 내용은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교과서의 지식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 통일교육의 내용은 북한의 현실에 관한 사실적인 정보, 통일 문제와 관련되는 시사 정보 등을 다양하게 다루기 때문에 교과서의 고정된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 지식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융통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린 통일교육의 수업 방법은 학습 주제를 학생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토론식 수업이 적절할 것이다. 학생들은 토의를 통하여 일정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학생들이 수집하고 탐독한 다음, 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통일교육 전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입시 제도하에서는 통일교육의 획기적 개선이 한계가 있고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도덕·윤리, 사회 교과와 암기 학습 영역을 탈피하기가 어렵다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은 범교과적으로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입 위주의 일방적 강의 방식보다는 실증 사례 중심의 토의식 탐구 학습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석,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체험적 통일 의식 함양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교과와 특별 활동을 활용, 「시사반」이나 「통일반」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각종 교육 활동에서 통일 관련 주제를 반영시키는 것 등이 주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밖에 학생들의 단체 활동, 현장 학습, 유적지 답사와 같은 활동에서도 통일교육 관련 주제를 교육 소재로 활용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국립묘지, 현충원, 북한관, 통일전망대, 판문점, 임진각, 땅굴, 전쟁기념관 방문 등도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VTR, OHP 등의 시청각 학습과 함께 Role Playing, Simulation Game 같은 모의 학습, 신문을 활용한 수업 (Newspaper In Education),³⁾ 가상 학습자료의 개발 보급 등도 필요하다.

통일교육 전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통일 관련 연수 기회를 보다 확충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심화와 개발을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9.2%가 'TV·라디오' 또는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서로 일치되고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준고, 앞의 글, p. 102.

일곱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웹사이트·홈페이지의 개설 등 인터넷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인터넷에 「사이버 통일교실」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언제든지 통일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민 PC」의 보급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VI. 맺음말

현 정부는 포용과 평화 공존 공영으로도 표현되는 대북 정책을 수립, 실천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연방제 방식의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포용 정책을 '흡수 통일을 위한 위험한 모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임에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이후에 탄생시켜야 할 국가를 만들어 이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통일 세대들을 교육시키는 일 또한 현실 속에 직면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과거에 통일교육은 체제 우월성 강조와 수세적 안보 논리에 치우침으로써 올바른 통일관 형성에는 오히려 역기능적이었다.

본고에서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첫째,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둘째,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감정과 정의적 측면에 치우쳤다.

셋째,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넷째, 민주 시민으로서의 육성에 미흡했다.

다섯째, 일부 교사들의 사고 구조가 반공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교사 연수의 체계성 미흡, 연수 기회 부족, 연수 프로그램의 제한 현상과 통일에 관한 시사 자료 및 각종 시청각 자료 등 교수·학습 자료의 미비 현상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화해와 협력 시대 속에서의 새로운 통일교육은 불신과 대립 속에서 쌓아온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탄력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첫째,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

둘째,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시키는 교육

셋째, 민주 시민 육성 교육

넷째,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없애는 교육

다섯째, 열린 교육

여섯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모색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

일곱째, 인터넷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개선해야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학과별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개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현행 교과별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하여 가급적이면 관련된 모든 교과를 포괄, 범교과적으로 취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즉, 교육 내용과 소재는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 중심으로 구성하고, 토론식 수업 모형의 확대 발전으로 열린 교육 방법을 통한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과 이후에 살아갈 순기능적인 인간 즉, 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가르쳐 주느냐라는 내적 실천 정도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이 광 일
오현고등학교 교사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침체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는 지난 6월 서해 교전 사태와 북한의 핵개발 시인에도 불구하고 7~8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어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 남북축구경기, 태권도 시범단 교환, 북한 경제시찰단의 입국, 상설 이산 가족 면회소 설치 등이 합의와 실천을 통하여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부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와 응원단은 민족화해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의 움직임들은 -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해 사회주의 원칙 고수 아래 최대한의 실리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관리 개선지침」을 제정하고, 2002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한 이후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발표(9.19), 일본 고이즈미 총리 방북(9.17)으로 역사적인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4개항의 「북·일 평양선언」을 발표 등 -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장미빛 소식으로 남북간의 관계 개선 및 평화 정착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늘 그래왔듯이 한반도의 제반 문제는 항상 순탄하게만 이어져 오지는 않았다.

지난 달 부산 다대포항에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면서 인공기를 휘날리는 북한의 미녀 응원단들을 환송하고 격려해주며 돌아서는 순간, 북한은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또다시 남북관계에 난제로 작용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여러 가지 남북 개선의 과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

국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며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통일 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 즉, 학교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남북관계를 예측하여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니 우리는 이런 자세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해주기가 어려운 것이 학교통일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통일교육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오늘 주제인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하신 차우규 연구위원께서는 7차교육과정 도덕교과 집필진으로서 통일교육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던 분으로 교사나 통일교육담당자가 학교현장에서 지녀야 할 이론적 접근이나 지도방법등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토론자는 학교통일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 그동안 통일교육현장에서 궁금한 점들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1. 학교 통일교육에서 느끼는 과제들과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제 쟁점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째, 통일교육의 개념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단순한 절충형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 공동체의 통일 국가를 추구하려는 것임을 명백히 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경직되게 강조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흡수통일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경직된 통일방안의 강조가 상생과 공존의 통일 지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체제를 바탕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지니고 살아온 두 당사자가 통일을 추구하려면 양자가 공감

하는 부분을 먼저 내세워야 서로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남북한이 당장의 제도적, 법적 통일을 실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현재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의 개념은 통일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일된 이후의 국가체제를 쉽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민족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통일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한 통일교육의 개념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공존의 통일을 보다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수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구조의 이중성 문제입니다.

상황의 이중성이란 통일문제에 탈냉전 조류와 냉전적 관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조의 이중성이란 통일문제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며, 현상유지의 문제이자 현상타파의 문제임을 뜻하고, 동시에 북한은 우리의 안보위협세력이자 평화통일 동반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황과 구조의 이중성이라는 내재적 특징을 갖고 있는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균형적 인식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1) 북한에 대한 정의의 문제

북한은 우리에게 적과 동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보안법을 운용하고 있는 한편, 제4조 통일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남북간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은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나타나는 딜레마이기는 하지만,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해온 그간의 통일교육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민족을 중시하는 한민족 공동체주의는 전체 사회분위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현실로,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살아야 할 대상', '공존'의 가치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혼돈과 갈등이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물론 정부는 '안보의 필요성'과 '화해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두 차원을 균형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북한을 적의 모습에서 동포의 모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민족 문제와 국제 문제의 이중성

남북 통일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남북한 당사자로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민족 자주 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은 서로 다르다. 각 국은 그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남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국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지만 주변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와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미군이 상주하고 있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한반도의 남북관계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북한이 사실상 '선 핵포기'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불가침조약을 제의하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국내외적 이중성의 문제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주변국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과 새로운 지역적 협력관계, 통일이후의 외교관계와 공동의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해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에 대해 상호 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교육 교사의 인식과 교육적 자율성 문제입니다.

학교통일교육을 담당한 교사가 어떤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 통일 교육의 내용과 자료의 선택, 교육의 방법이 달라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교육현장의 교사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이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 자신이 먼저 통일에 대해 신념화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가치관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정부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등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와 남북 문제를 보는 인식의 차이에 따라 통일 교육을 담당해 온 관련교과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과 교사들간에도 상당히 다른 입장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다원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원인은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 없이 일부 언론들의 관점에 따라 영향 받은 바도 크다.

교사들에 대한 통일 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 교사들이 어떤 교재나 자료를 사용하고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교사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교육적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된 공문에 의하면 “최근 편향된 북한관과 통일관에 의한 일부 교사들의 임의 통일 교육이 우려되는 바, 각급 학교에서는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에 배치되는 임의 통일 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현장에서 통일교육지침서에 안내된 자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지만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애매할 수밖에 없다.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자료들의 출처는 대부분 통일부의 공식 자료들과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인데, 사이버 공간에는 수많은 북한관련 웹사이트와 통일관련 웹사이트들이 구축되어 있어 객관성과 임의성 시비는 항상 상존한다.

따라서 적어도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자료가 의도적 편향성을 지니

고 통일교육의 객관성이 저하되도록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균형적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면 교사들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발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통일부나 교육부의 제도적,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교육현장의 교사들에게 통일 관련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난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민 253명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그 성과에 대해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일선 통일담당교사는 참가자 명단에 없었다.

넷째, 학생들이 통일과 통일 교육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 문제입니다.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습자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탐구는 현재의 학교 통일교육이 과연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통일이나 통일교육에 대해 무관심은 개인주의적 성향, 정치적 무관심, 민족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의 요소와, 학생들의 현실적인 삶과 지나치게 유리된 학교통일교육의 문제, 그리고 학교의 통일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등의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남북한의 상반된 사상, 이념, 체제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통일 교육에서 벗어나, 민족의 동질성에 기반한 남북한이 함께 지니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부각시키는 교육, 체육활동 및 문화활동, 남북한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는 교육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통일 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7차교육과정은 6차교육과정과는 달리 통일을 문화적으로 접근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반도기를 흔들며 함께 입장하는 남북 선수단의 모습과 북한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 미녀들로 이루어진 북한 응원단의 신선한 모습들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의 태도는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의 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사이버 강의의 활용과 다양한 시청각 교재의 개발 및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진척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나 철도 등이 연결,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의 특구 지정으로 현장 방문의 기회를 확대하여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을 실감있게 체험하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7년에 걸쳐 여름 방학 기간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국토 순례 도보 행군을 실시했었다. 학생들과 함께 국토종단, 반도의 허리인 민통선 지역 횡단, 백두산 등정 및 두만강 인접(도문) 답사, 그리고 금강산 등정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체험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다섯째,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학교통일교육의 전체적인 변천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관계의 부침과 이에 따른 국내적 상황의 변동, 국제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초기에 실시된 반공교육(미군정기~제4차 교육과정기)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멸공을 통한 통일을 추구해 왔으며, 통일·안보교육(제5차 교육과정기)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동시에 동포애의 양면성을 부각시켰고, 화해·협력 시대에 알맞게 개편된 통일교육(제6차 교육과정기)으로 변화되어 왔다.

즉 통일교육의 내용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로 햇볕정책, 즉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12월 대선 이후 만약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 향후 통일교육의 핵심내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러한 일관성의 결여는 일선 통일 담당교사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다른 이유로 발표자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육 문제는 그 동안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어서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려 정치적으로 곤혹을 치르게 되느니 이 문제를 피하고 보자는 통일 교육 전문가들이 소극성에도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이다.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정리하는 일은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측면에서 급변하는 남북관계에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의미는 무엇인가?

남북화해·협력시대에 통일교육의 방향은 무엇보다 추상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통일교육, 당장의 통일을 '꿈꾸는' 당위론적이고 규범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사실상의 통일을 전제한 민족화해와 공존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방식이나 견해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에서부터 출발하여 50여년간 상이한 이념과 체제속에서 다른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과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시키는 교육이다.

아울러 남북 문화, 의식, 생활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국제 협력을 유도하는 열린 민족주의 입장에서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무분별한 감성적 차원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이해와 냉철한 판단 접근이 중요하다.

학교통일교육은 '통일'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즉 평화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평화 교육을 통한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평화적 분쟁해결 능력'을 길러주며, 학생들의 개별적 심리내면화를 통한 '통일 무관심'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공존교육, 정체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미래 통일을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학교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남북한 불신과 대결을 불식하고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 ②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평화의식을 함양한다.
- ③ 남북한 신뢰회복과 상호이익 도모를 위한 화해·협력의식을 배양함으

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대비한다.

- ④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주민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 ⑤ 오랜 분단과 체제·이념의 차이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⑥ 민주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내용측면에서 화해·협력시대에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체계는?

통일교육은 기존의 정치 이념적 접근에서 생활·문화적 이해교육으로 남북한 공동의 가치를 찾아내고 만들어 가는 교육내용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해·협력시대의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을 고려한 평화·공존교육 강조하고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합리적·생활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에 대한 특징과 아울러 그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소개할 경우 주민들이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 보다는 실제적 삶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실 및 주민들의 생활상을 남북한간 직접 비교를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수용 또는 비판의 관점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한 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하여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고 있는 두 지역 주민들이 하나된 의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접촉과 대화,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분단의 폐해와 통일의 필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이 모두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기 위

해서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양측이 대규모 병력과 군사장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엄청난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어 평화상태를 통해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이익과 혜택을 안겨줄 수 있음을 강조하여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을 연결시키는 통일교육의 당위성을 구체화시킨다.

셋째, 방법적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은?

시대가 변하고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교단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의 교실에 43인치 프로젝션 TV, 펜티엄 컴퓨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들이 설치되었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랜(LAN)선 설비가 끝남에 따라 이러한 교육 설비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방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교육은 OFF LINE 교육이 가지는 인적·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현 교육이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이 가지는 교육적 장점을 살려 학교통일교육에서 학생들의 통일관련 수업의 흥미유발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ICT활용을 통한 다양한 통일교육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쟁점중심의 통일교육 수업과 ICT 활용의 접목으로 기대되는 학습효과는 통일에 대한 쟁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상이한 통일관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고, 실시간/비실시간 대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토론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형태로 여러 통일자료를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을 통해 수집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교수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신장 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근래에 사이버자료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공유가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센터(uniedu.go.kr)나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와 언론사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많은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탑재되고 있어, 교사의 관심에 따라서는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제주도내 초·중·고교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에 교육부의 인터넷 평화학교 (<http://tongil.moe.go.kr>) 사이트를 배너화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인 통일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들간에 상호 보완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하기도 하다. 현재 사이트는 로그인을 통한 사이트 접속 방식이 아니므로 정기적인 회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학습 진행 상황이나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따른 적절한 feedback을 줄 수 없는 사이트 구조이다. 또한 각각의 사이버 통일교육이 다른 것과 차별화 되는 특화(特化)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기관들 간에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기관의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모색

황 미 나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I.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

지난 2000년 6월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은 지난 55년 동안의 남북간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시키며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시대를 여는 출발점을 마련해주었다.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교사로서 더욱 강한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키우며 화해·협력의 분위기에 편승하는 새로운 통일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다.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북한을 경계의 대상과 화해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모습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하는 북한에 대한 정의의 문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며 이를 어떻게 교육현장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폐쇄적 자주'로 나아갈 것이냐, 국제화에 부응한 '열린 자주'로 나아갈 것이냐의 민족 문제와 국제 문제의 이중성 등과 같은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최근 6월의 서해교전, 10월 북한 핵 파문, 그리고 남북·해외 각 계층의 단일기 아래 공동 입장한 부산아시안게임 등 만감이 교차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견해조차도 교사들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적용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으로서 6차 교육과정에서의 작년과는 또 다른 환경을 맞이함에 따라 현장교사들은 여러 가지 어렵고도 혼돈스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에 '통일교육의 제 쟁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분의 내용 중 '현재의

북한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습을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제 발표자의 말씀에 매우 공감하며, 현장교사로서 현 고등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실천적 의지와 노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다져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먼저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중 총 1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21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은 지금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윤리 시간에 단원 구조상 가장 마지막 단원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받아 온 반면, 설문조사 대상이 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현재 주당 1시간의 도덕 시간을 통하여 단원 구조상 2학기 동안 통일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이므로 분명 통일교육의 환경 여건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여기서는 교과시간을 통한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이 토론자는 작년 중앙여자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년 2월 1일 실시하였던 통일의식 설문 조사 결과와 이번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파악하여 현 통일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이를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6차교육과정 적용 대상 고등학생들의 통일관과 북한관

다음은 고등학생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앙여자고등학교 1·2학년 총 74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년 2월 1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통일의식 조사 결과이다.

1. 고등학생들의 통일관

고등학생들의 통일관을 조사하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방법, 통일국가의 미래상,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통일의 주체세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5% 정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나 68%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볼 때, 고등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태도는 다소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응답자의 5%만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대다수인 72%가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견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통일의 가능성이 적거나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13%에 이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23%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77%가 내용을 모르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북한의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16%만이 알고 있다고 반응한 반면 대다수인 84%가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많은 고등학생들이 남북한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무척 낮고 관심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 고등학생들의 북한관

고등학생들의 북한관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식 정도, 북한 관련 정보 획득원, 북한 방문 의사, 북한 방문 희망처,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 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응답자의 79%가 북한에 대하여 적게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북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지식 정도는 낮은 수준이며, 북한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는 전체응답자의 대다수인 84%가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으며 반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11%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88%가 방문을 방문하고 싶어하며 제일 가고 싶은 곳으로는 금강산과 백두산 등 명산이 39%, 북한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 22%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보아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자연 등 북한에 대해 높은 호기심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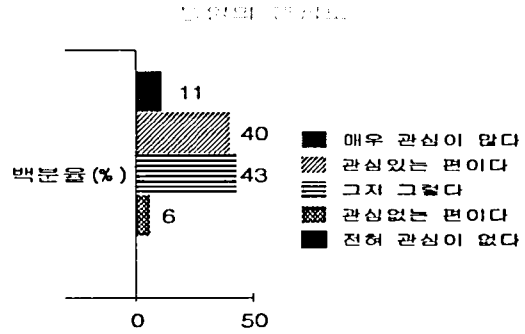
북한 사회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도를 보면, 북한 사회를 전체응답자의 19%가 같은 민족의 다른 국가로 보고 있는 반면 오히려 56%가 자유 없는 폐쇄국가로 보고 있으며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43%를 같은 민족으로 보면서도 49%가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일반 주민에 대하여 민족의식, 동료의식, 연민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Ⅲ. 7차 교육과정 적용 대상 고등학생들의 통일관과 북한관

1. 도표를 통해 본 현 고등학생들의 실문 응답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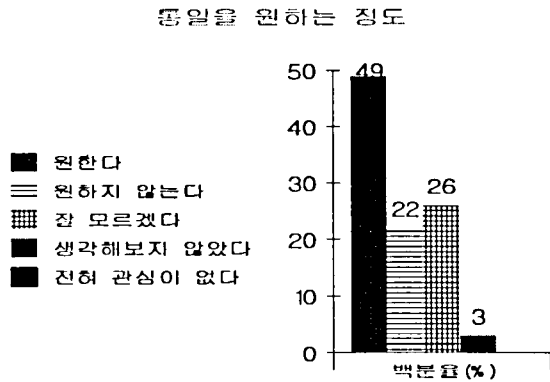
1) 남북한 통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백분율 (%)
①매우 관심이 많다	11%
②관심있는 편이다	40%
③그저 그렇다	43%
④관심없는 편이다	6%
⑤전혀 관심이 없다	



2) 남북한 통일을 원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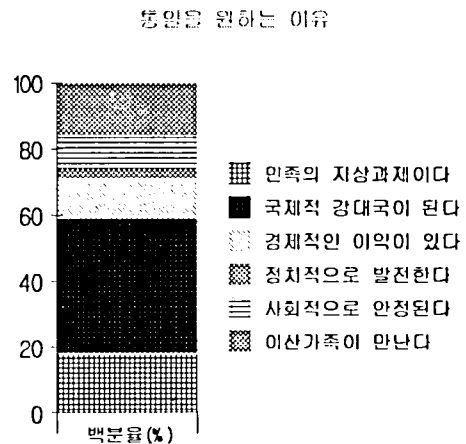
	백분율 (%)
①원한다	49%
②원하지 않는다	22%
③잘 모르겠다	26%
④생각해보지 않았다	3%
⑤전혀 관심이 없다	



3) (통일을 원하는 경우만)
=(49명을 대상)

통일을 원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백분율 (%)
①민족의 지상과제이다	18%
②국제적 강대국이 된다	41%
③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12%
④정치적으로 발전한다	3%
⑤사회적으로 안정된다	10%
⑥이산가족이 만난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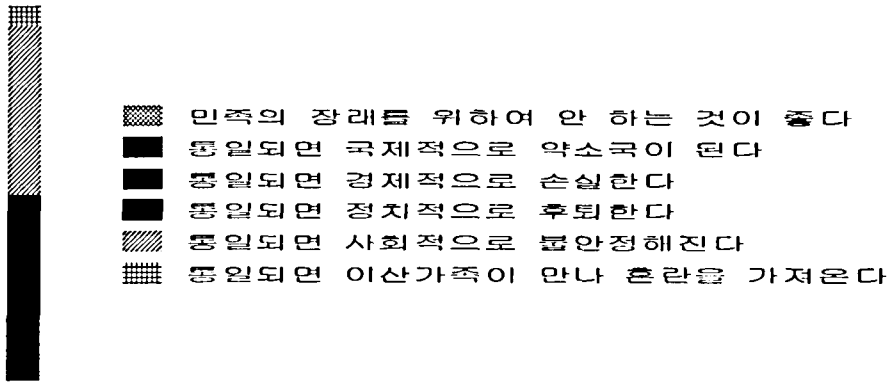


4)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만)=(22명을 대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백분율(%)
①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안 하는 것이 좋다	
②통일되면 국제적으로 약소국이 된다	
③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손실한다	50%
④통일되면 정치적으로 후퇴한다	
⑤통일되면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진다	45%
⑥통일되면 이산가족이 만나 혼란을 가져온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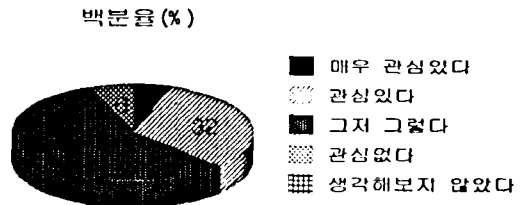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5)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북한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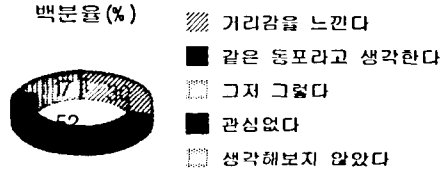
	백분율 (%)
①매우 관심있다	5%
②관심있다	32%
③그저 그렇다	57%
④관심없다	6%
⑤생각해보지 않았다	



6)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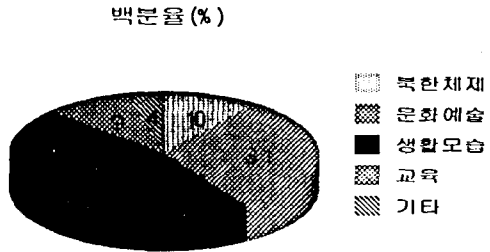
	백분율 (%)
①거리감을 느낀다	30%
②같은 동포라고 생각한다	52%
③그저 그렇다	17%
④관심없다	1%
⑤생각해보지 않았다	



7) 북한의 어느 분야에 특히 관심이 있으십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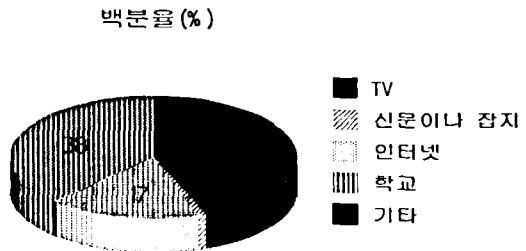
	백분율 (%)
①북한의 체제	10%
②문화예술	31%
③생활모습	46%
④교육	9%
⑤기타	4%



8)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가장 많이 얻고있습니까?

북한정보 취득방법

	백분율 (%)
①TV	44%
②신문이나 잡지	1%
③인터넷	17%
④학교	38%
⑤기타	



9)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백분율
①아주 잘 알고 있다	
②어느 정도 알고 있다	23%
③보통이다	31%
④잘 모르고 있다	41%
⑤전혀 모르고 있다	5%



2. 고등학생들의 통일관

고등학생들의 통일관을 조사하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을 원하는 이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통일을 향한 통일과정의 속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북한 통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만이 관심이 없는 반면 51%는 관심이 높거나 43%는 보통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남북통일을 원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49%만이 원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22%는 원하지 않거나 29%가 잘 모르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한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 49명중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국제적 강대국이 된다'는 점에 41%를, '민족의 지상과제이다'라는 점에 18%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22명 중 50%에 달하는 응답자가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손실한다'에, 그리고 45%가 '통일되면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진다'에 그 이유를 선택하고 있었다.

3. 고등학생들의 북한관

고등학생들의 북한관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심도, 북한인에 대한 인식, 북한 관심 분야, 북한 정보 취득 방법, 대북 정책의 인식 정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관심 없다'에 6%의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94%가 보통 이상의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52%가 '같은 동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30%가 '거리감을 느낀다'에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6%가 북한의 생활모습에 관심이 높았고 다음으로 31%가 문화예술 분야에, 10%가 북한체제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38%가 학교교육에서 얻고 있었고 나머지 62%가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는 54%가 보통 정도 알고 있으며 나머지 46%는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IV.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보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

1. 6차 교육과정 적용 학생들과 7차 교육 과정 적용 학생들의 설문 결과 비교

6차 교육과정 적용 학생들과 7차 교육 과정 적용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들의 통일관을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 학생(윤리 교과를 통해 6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은 현재 2·3학년 학생)들의 65%정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금년도 학생(도덕 교과를 통해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은 현재 1학년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이 없다'의 6% 학생을 제외하고 대다수인 94%가 보통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전년도 학생들이 68%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금년도 학생들은 22%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응과 29%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통일 정책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인지도면에서 비교해 보면 전년도 학생들이 84%가 모른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금년도 학생들의 경우 46%가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금년도 학생들이 전년도 학생들에 비해 29%가 높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을 원한다는 반응도 전년도 학생에 비해 18%가 높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 정책이나 방안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작년도 학생들이 84% 모른다는 반응에 비해 금년도 학생들

이 46%가 모른다는 반응을 보여 인지도도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전히 22%가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29%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법과 노력 그리고 통일 대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고등학생들의 북한관을 비교하여 보면, 금년도 학생들이 전체응답자의 94%의 응답자들이 북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관심 중 46%가 북한의 생활모습에 그리고 31%가 문화예술 분야에 두고 있으며 북한을 52%가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전년도 학생들은 22%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 그리고 39%가 백두산과 같은 명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43%가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금년도 학생들이 역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높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포임을 느낀다는 반응도 전년에 비해 높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금년도 학생들이 38%를 학교교육에서, 62%를 대중매체에서 얻는 반면 전년도 학생들은 학교교육에서 11%를 그리고 대다수인 84%가 대중매체에서 얻고 있음을 볼 때 학교교육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통일교육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한 학교 통일교육 환경의 긍정적·부정적 여건 고찰

위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하여 작년도 학생들과 금년도 학생들의 통일 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요인을 학교 교육 현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교 통일교육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과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고찰하여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을 이로서 대변하고 나아가 학교 통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학교 통일교육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

- ① 도덕 교과서의 구성 : 금년에 와서 새롭게 접한 도덕 교과서는 크게 2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한 대단원이 통일에 관한 내용

으로 한 학기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6차의 윤리 교과서가 상당한 교육량과 대다수 주입식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구성과 달리 7차의 도덕 교과서의 구성이 축소된 교육량, 읽기자료 활용, 함께하기 활동 등의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내용과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전차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의 다양화와 개방화 : 과거에 비해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가 풍부하고 개방화되어 있다. 인터넷, 신문, TV 등 대중매체의 영향과 각종 기관 및 단체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노력이 증대되면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이전과는 다른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모습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최근 뉴스,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 만화, 영화, 노래 등의 동영상을 수업에 활용하면 대단한 관심과 호응도를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로 찾아볼 수 있다.
- ③ 다양한 수업매체 활용한 학생 중심의 수업 전개 : 금년에 저희 학교에 만들어진 ICT 교실은 비디오, 동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수업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개인별 및 조별 수업을 단원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어 일반 교실 환경보다 학생 중심의 수업을 전개하는데 유리하도록 조성되어 있다. 작년까지 학생 중심의 수업에 비해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위주의 주입식 수업 방식에 비중을 두어 전개해 온 수업을 접한 학생들보다 학생 중심의 수업에 익숙한 금년 학생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설문 결과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 ④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열린 교육과정 운영 여건 :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과시간에 부족한 통일교육을 더욱 보충,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교육과정상 열려 있다는 점은 통일교육에 긍정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나. 학교 통일교육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

위에서 제시한 학교 통일교육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은 변수들을 제외한 학교 현장의 환경이라는 부분적 요인만을 놓고

검토한 것이라 이것들만으로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상당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단정하기엔 다소 시기상조이며 일부분을 보편화시키려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라 하겠다. 과거에 비해 분명 통일교육 환경은 변했고 변하고 있으나 아직도 긍정적 여건보다 우리가 넘고 넘어야 할 어려움과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정신적 신념은 짧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확립된 신념을 실천 의지에 의해 행위로 표출되기까지는 지속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7차 도덕 교과서의 구성이 축소된 교육량, 읽기자료 활용, 함께 하기 활동 등의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내용과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일에 관한 내용으로 한 학기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고교 시절 동안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3년 중 불과 1학기에 지나지 않는다.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난 후 지속적으로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7차 교육과정에서 주당 1시간의 도덕 교과 시간은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엔 수박 겉핥기 식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고등학교에서 교과 시수 조절과 교원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되는 교과 재량활동이나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은 통일 관련 교과에 배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입시 위주의 주요 과목에 배정된다. 입시교육에 중점을 둔 학교 현장은 통일관련 특별활동이나 교육활동에는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학생들의 활동시간도 대단히 한정적이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시 위주의 교과목을 중시하는 의식도 통일교육을 전개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 요인이라 하겠다.

학생 중심의 활동과 다양한 수업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ICT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익명의 학부모님으로부터 주당 1시간짜리 도덕만한 교과목까지 ICT수업이니 뭐니 하면서 이동수업을 해 자녀가 무척 힘들어 한다면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학생 또한 자신들이 직접 탐구활동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칠판 수업을 통해 학습내용을 판서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수월하다는 생각을 선생님에게 피력하는 학생도 찾아볼 수 있다.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의 상을 마련해 주어도 맛이 없다며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북한에 대한 공개성과 개방성이 완전히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게다가 아무리 과거에 비해 자료의 개방화가 되

고 다양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료를 이용한 수업 내용의 계구성은 교사의 주관성을 반영하므로 보는 사람에 따라 내용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편파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자료의 중요성, 필요성, 효용성,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검증된 객관성을 지닌 자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며 앞으로 더욱 개발되어야 함을 암시하여 준다.

V.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언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의 통일의식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요인들은 더욱 강화해 나가고 부정적 요인들은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분명 통일교육을 통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하여 본 토론자는 이에 위에서 살펴본 통일교육을 전개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조언함으로써 이 발표를 마무리하려 한다.

먼저, 도덕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의 수업시간 확보와 통일관련 내용의 입시반영 비율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인 통일과 바람직한 인간성 함양의 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은 역시 도덕교과이다. 통일과 북한 관련 지식은 범교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등 정의·태도면에서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과는 무엇보다 도덕교과인 것이다. 도덕교과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 교육과정상 4~8단위 이상의 교과시간과 제량활동 시간까지 확보한 국어·수학·영어 과목에 비해 도덕 교과 시간은 2단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교육의 핵심은 수업이다. 아무리 통일의 당위성을 소리 높혀 강조하여도 수업을 통해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에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도덕 교과 시간 증대와 제량활동 시간의 확보, 통일 관련 내용의 입시반영 비율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각종 모의고사에서의 출제 비중 증대를 통해 그 중요성을 공식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육기관 및 단체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연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수업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교과실을 마련

하여야 한다.

앞서 통일에 대한 실천의지와 확고한 가치관의 내면화를 위해서는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 보다 학생 중심의 수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설문 조사 결과 살펴볼 수 있었다. 비디오, 동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수업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조별토의수업, NIE 수업 등 학생 중심 활동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다기능 교과실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다양한 통일 관련 행사와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최근 부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하여 한층 국민들 사이에 남북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어 있다. 이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여 교과시간 이외에도 그 분위기를 이어 나간다면 어느 때보다 통일교육의 효과는 높을 것이다. 1년 행사로 '한마음 한가족 통일마당'과 같은 전일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직접 꾸며보는 북한 음식 장터, 북한 놀이 체험, 북한 영화 상영, 북한 교과서 전시 등의 행사는 공부로 인해 정의적으로 메말라 가는 학생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적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짧은 시간속에서도 높은 통일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초·중학교가 점차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나 고등학교는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진정 통일이 민족 당면 과제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학교 현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장 및 교사의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 계획과 실천, 재정적 뒷받침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통일교육자료의 제작과 이를 뒷받침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산 지원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6. 제6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02. 11. 26(화), 14:00~16:40
- 장소 : 통일교육원 강당
- 참석 : 326명
- 주최 : 통 일 부
- 주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토론자 발표문

1.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
(윤기흥, 목동중학교 교사) (p.297)
2.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방연주, 시흥중학교 교사) (p.305)
3. 학교통일교육 실천방향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
(유은진, 성서중학교 교사) (p.318)
4.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
(이세형, 언남중학교 교사) (p.324)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

윤 기 흥
목동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면서

분단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통일운동의 역사에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라면 역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남북한의 공존을 모색해온 현 정권의 햇볕정책의 출발점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당시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통일에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으며, 또 그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통일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2년 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남북관계는 냉각기와 화해무드를 오가면서 끊임없는 부침을 거듭해 왔다. 최근 들어 지난 4월 금강산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최근의 스포츠 교류 - 통일 축구,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 및 응원단 참가 - 및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공사 진행, 북한 경제관료의 남한 산업 시찰 등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6월 북방한계선(NLL) 침범문제로 인한 연평해전의 발발 및 최근의 핵무기 개발 문제로 인한 심각할 정도의 위기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통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난(至難)한 문제로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담당자로서 여기에 자리를 함께 한 도덕과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사들은 현재와 미래의 남북관계는 물론 통일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통일의 전망과 비전을 심어준은 물론 사회의 통일운동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적인

입장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현실은 그러한가? 통일문제는 과연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가? 여전히 뭐라 이야기하기 불편한 문제나 예측불허의 문제 혹은 이론과 현실의 격차가 큰 문제로 슬쩍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서울시교육청과 통일부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실 통일교육에 대하여 크게 아는 바도 없으며 더군다나 현장에서조차 통일교육의 실천자로서 매우 부족한 본인에게 오늘 주어진 이 자리가 많은 부담을 주었지만, 우리 모두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민족의 큰 걸음에 작은 돌 하나를 놓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섰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주제 발표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2. 주제발표에 대한 몇 가지 고민

1)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에 관하여

현재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제가 사실상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다. 즉, 주제발표에 표현된 통일교육의 정의 역시 통일교육지원법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정의(定義)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통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이 단순히 법적·제도적인 통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통일 즉 평화정착과 모든 인적·물적 요소는 물론 가치관과 태도의 통합이라 하였을 때, 현재의 정의에서 나타나 있는 기본 이념의 틀은 자칫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의 문제를 낳게 된다고 생각한다.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왜 독일인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통일비용을 지불하게 될 흡수통일의 전철을 밟지말라고 조언하는가? 남북한의 통일이 근현대 세계사에서 기념비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제3의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하는 문제들을 제시해

보고 싶다.

다음으로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7가지 통일교육의 쟁점들과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통일 관련교육이 그동안 너무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통일(혹은 반공)교육이 정부 혹은 정권 차원의 체제 유지 수단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시기도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기에 이제라도 본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민족의 미래와 사활이 걸려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두번째의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나 그렇기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통일에 대한 국제적 환경과 관련지어 특히 미국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즉 우리의 통일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공화당 부시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북한을 악의 축의 한 나라로 지목하기 시작하여 클린턴 정부 시절 이루어진 대화의 성과를 뒤로 한 채, 북한과의 긴장을 촉발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남북한 간의 화해분위기 조성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남남갈등 발생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최근의 핵개발 문제와 연결지어서는 이미 KEDO 이사회를 통해 북한에의 중유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 포기 조건으로서 미국에 대한 불가침 조약 체결 제의와 미국의 선택개발 포기의 대북 강경책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교사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가는 정말 어렵고 곤혹스러운 문제이다. 여전히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지어 주제발표자의 표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자료”라든지 “합의된 가치나 검증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또한 통일교육 담당자로서 교사들을 고민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합의된 가치”나 “검증된 역사적 사실”을 판단하는데 교사들이 배제된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면 토론의 장(場) 안에서 논의해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도 있기에 더욱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한 청소년의 통일무관심은 쟁점이라기 보다는 이미 사실이며 태도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무관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조일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통일비용으로 인해, 혹자는 개인주의적 성향의 팽배로 인해 그렇다고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네크워크 세대의 특성으로 당연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산의 아픔과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역량의 소모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옛날에~”, 혹은 “내가 왕년에 말이야~”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처럼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제시된 정의나 쟁점이 무엇인가보다 학교통일교육 담당자로서 교사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제시내용을 객관적으로 수용하려는 전사회적인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학교통일교육을 통해 우리가 양성해야 할 인간형에 대하여 모두 7가지 성격을 제시해 놓은 주제발표자의 입장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교육법에 제시된 ‘홍익인간’의 이념에 기초하여 덕·체·지를 겸비한 전인(全人)이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민족적 과제로서 수용하여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해가 된다.

문제는 오늘날의 학교통일교육은 물론 전반적인 학교교육 자체가 전인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내용과 같은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다양한 지도방안, 그리고 더 나아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15년 이상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끄럽게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의 학생들이 점점 더 학교교육의 목표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지적에 대하여 명쾌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통일에 따른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간”을 들어보자. 같은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조차 조그

마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 혹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앞세워 희생을 감수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자칫 '구두선(口頭禪)'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향점을 가지고 끈질지게 목표를 달성하려는 소명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하여

주제발표자는 학교통일교육에 대하여 모두 12가지나 되는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여 주었다. 대부분이 다양한 교육이론과 접목된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학교통일교육의 담당자인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전개하는데 있어 분명한 관점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진다. 즉, 이는 통일문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다분히 기능주의적 관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통일이란 결국 통합과 균형,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긴 해도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날 각종 갈등과 부조화의 양상도 우리가 함께 감싸안고 가야 할 길이라면 갈등도 발전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남북한의 관계는 서로 상이한 체제와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는 갈등의 관계이지만 이러한 갈등과 대립, 충돌의 문화가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의 태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인 교육학 이론의 접근법을 통일교육의 접근법으로 변형시켜 빠짐없이 망라하다보니 다소 백화점식 전개 of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다소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제시한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를테면 자율적 접근법과 생활적 접근법 그리고 연계적 접근법에 주목하고 싶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통일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에 대한 신뢰와 교육내용에 대한 객관적 수용 태도인 것이다. 즉 교육주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내지 자율성 보장에 기초하여 학교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통일교육은 다양한 매체 특히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까지

는 북한관련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개방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남북의 청소년들이 '버디버디'로 교류할 날이 그리 멀지만은 않다고도 할 수 있겠다.

4) 학교통일교육의 지도방법에 대하여

제시한 7가지 영역의 다양한 지도방법은 그동안에 축적된 통일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지도방법들이 학교통일교육의 현장에서 다양한 평가 도구와 함께 활용된다면 대단히 유용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의 활성화 방안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문제는 통일교육에만 전념할 수가 없는 현재의 교단 상황인 것이다. 담임의 생활지도와 잡무 등이 본질적인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때로 수행평가의 경우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문제삼는 경우도 발생하여 활발한 교육활동과 창의력·문제해결력 학습활동이 위축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양하고 새로운 지도방법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평가보다는 객관식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 집단(모둠)활동보다는 개인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경우에 주제발표에 제시된 다양한 지도법은 매우 의미있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5)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특히 표준 통일교육교육과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통일교육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적응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관(官) 주도로 전개된다면 안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대선을 앞둔 보수-진보 대립의 정치지형 속에서 각 정당과 정파들이 통일문제(혹은 대북관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과 교사들이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연간 68시간의 특별활동 시간 중 10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우선 편성하도록 지침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3의 경우 34시간의 재량활동시간 중 최소 8~10시간 정도를 반드시 확보하여 중2 도덕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학습내용의 심화과정으로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설적인 통일교육 협동학교계획(ASP) 운영과 같은 문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과제이다. 물론 예산상의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작금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운영 실태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규모로 더 장기간의 연구를 담당해야 하는 계획이 수립될 경우 인력도 문제이거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로 보여진다.

한편 대입수학능력시험 및 모의고사에서의 출제가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은 학교통일교육의 당위성을 감안하였을 때 다소 부자연스럽다. 모든 교육활동의 결론은 대학입시라는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의 한 단면이기는 하나 시험문제의 출제를 제도화하여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논의는 교사로서 다소 당혹스러운 일이다. 자칫 모든 교과목의 교사들이 유사한 논의를 전개한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았으면 한다.

3. 맺는 말

학교통일교육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오랫동안 해온 결과로 이루어진 발표에 대하여 평소에 느꼈던 생각을 거칠게 말씀드렸다.

평소에 민주주의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답과 달걀의 문제’로 “제도가 먼저냐, 태도가 먼저냐?”를 묻곤 했다. 결국은 처음도 끝도 아닌 맞물린 톱니바퀴로 마무리 짓곤 했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게 된다. 통일교육의 담당자들의 문제인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지원의 문제인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의 제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부정을 위한 부정을 억지로 고집하

는 교사가 어디 있는가? 가치관의 차이로 사물과 사건을 달리 해석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 지식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숨겨진 사실을 발굴해 내지 못한 경우 우리는 무엇을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서로를 해치기 위한 일이 아니라면 상대에 대한 신뢰와 함께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교사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도 중요하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교사들의 통일교육 연구를 위하여 북한관련 자료도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전문성은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접할 때 확보될 것이며, 이럴 때 소명감도 함께 제고될 것이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문가 집단은 물론 학교와 교사의 교육방법 연구·적용 및 각종 통일교육 관련 연수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대될 때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두서 없는 논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방 연 주
시흥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한반도에는 봄의 기운이 따사롭게 비추어 그동안 쌓인 앙금을 녹여 주었다. 남북 정상 회담은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온 대립과 반목의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분단 이후의 세대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새 천년에는 7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적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이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 교육의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중학생들의 북한관과 통일관은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까닭에 급변하는 국내외적 통일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 통일교육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오늘 주제인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하신 차우규 연구위원께서는 7차 교육과정 도덕교과 집필진으로서 통일교육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던 분으로, 통일교육과 관련된 7차 교육과정의 분석, 학교 통일교육의 접근 방법과 활성화 방안 등은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매우 뜻깊은 연구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차우규 연구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평할 수 있을 만큼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만, 발표자의 학교통일

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궁금한 점들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II. 학교 통일교육의 제 쟁점

첫째,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적과 동포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서해교전과 금강산 관광이 동시에 존속하는데서 보여주듯이, 과거처럼 단순한 대결의 관계만이 아닌, 상호 모순된 대결과 화해 협력의 관계가 동시에 병존하는 구조적인 二重的 關係에 놓여 있으며, 북한 또한 '대결의 상대'이면서 '통일을 같이 만들어갈 동반자'라는 이중적 존재로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학교통일교육은 이러한 이중성을 반영한 '과도기적인 이중적 상황'에 놓여있다.

통일 교육의 시작은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라고 본다면, 북한을 '적'과 '동포'라는 극히 상반된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이해하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안보위협 대상이면서 동포라는 상호 모순된 관점의 북한을 어떻게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이해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북관 혼란은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통일 단원이 소홀히 다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을 하나의 프리즘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북한을 바라볼 때 선·악의 구도에서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지니고 있는 모든 면을 냉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져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 자료의 활용 문제와 관련한 교사의 자율성 문제이다.

올해 초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된 공문에 의하면 "최근 편향된 북한관과 통일관에 의한 일부 교사들의 임의 통일 교육이 우려되는 바, 각급 학교에서는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에 배치되는 임의 통일 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현장에서 통일교육지침서에 안내된 자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지만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애매할 수밖에 없다.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자료들의 출처는 대부분 통일부의 공식 자료들과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인데, 사이버 공간에는 수많은 북한관련 웹사이트와 통일관련 웹사이트들이 구축되어 있어 객관성과 임의성 시비는 항상 상존한다.

만약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활용하는 자료가 검증된 것인가?' 등의 물음들에 위축되어 교사 스스로 자료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바람직한 통일 논의와 수업의 효율성 향상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객관성 시비를 잠재울 대책 중의 하나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투입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국가에서 시의성 있게 개발하여 보급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자료가 의도적 편향성을 지니고 통일교육의 객관성이 저하되도록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균형적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면 교사들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일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주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민족교육 등의 방법론들과 통일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평화 교육적 관점에서의 교육, '다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문화 이해 교육적 접근, 통일 국가에서 요구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접근, 통일에 중점을 두되 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일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남북한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교육,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 중심의 학교 통일교육, 전쟁의 위협과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포괄적인 안보교육,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과 통일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통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북한 사회의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부와 한국 교육 개발원에 의한 통일 교육의 과제는 향후 우리의 통일교육이 평화 통일 교육과 냉전 해체 교육의 민족통합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리, 예술, 체육, 종교 등까지 포괄하는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윤황 교수는 통일교육에 관한 그의 논고에서 민족통합교육의 관점 하에 통일교육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시했다.¹⁾

- ① 민족통합교육은 포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인간중심의 통일교육
 - 민주시민양성의 통일교육
 - 평화애호의 통일교육
 - 상대주의(관용주의, 상대배려주의)의 통일교육
 - 이문화이해의 통일교육
- ② 민족통합교육은 조화론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보수와 혁신의 조화로운 통일교육
 -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로운 통일교육
 - 안보와 화해의 조화로운 통일교육
 - 의무론과 목적론의 조화로운 통일교육
- ③ 민족통합교육은 생활론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는 생활문화 중심의 통일교육
 - 일반인들의 이해관계를 창출할 수 있는 삶의 질 보장의 통일교육
- ④ 민족통합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통합론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저학년은 정의적 측면의 중심 통일교육
 - 고학년은 인지적 측면의 중심 통일교육
- ⑤ 민족통합교육은 객관적·현상학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사실의 기초 위에 객관적·합리적·현상학적 통일교육

1) 윤황, "統一·教育的 發展方向과 實踐課題", 「政正」(2000년 제13집), pp.148-9.

⑥ 민족통합교육은 단계적·과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단계적·점진적 통일교육
- 단기적·중장기적 통일교육

⑦ 민족통합교육은 연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범교과적인 통일교육

⑧ 민족통합교육은 냉전구조해체의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방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학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제반 통일문제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²⁾

따라서 학생들이 남북 분단의 배경과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남북한간 평화 정착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 때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여 이상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이 균형 있게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의 역사적 전통의 확립, 민족적 역량의 극대화과 국제 평화에의 기여라는 시각에서도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통일 문제를 개인 생활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통일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분단으로 인하여 '나'는 어떠한 제약을 받고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통일은 먼 나라 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절실한 문제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해 타산적이며 남을 배려하는데 인색한 요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아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통일된 국가로 살아 왔고 같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은 모두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라는 민족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통일이 실현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과 나 자신에

2) 김영하,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개발", 통일부, 통일교육논문집, 2001, pp.60-5.

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보여 주고 설득하는 방법도 또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III.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 교육과정에서의 개선 방향

교과 통합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위상을 더욱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전반적인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학교행사, 잠재적인 교육과정 등의 모든 학교 생활의 측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자는 학교의 통일교육 운영의 하나로 재량활동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재량활동 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일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통일 대비 교육은 통일 과정에서 겪게 될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민족 공동체 의식과 미래 정보사회에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 등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러한 통일 교육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 교육이 교육의 틀 속에 들어가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 민주 사회를 이룩할 때 실질적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는 남북한이 추구하는 공통점과 조국 통일의 미래상이 민주주의 체제라면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민족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 의식과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 탈북자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

통일의 과정은 체제와 이념의 통일뿐만 아니라 문화적 통일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북한 주민이나 학생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살다가 북한지역을 탈출한 주민 및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가치관 및 생활 양식 등을 이해함으로써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유추하여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으로 통일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들이 직접 살았던 북한 사회의 모습들을 교사의 지도 하에 특정한 주제를 정해 놓고 들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생활마저 곤란한 그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킴으로써,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그들의 생활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인 인적자원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교원 연수의 개선 방향

통일교육의 실질적인 성패 요소는 현장에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는 능력 있는 교사의 유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의 통일 교육 마인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단기간 연수로 강의식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교사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의 경우 교사들에게 복지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연수나 선수학습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4. 지속적이고 다양한 통일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통일 관련 행사도 강화되어야 한다.

혹자는 이러한 교육 활동이 연례적이며 이벤트성이 강한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교육활동도 반복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때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교과 내 활동이건 교과 외 활동이건 어느 한가지라도 꾸준히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저희 학교의 경우 작년에 학교 축제 관련 행사로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통일 ox 퀴즈 한마당'을 했으며, 올해는 3학년생을 대상으로 '통일, 도전 금종을 찾아라'를 통하여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내년에는 '통일 가요제'를 추진해 볼 생각이다. 또한 '장학퀴즈'

형식이나 '생방송 퀴즈가 좋다' 형식을 빌려 1인 혹은 2인 퀴즈 대회를 열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겠다.

더불어 한가지를 더 제안하자면,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집단인 연예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통일교육을 건의하고 싶다.

예전에 실시되었던 유명 연예인들의 환경 콘서트처럼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들의 통일 콘서트를 연다면 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 통일에 대한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환호하는 모습을. 서동요의 재현을 현대에서도 느끼고픈 현장교사의 애달픔과 간절한 바램이다.

5.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론의 추구

지난 2년 동안 한 학년을 대상으로 꾸준히 통일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큰 효과는 통일을 주제로 하는 수업이 재미없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점과 통일에 대해 접근하도록 한 다양한 방법들이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통일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학생들은 수업의 주인이 통일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고 이끌어나감으로써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통일 교육은 이론적인 강의도 필요하지만 직접 체험해보고 느끼게 하는 수업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교수 매체나 교수 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 이러한 교육 자료 개발에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 이미지가 중시되는 현 세대에 있어 통일교육 또한 학생들의 문화적 코드에 맞게,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했을 때 그 효과는 크다고 보겠다. 토론자는 실제로 통일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뿌듯함을 느꼈던 사람이다. 일례로 '통일교육과 ICT 활용교육이 만났을 때'라고 해야 할까?

작년에는 2학년을 대상으로 개인별로는 북한 관련 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통일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모둠별로는 통일홈페이지 및 웹진을 제작하게 하였다.

물론 나모니 드림위버니 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토론자 스스로 교사 통일 홈페이지 제작한 것은 학생들 지도에 우선이 되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동기 강화를 주고자 수행평가를 100% 실시하여 한 학기 내내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보게 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3학년을 대상으로 모둠별로 작년에 이미 구축해 놓았던 홈페이지와 웹진을 활용하여 통일일기장을 써보았는데 토론자의 생각 이상으로 너무 효과가 좋아 이번 학교 축제 전시회때 가장 학생들이 눈여겨보는 전시 작품이 되었다.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나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을 체험하게 할 수도 있으며 북한 실상에 관한 정보 사냥대회 등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하여 현 통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인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일례를 들어 보겠다.³⁾

< 컴퓨터 시뮬레이션 >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교육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한 실제 상황의 모델과 이론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을 여러 방식으로 조작하여 특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뜻한다.⁴⁾ 이렇게 볼 때,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모방이나 재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실세계의 여러 측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력한 교수 기법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동기 유발이 가능하며 실제 상황에 대한 반응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통일교육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체험 활동에 의해 이질화된 북한의 실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인터넷 사이트나 CD-ROM을 통해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예시하면,

가) 북한의 가정생활 체험

i) 북한의 시골 마을 사진을 소재로 가상으로 북한 마을을 만든다.

3) 한정미, "남북한 문화이진화 극복방안 연구-중등학교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pp. 43-5.

4) 손 미(1997), 컴퓨터 시뮬레이션 설계, 김영수 외 편저, 「21 세기를 향한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pp.21- 3.

- ii) 그 속에 북한의 한 가족을 만든다.
- iii) 플레이어(player)는 그 중 아버지, 어머니, 아이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다.
- iv) 플레이어는 자기가 선택한 인물의 역할을 실행하게 된다.
- v) 플레이어가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본격적인 가상 체험이 시작되게 된다.

이 때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1인용과 집단용으로 할 수 있다. 1인용에서는 플레이어가 선택한 배역 이외의 것들은 컴퓨터가 하게 된다. 그리고 집단용에서는 참가자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 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양해지도록 구성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탈북 시도, 지배층으로 상승, 지하 운동원으로 변신, 정치범 수용소 투옥 등의 다양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나) 통일로 가는 길

이것은 통일이 단순히 감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서 단계별로 되어 있다.

- 1단계 : 플레이어는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해 내어야만 한다. 화면의 중앙 윗 부분에 북한 남녀가 나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플레이어가 알아듣지 못할 수준의 대화 내용 가운데 특정한 단어가 좌측 하단부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이 때에 화면에서는 유성이 떨어지듯 그 단어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이전에 해당어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클릭해야만 한다. 70% 이상을 맞추어야만 2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 2단계 : 주변 4강의 책임자들을 만나게 된다.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을 가상 현실 속에서 실제로 체험해 보게 된다. 주변 4강의 책임자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3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 3단계 : 낙후된 북한의 경제를 되살려 내야만 한다. 북한의 경제지표들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비 축소, 문호 개방 등의 정책을 실시해 나가야만 한다.
- 4단계 : 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설득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6.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변화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은 가정 생활, 의식주 생활, 가족 관계, 생활 관습 등 북한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많은 상황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활 문화를 소재로 하여 통일 교육을 실천한다면 북한을 우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세계로 인식하기 보다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갖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북한주민을 다룰 때 차이와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민족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하나된 우리의 모습 찾기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통일 지도 그리기, 통일 국기 그리기, 통일 노래 배우기, 통일광고 제작해보기, 통일 염원 촛불 의식, 통일 주먹밥 만들어먹기, 통일 요리경연 대회, 북한 청소년 놀이 배우기, 통일 옷놀이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북한의 생활 문화를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연계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7. 교사 및 학교장의 지원

위에서 말한 다양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을 가지고 교사가 열의를 가지고 교육하려 해도 주변 여건이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학교통일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다.

학교 통일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일반교사 그리고 교육청 관리들의 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풍부할수록 좋다.

학생들의 통일의식이 높아지고 교사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들이 적극 호응하지 않거나, 정부의 학교 통일교육을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들에 대한 통일교육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⁵⁾ 학교 관리자, 학부모, 학부모(예컨대, 학부모회, 명예교사회, 학교운영위원회 등)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인식교육이 선행될 때, 학교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5) 권영경, “남북한 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방향”, 통일부, 「제4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 1999

또한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학교내 교원들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통일 교육의 방향을 공유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8. 통일촌의 설립 운영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민속촌을 구경하며 우리의 옛 조상을 떠올리며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난다.

작년에 통일사랑반 학생들을 데리고 관내에 있는 '남부 한마음 통일터'를 다녀온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것을 발전시켜 '통일기행반'을 운영하여 통일·북한 관련 단체 및 장소를 견학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통일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분단의 현실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상대방인 북한인들의 생활을 직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통일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통일학습 체험장은 거리가 멀거나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어 활발한 통일 교육 학습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을 학습자 스스로 느끼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체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에 각종 통일촌을 설치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9. 통일 교육 전문 요원의 양성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公理는 통일교육의 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다양한 연수 기회의 확대, 연구회 조직 운영 및 활동으로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을 열게 하고 마음을 유도하며 종국에 가서는 팔을 걷어 부치고 변혁을 향하여 행동하게 하는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환경을 조성하는 통일교육전문요원이 필요하다.

10. 통일 교육 교사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학교 통일 교육은 실제 담당 교사들의 의지와 사명감에 의해 그 질이 좌우된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 교육에 관한 정보와 교수-학습 방법론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간의 일정 지역 혹은 각급 학교별로 상호 정보 및 의견 교환의 모임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상호 교환한다면 통일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으며

학교통일교육은 현재의 통일교육체계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 통일교육과도 교사 등 통일교육 실시자 및 학부모 등을 통하여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현재의 평화공존시대를 거쳐 언젠가는 통일로 나아간다고 볼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은 곧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 민족이 현재 감내하고 있는 불행한 분단 현실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 이 시대 외세에 의해 갈라진 땅에 운명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좌우를 막론하고 통일문제를 품에 끌어야 하리라.

내 생이 끝나기 전에, 순수하고 해맑은 눈동자로 우리 교사들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반쪽이 아닌 완전한 하나의 금수강산을 물려주고 싶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줄고를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다시 한번 발표자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학교통일교육 실천방향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

유 은 진
성서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차우규 박사의 주제 발표 글은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및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교육은 노력한 것에 비해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에 대해 생각한 적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냉담한 반응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이는 학생들을 보면 통일교육을 담당해 온 교사로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통일교육 환경은 어떻게 변화했
으며 이것은 통일교육에 있어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현장교사 중
심의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통일교육은 역사적 산물로서 90년대 이후 탈냉전적 세계정세 변화는 남
북관계에도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다. 북한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개방이 가져올 자유화 바
람이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체제 유지적인 제한적
인 개방에 머물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과도기적 이중적 상황'이라고 할 수있다. 냉전 해체
의 비동시적(非同時的) 진행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는 냉
전의 잔재가 남아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 수면 위의 화해 협력 분위기와는
달리 수면 아래로는 재래식 군사력과 핵,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로 무장한 북한과의 긴장이 서려 있다.

시대적 환경적 변화는 통일 교육에 줄곧 반영되어 왔다. 그것은 반공교
육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일·안보 교육을 거쳐 통일교육으로의 호칭의 변화
로 잘 대변된다. 냉전 시대의 통일 교육은 체제경쟁을 앞세운 소멸의 논리

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탈냉전시대를 맞아 통일교육은 합리적·이성적 판단 하에 소모적인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발전과 번영의 토대인 민족공동체를 복원시킨다는 공존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의 평화 공존이 최우선의 과제로 부각된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기존 질서의 체계가 흔들리고 재편되는 과정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통일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교사들에게 큰 어려움을 던져준다.

II. 학교통일교육의 실천 방향

1. 통일에 대한 무관심 극복

최근 북한 농축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이 노출되면서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는 금물살을 타며 긴장 국면을 보이고 있다. 신문과 TV, 라디오 등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거론하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들려주는 최근의 상황의 흐름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흥미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평상시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회의적이던 학생들도 급박한 주변상황이 직접 와 닿는 것 같았다. 이는 통일교육에 있어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통일 문제는 강 건너의 일로 인식되어져 왔다. 당장 내 앞의 일이 아닌 것이다.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는 것이다. 어떤 문제이건 그것이 내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 해결이 중요하게 여겨질 리가 없다. 동태적 존재로서의 북한과 주변 정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와 정보를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고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안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평화 공존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삶의 터전에서 언어, 역사, 문화를 함께 해 온 혈연공동체이다. 그러나 분단된 민족공동체가 실질적 하나로 복원되려면 얽힌 실타래를 한올한올 풀어 가는 것처럼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이 요구된다. 적으로 바라보던 북한을 동포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인식의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는 어렵다.

대결적 입장에서의 안보가 아니라 평화와 연계된 안보 의식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 확고한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평화 정착의 기반이다. 안보는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정치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안보는 어디까지나 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3. 통일 문제의 국제적 성격 인식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의 이익이 침해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입장 뿐 아니라 관계국의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 환경의 조성에 있어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조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외세 배격을 외치고 반미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위배되는 일일 수 있다. 특히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는 통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됨을 이해시킨다.

III.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 활용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해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 교육, 평화적 갈등해결 교육 등을 기본 주제로 한 범교과적 통합 교육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재가 다양하게 개발 보급된다면 자료 개발에 따른 개별 교사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별활동을 전일제로 운영하면 현장 체험 학습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2. 통일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확충

통일관련 자료를 제시할 때는 균형적 시각을 갖춘 교사가 이를 적절히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에게 북한의 현실과 생활상에 대한 객관적인 최근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 자료들을 검증하고 자의

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 인식의 토대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생각에 동감하는 바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전체적이고 균형적 관점을 가진 통일 교육 교사가 양성되려면 교원양성 프로그램과 교원연수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폭넓은 지식을 가지면서 균형과 중심을 유지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양성이 하나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융화되고 공존할 수 있는가를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해석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3. 멀티미디어 시대에 알맞은 사이버 교육 실시

정보화 시대의 학생들은 컴퓨터가 거의 생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내전산망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 사회전반에 정보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N세대로 불리는 요즘의 학생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보다 생생하고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양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보다 앞서나갈 수 있거나 최소한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자료센터의 네트워크화 및 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특성에 따라 언론 매체와 교육 기관의 자료가 연계되고 공유된다면 보다 효율적 교육이 될 것이다.

각종 ICT 활용교육자료와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듬학습교실, 멀티미디어 실습실 등의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및 문제해결력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체험·활동 중심의 통일교육

‘Learn by doing’이라는 말도 있고 ‘Learning by experience’라는 말도 있다. 백문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도 있다. 자칫하면 추상적, 이론적, 가치규범적 교육으로 흐르기 쉬운 통일교육은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 및 가상 체험 학습 등의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겪어보고 당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북한의 폐쇄성으로 북한의 생활과 사회를 직접 체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

럽다. 하지만 화해·교류·협력이 점차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일부 학생에게라도 제한적이거나 교환학습 같은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교류도 가능하다.

통일전망대, 땅굴, 임진각 등의 견학을 통해 다양한 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정의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가상 체험 학습이다. 다양한 구체적 상황에 직접 부딪히는 가상 체험을 통해 역지사지의 자세와 공존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5.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및 학교 통일교육기본계획 참조

발표자가 제시한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은 통일교육의 일관적, 체계적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토론자의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교육과정안이 구체화될수록 교사의 자율적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내용과 방법상의 융통성도 줄어들게 된다. 통일부에서 나오는 통일교육지침서를 기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통일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안내되고 있다. 이것을 기본적인 틀로 삼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통일 전문가의 컨설팅

통일 교육 전문 연구기관이 설치되고 전문 위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 교육이 주변 정세와 정치에 민감한 분야임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통일교육 실시에 따른 부담감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검증된 타당한 자료는 제한되기 마련이므로 교사 자신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야나 기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준다면 통일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IV. 나가며

통일은 민족적 숙원사업이고 역사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통일을 통해 진정한 민족, 민주, 복지 국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 및 주변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민족의 평화와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비록 멀고 험해도 통일교육은 현재의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미래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며 민족의 실

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투자가 된다.

통일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한 교사로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되새기며 자신부터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통일 한국 건설에 앞장서야겠다.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

이 세 형
연남중학교 교사

I. 머리말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학교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학교 통일교육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라는 문제가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그간의 노력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로 여전히 학교 통일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걸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차우규 연구위원의 글은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한다. 금번 워크숍에서의 논의가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차우규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문을 살펴보고,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II. 주제 발표문의 검토

차우규 연구위원의 발표문을 편의상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관점에서 볼 때,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토론자는 생각한다.

1.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

학교 통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이 분석되어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우규 연구위원의 발표문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차우규 연구위원은 통일교육의 제 쟁점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북한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안보교육을 계속해야 하는지, 청소년들의 통일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과 통일교육의 관계 문제, 통일교육이 정부정책의 홍보인지의 여부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통일교육의 중요한 제 측면들이기는 하지만,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지는 못한 듯 하다. 사실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쟁점의 논의보다는 당장 수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참신한 자료가 더 필요하고, 형식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쟁점이 된다고 제시된 많은 문제들 중 많은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통일부 출간의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등의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가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즉, 통일교육의 일반적인 쟁점이 그대로 학교 통일교육의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문제가 일반적인 통일교육의 관점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보다 와 닿는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인식하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의 실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¹⁾ 이러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통일교육을

1) 제 4차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2002.9.27)에서 대전 가양중학교 윤현수 교사의 토론 원고 "교사·학생의 통일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이나 2002년도 중등교사 장기반 제1기 분임연구보고서로 제시된 "학교통일교육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차우규 연구위원은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의 마련, 범교과를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마련, 재량활동을 이용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마련, 통일교육 연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예산 지원, 사이버를 활용한 통일교육 자료 센터의 특화 및 네트워크화, 통일교육 컨설팅제 운영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상설적인 통일교육 협동 학교 계획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각종 모의고사에서의 출제 등 8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이러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일부는 지나치게 총론적이고 거시적인 느낌이 들고, 또 일부는 이미 실천되어 있기도 하다.

제시된 활성화 방안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교원양성 교육과정 마련, 재량활동의 편성 권한, 예산 지원 권한, 통일교육 자료 센터의 특화 및 네트워크화, 통일교육 협동학교 계획 운영 등의 방안들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방안들은 학교 통일교육 정책 집행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들이다.

또, '재량활동을 이용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마련'이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교재들이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이미 통일 관련 문제들이 출제된 바 있다.²⁾

전반적으로 볼 때 차우규 연구위원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들은 학교 통일교육 정책 담당자들에게 매우 적절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은 좋은 참고자료가 된 것이다.

2) 최근 수능시험에 실제로 2001년은 2문제, 2002년의 경우 5문제가 출제되었다(이창렬,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통일부 제 1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발표원고」, 2002. 4. 26)

Ⅲ.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

필자는 위에서 차우규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가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힘들 것 같다는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적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차우규 연구위원 같은 전문적 연구자들이 내어놓지 못하는 만족할 만한 대안들을 토론자가 제시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도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에서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해 보고, 그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통일교육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의사소통의 단절,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지위,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 통일교육 방법의 교묘화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상술한다.

1. 의사소통의 단절

학교 통일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 토론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사소통의 단절을 지적하고 싶다. 학교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있는 제 행위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통일교육과 관계 깊은 정부 당국인 교육부·통일부와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사이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대전 가양중학교 윤현수 교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교사의 57.1%가 통일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 및 통일부의 관계자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수많은 통일교육 자료들을 만들어 내고, 이를 일선 학교에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료를 찾으려는 교사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는 통일교육 당국과 교사들 사이의 통일 관련 자료 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통일부나 교육부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의 성격

에 대해 깊이 있는 현장 조사를 하지 못했거나,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있는 고려를 하지 못했고, 교사들은 어떤 자료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탐색 작업을 하지 못했으며, 어떤 경로로 자료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 하고 있는 듯 하다.

또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단절도 지적하고 싶다. 통일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자료들을 집하고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디선가 본 듯한 자료'라는 생각이다. 비슷한 성격의 자료들을 집필자나 개발자 혹은 연구자들만 바뀌면서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막대한 시간과 예산의 낭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만들어진 자료나 정보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부분들을 추가하는 등의 능률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통일교육 관련 연구자들의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우규 연구원이 제시한 '통일교육 자료 센터의 특화 및 네트워크화', '통일교육 컨설팅제 운영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교 현장과 통일교육 당국, 연구자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그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

2.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지위

통일교육 당국이나 통일교육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방법은 많은 경우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통일 교육 행사의 내실화, 체험학습의 강화, 재량활동을 이용한 통일교육, 통합교과적인 접근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학교 통일교육이 과연 학교 활동의 최우선 활동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통일교육 시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의 지위를 학교 활동의 실질적인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키거나, 아니면 통일교육과 관계 있는 교과 내에서의 실천 계획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거나, 현실에 맞추어 이상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절정에 달한 뒤, 그 관심이 점차로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통일교육만이 지

속적이고 발전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윤현수 교사의 글에서 볼 때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46.9%에 불과하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중고생들의 71%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³⁾고 답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학교에서 지속적인 통일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학교 통일교육에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학교의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 사회의 통일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학생들은 북한이나 통일에 관해 학교에서보다 TV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사회적 여건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다.

4. 통일교육 방법의 교묘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통일 방법을 모색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일교육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19.4%에 지나지 않는다.⁴⁾ 학생들의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교사들을 볼 때 그 원인을 단순히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전통적인 통일교육 방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사 중심의 강의식 방법이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으로 제시되는 학습 방법보다 항상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교사의 감동적인 강의는 그 어떤 통일교육 만큼이나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교사의 강의가 항상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통일교육을 배워 온다. 통일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항상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물론, 통일교육의 계열화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반복되는 내용의 지루함을 들어 주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통일교육 보다는 간접

3) 한겨레 신문, 2000.07.21 (사회) 통계/설문조사 17면 04판

4) 윤현수, 앞의 글, p.46

적인 통일교육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광고를 직접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지루해 하지만, TV나 영화 속에 삽입되어 있는 상품의 간접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마저도 생기는 원리이다.

통일교육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통일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묘한' 통일교육의 방법을 이용한다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토론자는 “학교 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을 가했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토론자는 여전히 차우규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는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담론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담론이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보다는 학교 통일교육 정책자들에게 보다 더 유용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에서, 짧은 식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대안들은 개인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수준이지만, 이러한 개인의 생각도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V. 부 록

統一教育支援法

制定 1999·2·5 法律第5752號

第1條 (目的) 이 법은 統一教育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統一教育"이라 함은 國民으로 하여금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과 民族共同體意識 및 건전한 安保觀을 바탕으로 統一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價値觀과 態度的 涵양을 目的으로 하는 制반 教育을 말한다.

第3條 (統一教育의 基本原則) ①統一教育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수호하고 平和的 統一을 지향하는 方向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統一教育은 개인적·파당적 目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條 (統一教育基本計劃의 수립)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統一教育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一教育의 基本方向 및 主要內容
2. 統一教育 실시와 관련하여 各 部處 및 各 機關·團體의 協助에 관한 사항
3. 統一教育要員 및 統一對備要員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統一教育實態의 調查·評價 및 是正에 관한 사항
5. 기타 統一教育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統一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의 設置) ①統一教育에 관한 基本政策 기타 重要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부에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하여 2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統一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統一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委員중 6人은 國會議長이 추천하는 者로 한다.

④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며,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政府의 임무) ①政府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教育의 실시, 統一問題研究의 振興, 統一教育要員의 양성·지원, 教材의 開發·普及 기타의 방법으로 統一教育을 활성화한다.

②政府는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豫算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7條 (統一教育의 반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教育訓練機關 및 大統領令이정하는 社會教育機關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訓練課程에 統一教育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 (學校에서의 統一教育振興) ①政府는 初·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教育의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大學 등 高等教育機關을 設立·경영하는 者에게 統一問題와 관련된 學科의 設置, 講座의 開設, 研究所의 設置·운영 등을 勸獎할 수 있다.

第9條 (統一教育受講의 요청 등)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 南北交流·協力事業에 종사하는 者, 統一對備業務에 종사하는 者 기타 統一教育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統一教育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統一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教育對象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條 (統一教育協議會) ①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는 統一教育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 상호간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統一教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議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告發) 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統一教育을 실시한 때에는 搜查機關등에 告發하여야 한다.

附 則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제16501호

개정 2001. 1. 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1. 29 대통령령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 (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